전곡선사박물관의 시작,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1993 — 2022

30년의 기록

30th Archive

JEONGOK PREHISTORY MUSEUM

전곡선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의 시작,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30년의 기록 1993 — 2022

본 자료집은 전곡선사박물관의 ESG 실천을 위해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중기를 인쇄로 제작 되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의 시작,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

1993 — 2022 ———— 30년의 기록

전곡선사박물관
JEONGOK PREHISTORY MUSEUM

1979년 전곡리 유적의 첫 발굴조사가 시작되고 1991년 5지구, 1992년 1~2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1993년 당시 발굴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활용해 '전곡리 구석기유적관'을 마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1회 구석기문화제가 열렸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의 시작이다.

CONTENTS

전곡선사박물관으로 이어진 축제의 정신 006

전곡리 구석기문화제를 알아보다 008

· 축제 개최 현황

· 축제 연표

전곡리 축제 30년의 회고 _
배기동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소장 012

아카이브 자료로 보는 축제 30년 032

전곡리 유적 보존을 위한 기반 확보
· 1993 ~ 2000 032

주최기구의 변화와 연천 지역축제로서의 양적 성장
· 2001 ~ 2010 074

세계적인 문화유산 축제로의 안착과 성장
· 2011 ~ 2022 118

맺음말 156

도판목록 158

전곡선사박물관으로 이어진 축제의 정신

전곡선사박물관에 새겨진 전곡리 축제의 정신, 유산

1978년 늦여름 동두천 미 2사단 기상대에 근무하던 그렉보웬은 한국인 여자친구 (후에 그렉보웬과 결혼한 상미 보웬)와 함께 한탄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고고학을 공부했던 호기심이 발동해서 인지 그렉보웬은 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그렉보웬의 눈에 희안하게 생긴 돌조각 몇 개가 눈에 띄었다. 결국 이 돌조각들은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발견된 보고가 없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로 판명되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놀라운 발견의 시작이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프랑스의 생 따슐 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하여 그 지명을 따서 아슐리안 주먹도끼로 불리는 전기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듯한 마치 물방울 혹은 아몬드열매 같은 모양을 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양쪽면을 번갈아 가며 떼어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석기로 구석기시대 석기 제작 기술의 새로운 진보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1978년 한탄강변에서 발견되기 전에 까지는 인도를 기준으로한 동쪽 즉 동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할렘 모비우스 교수의 세계구석기문화 이원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석기시대에 서양의 문화적 우월성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딱히 반박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던 주장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동쪽 끝, 한탄강변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들로 인해 세계 구석기문화 이원론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1979년 초봄부터 연천군 전곡리 일대는 수많은 외지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세계적인 발견이라고 대서특필된 주먹도끼를 찾기위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주먹도끼들이 발굴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발굴단에 격려금까지 하사할 정도였다. 이 격려금으로 당시 발굴단의 현장 사무소를 짓게 되는데 이 발굴단 현장사무소는 전곡선사박물관의 건립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93년 당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배기동 교수(초대 전곡선사박물관장)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준 금일봉으로 지은 발굴현장사무소를 수리하여 자그마한 유적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0평도 안되는 건물의 반쪽을 소박하게 꾸민 박물관이었으나 전곡리 유적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서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다. 이 전곡리 유적관의 개관기념행사를 전곡리 유적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의 의미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작은 잔치를 열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약 200여명 정도가 모여 석기를 만들어보고 돼지도살체험을 프로그램으로 개관행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고고학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다.

200명이 모여서 시작한 소박한 잔치는 벌써 30회째, 해마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되었고 10평 정도의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 시작된 전곡리 유적관은 초현대식의 전곡선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하였다. 눈만뜨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도로가 뚫리던 개발의 광풍이 휘몰이 치던 시대를 견뎌내며 무려 23만평에 달하는 전곡리구석기유적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곡리 유적의 보존은 전곡선사박물관의 건립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히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전곡선사박물관은 이렇듯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선구자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정성과 기원이 모아져 탄생하게 되었다. 전곡선사박물관의 개관행사로 거행되었던 세계 아슐리안 주먹도끼 학회에 참가한 많은 외국의 구석기학자들은 잘 보존된 구석기 유적에 수십만명이 모여서 구석기를 주제로 한 축제를 즐기는 모습과 최신 건축기술이 동원된 전곡선사박물관의 위용에 감탄과 부러움을 표했다. 해마다 전곡패밀리를 자처하는 세계 각국의 구석기학자들이 다양한 선사체험을 들고 참여하는 전곡리 축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전곡리구석기축제가 유적의 활용과 향유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점을 상기해서 전곡선사박물관은 인류의 진화와 선사문화의 이해를 통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활동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유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문화적 삶이 풍성해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 그곳이 바로 전곡리 구석기축제다.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이하응

전곡리 축제 개최현황

단계
1단계 전곡리유적 보존을 위한 기반확보
2단계 주최기구의 변화와 연천지역 축제로서의 양적성장
3단계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돋음 : 국제교류를 통한 선사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심화
4단계 세계적인 문화유산 축제로의 안찬과 성장
5단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적응

회차	년도	축제일	부제
1회	1993년	4.11	짐승인간의 현대나들이
2회	1994년	5.5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
3회	1995년	5.5	돌도끼로 사는 법
4회	1996년	5.4~5	원시시간 속으로
5회	1997년	5.4~5	원시인 생활탐구
6회	1998년	5.4~5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7회	1999년	5.4~5	원시마을에서의 하루
8회	2000년	5.5	-
9회	2001년	5.4~5	원시전곡여행
10회	2002년	5.4~5	원시마을 속으로
11회	2003년	5.3~5	원시세계로 가자
12회	2004년	5.1~5	손으로 만져보는 구석기
13회	2005년	5.4~8	전곡리안의 숨소리
14회	2006년	5.4~8	전곡리안의 숨소리
15회	2007년	5.4~8	전곡리안의 숨소리
16회	2008년	5.2~6	전곡리안의 숨소리
17회	2009년	5.1~5.5	전곡리안의 숨소리
18회	2010년	10.29~11.2	전곡리안의 숨소리
19회	2011년	5.4~8	전곡리안의 숨소리
20회	2012년	5.4~8	전곡리안의 숨소리
21회	2013년	5.3~5	전곡리안의 숨소리
22회	2014년	10.31~11.2	전곡리안의 숨소리
23회	2015년	5.2~5	전곡리안의 숨소리
24회	2016년	5.1~5	전곡리안의 숨소리
25회	2017년	5.3~7	너도? 나도! 전곡리안
26회	2018년	5.4~5.7	너도? 나도! 전곡리안
27회	2019년	5.3~6	너도? 나도! 전곡리안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개최	
28회	2021년	온라인/상설	전곡리안의 나들이
29회	2022년	10.7~10	전곡리안 시그널, 순수의 시대
30회	2023년	5.4~5.7 (예정)	전곡리안의 조우

축제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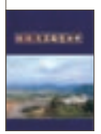
1978 전곡리 유적 발견

1979

1992 전곡리 문화축제

1993

1994
- 4.11 구석기유적관 개관기념 - 전곡 구석기 문화제 **짐승인간의 현대나들이**



1995

1996
- 5.5 전곡 구석기 문화제 **돌도끼로 사는 법**

1997
- 5.4~5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인 생활탐구**

1998
- 5.4~5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인이라면**

1999

2000
- 5.4~5 제1회 전곡 구석기 설치미술제 (전곡포럼)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마을에서의 하루**

2001

2002
- 5.4~5 문화제 실무위원회 구성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전곡여행**

2003
- 5.4~5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 구석기유적관 개관기념 축제 전곡 구석기 문화제

- 5.4~5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제1회 전곡리유적기념 국제학술회의 전곡 구석기 문화제

2004
- 5.3~5 선사고고학체험 학교/마을 시작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원시세계로 가자**

2005

2006
- 5.4~8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지정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07
- 5.4~8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08

2009
- 5.1~5 선사유적 국제교류 특별교류전 연천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0
- 10.29~11.2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1
- 5.4~8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2
- 5.4~8 연천 구석기축제 제5회 세계구석기체험 마을(명칭변경)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3

2014
- 10.31~11.2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5
- 5.1~5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6
- 5.1~5 25주년 기념 문화유산교육과 유적보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연천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숨소리**

2017
- 5.3~6 연천 구석기 축제 **너도?나도! 전곡리안**

2018

2019
- 5.3~6 연천 구석기 축제 **너도?나도! 전곡리안**

2020
- 미개최 **COVID 19 유행**

2021
- 연천 구석기 축제 상설 (5~10월)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전곡리안의 나들이**

2022

2023
- 5.4~7 연천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의 조우 30만년의 신비 30년의 즐거움**

- 10.7~10.10 연천 구석기 축제 **전곡리안 시그널, 순수의 시대**

1단계
전곡리 유적 보존을 위한 기반확보

2단계
주최기구의 변화와 연천지역축제로서의 양적성장

3단계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돋음 : 국제교류를 통한 선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심화

4단계
세계적인 문화유산 축제로의 안착과 성장

5단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적응

전곡축제, 들꽃 가득한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선사유적공원으로 가게 만든 견인차

배기동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소장

1

전곡유적, 마음이 저리는 유적 이름

전곡유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선사시대 유적이다. 이 유적이 세간에 오르내릴 때는 으레히 미군병사가 발견한 유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고고학자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욕'이 되는 말이다. 현대 한국고고학사를 들추어 보면 일본인들이 와서 조사하고 발굴한 것이 대부분이고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갔을 때는 한국에는 발굴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야 하는 일본인 학자 아리미쯔 교이찌교수를 붙잡아 두고 경주의 호우총을 우리 국립박물관 학예사들과 함께 파게 하였다. 고고학조사법을 습득하느라고... 오늘날 구석기연구의 시작으로 꼽는 지난 60년대에 발견된 석장리 구석기유적의 경우에도 외국 대학원생이 발견한 것이다.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20년의 세월 가까이의 시점에서도 한국고고학의 역량은 큰 진전은 없었던 셈이다. 다만 국가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진 경주나 부여 등지의 역사고도의 유산발굴은 그나마 한국고고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지난 세기의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서울 강남지구개발에 앞선 구제발굴과정을 보면 당시의 우리 유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고고학의 인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왜 전곡에 그런 석기가 있는 줄은 몰랐나?' 라는 질문에 대한 변명으로서 당시까지의 사회적인 상황이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이 연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문을 당하는 소위 대단히 '위험지역'으로 간주하여 통제되던 지역이다. 그래도, 전곡구석기유적을 말하면 '동두천 미군병사'만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쓰린 속을 달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전곡발굴, 나의 고고학운명을 바꾸다

전곡유적이 발견된 것은 1978년이다. 그해 나는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던 고 김원용 교수께서 지시한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 준비이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구석기전문가가 없으니 몇 대학이 연합하여 발굴하는 것으로 정하고 경희대학교 황용훈 교수, 영남대학교 정영화교수, 건국대학교의 최무장 교수 등을 참여 시키고 국립기관으로 국립박물관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소는 측량을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1차발굴의 경비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발굴지역은 당시에 지정한 제2지구이었다. 이 지역은 지형이 말안장 같이 생겨 동서방향의 양측에 둔덕이 있고 중심이 우묵한 형상이었다. 그래서 지형에 대각선으로 피트를 배치하고 각 대학과 박물관 팀이 시굴 피트 하나씩을 맡아서 파기로 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발굴로서 지층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이 연합발굴은 발굴과정에서 각 팀 간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를 통일하는 방안으로 2차 발굴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단독으로 하고 참여한 고고학자들은 자문위원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발굴은 김원용 단장의 지휘 하에 내가 총괄적인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그 발굴은 1982년까지 4년 동안 지속되었고 1983년에는 자연과학적인 조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초기 전곡발굴프로젝트, 새로운 고고학 운명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원래 삼국시대 고분고고학 중에서 기마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언젠가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거대한 적석총을 발굴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다. 스키타이지역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 문화의 흐름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인생은 결국 발굴하는 유적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곡을 발굴하고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는 역사시대 고고학에서 가장 거슬러 올라간 선사시대, 구석기시대고고학을 하게 된 것이다. 구석기시대 유물과 유적은 다른 시대의 것들에 비해서 대단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인간의 흔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과 논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분야라는 것이 학문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자의 출발 여정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 셈이다. 그 이후 40여년이 흘렀다.

지난 1979년대 말 그리고 1980년대에 이루어진 전곡리 발굴조사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인생행로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일들이 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1986년 발굴에서 대전차 지뢰 3점이 발굴구덩이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에 발견되었는데 만일 그것이 수습과정에서 터졌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 유학 중에 박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귀국한 것인데 발굴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현장 가건물 사무실을 개조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발굴하였는데 이를 안쓰럽게 여긴 후배들이 와서 발굴을 많이 도와주었다. 특히 이영훈 전 국립박물관장이나 호암미술관에 근무하였던 박순발 교수는 박물관근무가 끝나고 바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달려와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 지금은 모두 대학교수가 되어 있지만, 이 솔선하여 발굴작업을 도와주었다. 초기 발굴에서는 전곡은 결국 젊은 고고학 지망생들의 필드스쿨 같이 활용되었고 같이 작업하였던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흐르고 있다.

한국발굴사에서 초기 단계(1979-1983) 전곡유적발굴

지금 되돌아보면, 전곡발굴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굴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을 발굴한다는 것은 세계고고학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발굴

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였다. 70년대 들어서 무령왕릉 발굴은 정말 센세이션한 발견이었지만 그 구제발굴식의 단기간의 발굴에 대해서는 후일담이 많다. 그리고 경주의 고분들의 발굴이 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지만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온 유적이라서 고고학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경우이다. 유적의 중요성이 가장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고고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발굴사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석기전문가들이 모여서 발굴단을 조직한 일이다. 댐이나 도시개발 등의 구제발굴을 위해서 연합팀이 각기 지역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유적들을 발굴하였지만, 전문가집단이 한팀이 되어서 발굴을 도모하는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물론 지속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정신은 1차 5개년계획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략은 새로운 구석기유적 발굴과 연구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초기발굴과정에서 발굴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하여 한 지점을 여러 팀이 나누어 발굴하는데 발생하는 층위구분이나 석기분류 그리고 기록방법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해체의 과정 역시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앞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연구의 전통이 다른 국가에서 공부한 분들이 각기 석기분류의 개념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유적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사유적으로서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주민사의 시작을 까마득한 옛날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1차발굴 기간동안 KBS가 상주하면서 녹화를 하였고 심지어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보여주는 대한 뉴스에서 방영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차 발굴기간 동안 발굴 단장이던 고 김원용 교수가 청와대로 가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석기들을 보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발굴현장을 오겠다는 희망을 보여서 전곡 현장이 난리통이 된 적이 있었다. 결국 방문은 못하였지만 비서실장이던 김계원씨를 보내어 현장상황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군인 별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전곡은 전방군인도시로서 아들이 이곳에 군인으로 배치된 부모들이 오기는 하지만, 전방 민통선이 가까워 일반인들이 그다지 방문할 이유가 없던 대단히 외진 곳이었고 항상 부근 부대에 주둔하는 군인들로 붐비는 도시이었다. 그런 도시에 모든 방송사와 일간지들 취재진이 북적거리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곡유적에 대한 뉴스를 하니 지역 주민들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발굴단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짓도록 연천군에 금일봉을 보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곡리구석기유적관이 된 가건물이다.

세 번째로 적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과학적인 조사가 고고학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점이다. 요즈음은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고 또한 조직적으로 분야를 설정하여 조사가 시작된 일이다. 지질분야에서는 이상만 당시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지형 분야에서는 당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동원 교수, 그리고 생물 분야에는 장남기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조사가 5차년도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서 피스톤 코어를 세 지점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유적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무암시료를 일본 동경대학의 연구소에 보내어 연대측정을 한 결과 0.27mya가 나왔는데 사실 오차가 너무 커서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 연대치는 1차발굴에 국제적인 관찰을 위해 초청된 동경대 와다나베 교수에 의해서 시도된 것인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오보가 생겨서 한반도에도 270만 년 전의 유적이 나온 것으로 되기도 하여 저명 일간1면에 톱으로 장식된 적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유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로서는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협업이 익숙하지 않고 4기지질학적인 연구 자체가 그다지 발달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결과는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선사고고학적인 조사에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융합적인 연구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인 지난 90년대와 2천년대 초에 두 차례의 국제적인 학자들의 참여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한국고고학사에서 드문 일로서 학사적으로 반추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지역사회변화와 유적보존

전곡리선사유적은 아마도 선사유적으로서 가장 넓은 지역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다. 1979년 1차발굴 이후 사회적인 관심이 크고 유적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당시에는 이 지역이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에 부적합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일부는 거의 황무지같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또한 주변의 벽돌공장부지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을 것이므로 제외하고 지정 구역으로 포함시켰다. 국도3호선 동편 지역 역시 군부대가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지정구역에 제외하였고 발굴구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정하면 나머지는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지정한 구역이 강 건너편 제4지점을 포함하여 약 24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오늘날 보다시피 이 지역은 평지로서 국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적지정구역이 고시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이 지역도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적지 보존 구역 내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토사채취나 굴삭기를 동원한 평탄화 작업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또한 유적보존구역 가까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1986년에 내가 미국에서 박사논문을 위한 조사로 일시귀국하였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군부대가 허가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군사도로를 내려고 제2지구의 중심구역을 가로질러서 오늘날 양원교로 관통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발굴작업반장이던 임종태 씨가 나에게 신고를 해옴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였고 문화재관리국이 나서서 도로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였던 군관계 기관에 해당 군부대 책임자의 문책을 주문하는 등 엄중하게 항의하였다. 그래서 그 도로 선형을 포기하고 그 훼손된 지점을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1986년 발굴이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지역주민이 유적의 중요성과 훼손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90년대 초, 군부대가 다시 무단으로 길을 내기 위한 공사를 하였고 이를 임종태 씨가 인지하고 보고하여 옴에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으로 하여금 또 다시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오늘날 양원교로 연결되는 선형이 만들어져 있었다. 아마도 1985년의 계획에서 양원교와 연결되는 도로를 내는 것은 군사전술상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문화재보호법의 위반으로 중지되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시도한 것이었다. 그래서 노출된 단면을 따라서 조사를 하고 전술도로를 내도록 하여 준 것이다. 이 두 차례의 군사도로 무단개설사건은 사적지의 훼손이 엄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는 하였지만 결국 도로가 나고 말았던 점에서는 사적지정구역도 절대 불가침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90년대 초에 군사도로개설을 위한 발굴조사가 있

었는데 이 즈음에서 지역사회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사적보존구역 외곽의 보호구역이 500미터가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전곡지역의 개발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늦은 것에 대해서 문화재보존구역이 큰 원인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왜 넓은 사적구역을 발굴하고 해제하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생기고 또한 넓은 사적구역이 그저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둘 바에는 해제하든지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개발을 해 주든 지의 가부간의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비난의 표적은 바로 발굴담당자가 되었다.

가장 호된 고역을 치른 것은 바로 사적 구역 내에 남아 있었던 문닫은 벽돌공장 부지였다. 그 공장을 하던 H모씨가 아파서 눕게 되자 그 땅을 팔려고 하였지만 주변지역보다 시세가 형편없이 싸고 또한 팔기가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조카되는 분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나를 개인적으로 심하게 비난하였다. 급기야는 막무가내로 발굴해 보자고 주장하여 그 땅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토지주인 H씨가 이 조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문화재청 관계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시작하였다. 결국 상부층은 벽돌공장의 재료로 제거되었지만 하부층에서 석기가 출토되면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은 근거를 잃게 되었다. 그 후 내가 집에 없을 시간에 집에 이상한 물건을 두고 갔는데 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후배교수를 대동하고 하루 종일 그집을 찾아서 돌려주게 되었다. 그 집에서 H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직접 듣게 되었고 두 내외가 울먹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였다.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또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강구하여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후일에 아이러니하게도 H씨의 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전곡유적의 해설사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전곡박물관에서도 일을 하였고 본인도 전곡유적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또한 일을 즐거워 하였다.

2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을 구상하다.

지난 세기의 90년대에 전곡리에는 전곡유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적지정간판 뿐이었다. 그렇지만 전곡리 유적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막을 장식하는 첫 번째 선사유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아들을 찾아오는 부모들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의 '하소연'이 어디가 유적이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들었다. 어느 지방에서 오신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신 경우도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조차 이곳이 왜 이리 황무지같이 '버려진 곳'이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안다고 하더라도 '돌쪼가리'가 나왔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유적의 문화적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장소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곳의 문화적인 가치를 알리고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게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발굴조사단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어준 가건물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박물관 또는 유적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작심을 하게 되었다. 건물은 허름하고 또한 박물관을 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계획이었던 셈이다. 전곡리 강가 언덕의 작은 하얀집이 박물관으로 변신하게 된 동기였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92년 봄부터였을 것이다. 폐암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요양가시던 고 김원용 선생을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이 작은 박물관에 걸 현판 글씨를 부탁드렸는데 나중 미국에서 들어오실 때 '전곡구석기유적관' 이라고 가로와 세로로 적어 주셨다. 이것은 인사동에 유명한 전각집에 부탁하여 만든 것이 지금 기념관에 전시된 현판이다. 당시에 현장사무소 건물은 내가 1986년에 발굴하면서 반을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사무실로 전환하고 입구의 반을 전시관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보여주고자하는 것은 당연히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들과 층위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울 듯하여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곡리구석기유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것들만 해도 오늘날 전시하려면 큰 전시장이 몇 개 필요할 것이지만 당시로는 유적지 내에 구석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전곡리 유적이 어떤 유적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었던 셈이다. 전곡리 석기들은 발굴에서 수습된 것과 지표에서 수습된 것들을 골라서 전시하도록 하였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석기도 함께 전시하였다. 문제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 전시였다. 이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치과의사 김사식 씨가 추천한 경희대학교의 신제남 교수가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므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추천해 주었다. 신 교수가 내가 수집한 그림을 들을 토대로 용암대지 위에 강이 흐르고 있을 때의 풍경 속에서 사는 원시인 그림과 원시인들이 여러 가지 행위, 즉 사냥이나 채집 그리고 석기제작 행위 도구를 만드는 행위 등의 여러 가지 생활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주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정면의 좌우로 이 그림들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동아시아의 유적들을 소

개하는 사진들을 양편 벽에 걸었다. 그런데 전곡리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주먹도끼들은 이곳에 전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몰드를 떠서 복제를 하였는데 그 때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의 김창석 씨가 선뜻 자신이 봉사하겠다고 하여 도움을 받았다. 사례를 하려고 하니 절대로 안받는 다는 김 선생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종선 선생이 중국에서 선물받았던 북경원인 복원 토루소 카피 본도 수리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다. 유적의 개요와 이 박물관의 내력을 소개하는 패널을 제작하는데는 당시 대학원생 이었던 송진한 군의 도움이 컸다. 컴퓨터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밤을 세우며 한단어 한단어를 맥킨토쉬 컴퓨터로 쳐넣고 인쇄하여 상감하듯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패널을 만들었다.

그런데 전시품을 만들고 또한 진열장을 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호암미술관에서 폐기된 진열장을 여섯대를 받아왔는데 아마도 그 장들이 1980년대 초 개관시에 만들었던 것이어서 두터운 철판을 가지고 만들어서 운반하는데 고역을 치루었다. 특히 길에서 유적관까지 옮기는데 학생들과 인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달려들어서 옮기는데 아마도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주저앉을 일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모두 한마음로 도와주는 마음이 커서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더 심한 경우가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증한 긴 나무장이었다. 나무라고 하지만 엄청 무거웠고 길어서 다루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한영희 부장이 옛날 쓰던 장들이 경복궁 마당에 쌓여 있으니 두어개 고르면 수리하여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 당시 국립박물관이 중앙청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이전 건물에서 사용하던 장들이었다. 작은 박물관이었지만 일이 만만치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오지의 종족들이 만든 마을박물관 같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전곡유적의 역사상에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들은 건물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작은 박물관은 아이처럼 크는 박물관이라서 언젠가는 멋진 박물관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박물관을 보고서 정부 욕을 해댈 테니 이것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영악한 기대를 하고 만든 박물관이었던 것이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여야 더 나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겠는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일을 시작하고 나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작은 일이지만 이루어낼 수 있었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의 창립

전곡유적관을 만들면서 이를 운용할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다양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학교 이외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연구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의 그래서 소위 배기동의 '1인 고고학연구소'를 세우기로 작정하였다.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 누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모두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였다. 당시 전곡발굴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오셨던 고 김원용 선생님에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니 '아, 이름도 크네!'라고 하신 적이 있다. 당시로서는 개인적인 사설 고고학연구소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름만 크게 만들어서 좀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잘 정한 점은 구석기시대는 한반도만을 생각하여 연구할 수는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여하간에 그동안 연구소는 장소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전곡과 관련된 업무의 구심점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다.

동아시아구석기연구소, 요즈음은 제자들이 흔히 '동고연'이라는 축약어를 써서 부르지만, 1992년 11월 7일에 제자들과 함께 설립을 기념하는 조촐한 자리가 김사식 치과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일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김사식 치과병원에서 전곡유적관 건립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병원의 창고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이었지만 위치가 송파 농수산 시장 앞이어서 교통이 편한 점이 있고 중요한 점은 김사식 병원장이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얼마전 연구소 30년 생일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활동을 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전곡'이라는 주제가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전곡구석기축제를 만들고 유산교육을 만들고 실제로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교육이 생겨나고 또한 유적축제들이 줄이어 창설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는 그 효시를 날린 셈이 되었던 것이고 문화유산의 사회적 활용의 모드를 창시해낸 가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곡유적관 개관식

'그 작은 유적관을 위해 무슨 개관식을?' 그러나, ...
전곡유적관을 만드는 숨겨진 의도 중의 하나는 전곡과 연천의 주민들에게 이 유적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항구적인 체제로서 박물관이었지만 이를 좀 더 널리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 수 있는 대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개관식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구성이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일단 문화유산관련 전문가들이나 기관에게도 전곡유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최초, 즉 1979년에 있었던 제1차발굴 기간에 맞추어 날짜를 정하게 되었는데 시작일이 3월 21일이어서 너무 춥다는 의견이 있어서 늦추어 4월11일에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돌쪼가리 유물을 전시하는 유적관에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두려면 그 돌쪼가리를 의미있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사실 마뜩한 주제나 꺼리가 생각이 나질 않았다. 1992년 그 즈음에는 매주 두세번씩 김사식 치과 병원 건너편에 있는 송파 농수산 시장의 난전에서 병어회 파티를 하곤 하였다. 심지어 겨울에도 의자 밑에 난로를 두어 궁둥이를 뜨듯하게 만들어서 저녁이면 몇 사람이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할 일을 잡담삼아 하였다. 어느 하루 이 자리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무세중 씨'였다. 무슨 인연인지 김사식 원장이 이 치료를 해주고 있어서 치료하고난 후 같이 저녁삼아서 한잔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세중 씨는 전위예술가이고 벌거벗은 채로 하는 공연이 흔히 퍼포먼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언론에 가끔씩 보도되기도 했는데 지리산의 노고단인가 어느 산꼭대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 등 자연 속에서 나체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이었다. 그를 만나자 말자 '아, 최고이자 최적의 공연!!!!'이라는 생각이 퍽 떠올랐다. 너무도 절묘한 인연이었다. 그러나 설득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도 전곡유적의 이미지가 그다지 널리 확산된 것도 아닌데 대뜸 전곡유적관을 위해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개런티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김사식 원장이 그를 설득하였다. 바로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그의 치료비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전곡유적관의 개관을 위해서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연해 줄 것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전위예술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미감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지만 생활은 그리 풍족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풍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예술가에게는 '풍족'이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사식 원장

의 제의와 함께 왜 이 행사가 이 세계적인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제고에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를 설득하였다. 유적에 있어서 그의 예술적 행위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각도로 하였던 것이다.
무세중, 본명은 김세중이다. 무(巫), 무당이라는 뜻인데 스스로 무당이라고 하고 자기의 퍼포먼스를 굿이라고 불렀다. 그는 원래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부인도 무용을 하는 예술가였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의 직관적 예술론은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나로서는 다른 선택도 없었지만 정말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전곡에 어린 우리 인류의 기운이 이러한 인연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래서 나도 그도 모두 이 프로젝트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내가 사전에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같이 전곡으로 가면서 그는 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의 역사성과 의미성을 설파하였던 기억이 있다.

무세중 선생이 만든 프로그램은 원시인 군무(群舞)이었다. '원시인들의 현대나들이'라는 제목인데 그가 제시한 것이다. 전곡의 땅 속에 있는 원시인들이 깨어나 현대에 등장하여 현대인들과 함께 즐기고 교유한다는 의미의 프로그램인데 유적관 개관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군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출연해야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저학년, 특히 신입생을 중심으로 출연진이 구성되었는데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어떤 행위예술을 하게 될지 모르니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명 예술가와 함께 한다니 호기심도 생겼을 것이다. 여하간에 우리 어린제자 학생들은 나중에 기겁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와 함께 벌거벗고 춤을 추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특히 무대도 아니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하는 마당놀이같은 공연인데 벌거벗고 춤을 춘다는 것은 젊은 학생들로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일이었음은 틀림없다. 무세중 선생은 예술가답게 나체의 의미와 이 행위극의 예술성으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최소한의 의상을 걸치고 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 행위극에 참여한 제자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축복을 비는 마음이다.

무세중 선생은 이 행위극의 내용을 시로 적었다. 행위극의 각 막(幕)의 의미와 상징을 단락으로 구성하였다. 그 시가 바로, "짐승인간들의 현대나들이" 이다.

짐승인간들이 살아있다.
짐승인간들이 살아있다.
땅 속이 갈라지고
수풀이 흔들리고
털손이 이곳에 솟고
털발이 이곳에 솟네.

휘둥그런 눈알에
기다란 누런 이빨
불쑥 튀어나온 눈 두덩이에
강렬한 덮풀 눈썹.
힘찬 광대뼈에
곤두세운 턱.
그 우람한 몸매가 드러나네.
짐승인간들이 살아나오네.
짐승인간들이 살아나오네.

지금의 사람들아! 얼굴을 들어 살펴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에게로
짐승인간들이 살아나오네.

일. 태고의 잠에서 깨어나서

30만년을 자다 왜 지금 깨어났을까?
왜 하필 지금에서 살아나는 것일까?
땅이 온통 꺼져 내리네.
수풀더미를 헤치고 기어나오네.
할 일이 있다던가, 할 말이 있다던가.
더럽고,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이곳에는
할 일이 없을터인데.
간악하고 육살스런 우리네하곤, 할 말이 없을 터인데.
태고의 잠에서 살고 살리고 죽고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악몽의 역사를 보아왔을 테지.
망각의 세월 속에 티끌같은 생명들.
그 놈이나 이 놈이나
허망한 짓거리들의 못난 숨바꼭질들.
눈물겹도록 사랑으로 목을 메는 인간들아
그리고 짐승인간들아
태고의 잠에서 이 땅을 지키려고 깨어나왔니?

이. 원초적 짓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마음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죽일 줄 알랴, 죽을 줄 알랴.
무릉도원일랑 얘기치 말자.
세치 혓바닥으로 그들을 할지 말자.
눈매가 너무 선해서 저 것이 사람이랴.
짓거리가 너무 착해져 저것이 사람이랴
가고 앉고 서고 뛰고 먹고 마시며
손 짓, 발 짓 새처럼 소리내며
꽃처럼 입을 벌리네.
아.....
태초의 인간일랑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인가
그 이상 완벽한 자연 생명이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모습들로 비치는 우리네 마음은
이미 그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렸네.

삼. 인간들 짓거리의 방자스러움

길바닥에 떨어진 돌맹이하나에도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사람들.
포장하고 돌려씌우고
혓바닥 굴리고 허우적 거리고
하늘을 멸리하고 땅을 헤집는 짓거리.
아무런 대응도 없는데 총칼을 휘두른다.
가히 없어라.
갈라진 땅으로 꺼져들어간 우리.
짐승인간들이 대신 살고
짐승인간들이 대신 통일을 할까.
피가 흐르고 땀이 나고 눈빛이 초롱이는
아름다운 사람들아
손목을 마주잡고 춤이나 추세.
얼싸안고 방자함을 쓸어버리세.
마음의 뚜껑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
하늘에 별빛을 담고 땅의 진실을 피우세 그려.

사. 짐승인간들의 현대 나들이

모두가 한 낮 꿈이로세.
모두가 산사람의 연극이로세.
30만년전을 누가 아랴.
호모 에렉투스는 고고학용어일세.
강물이 쏟아져서 흙더미를 몰고 오고
흙더미가 눌리고 눌려 돌덩이가 되고
한탄강 강변, 지금까지 살아남은 구석기유물.
세계 속에 몇 안되는 유적지에서
짐승인간들의 흔적들을
현대인간이 만져보네.
짐승인간들은 현대 속에 나들이 하려 살아나오네.
죽어가는 풍토의 사람들에겐
신화같은 유적신화가 그립네.
썩어가는 환경속에
마지막 사람들에게
기적의 신화가 나타나리.
짐승인간들은 불현듯 태고의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의 몰골을 벗기려 신화같이 나타나리.

짐승인간들이 죽어서 나오네

짐승인간들이 살아서 나오네
현대가 살기 좋단 말인가
현대가 나들이 할 만한 시공이란 말인가.

지금은 사람들아 30만년전으로 나들이 가자.
태초의 생명을 만세부르러
역사의 무덤속으로 나들이 가자.

이 시에는 전곡구석기유적과 이곳에 살았던 원시인들의 모습과 그 인간적인 성격을 토대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서사가 담겨 있다. 선사와 현대의 연속과 교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문명을 넘은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이 글은 앞으로도 전곡유적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때 비젼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구이다.

개관식 날의 풍경

4월이 봄이라고는 하지만 전곡은 남쪽의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기온이 낮은 곳이다. 그날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햇살이 강하지 않아서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봄날이었다. 그래도 축제가 진행되면서 그 열기로 스산한 분위기는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개관식은 열두시부터 진행되었는데 서울에서 이곳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라서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래도 한낮의 기운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계절이었다. 가장 먼저 행하여진 것이 바로 유적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이었다. 유적관 문의 폭이 일 미터도 안되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유적관을 사용하면서 이 문앞에 지붕을 씌우고 현관으로 사용하였고 그 앞에는 등나무를 심어서 당시에도 여름이면 문앞의 마당을 그늘로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컸다. 현관의 양쪽 기둥 사이에 중요인사들이 서서 사진을 찍고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고 김원용 교수를 중심으로 고 황용훈 교수, 고 한병삼 당시 국립박물관장, 김병모 교수, 최의동 당시 연천군수 등의 인사들이 좁은 공간에 일열로 서고 나니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이 사진에 내가 빠질 수는 없어서 좌측 옆에 비집고 들어가서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개관식 테이프 커팅 장면이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삼불 선생님 옆에서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행사 전날 밤에 삼불 선생께서는 내가 호암미술관에서 모시고 있던 한담 이종복 선생이 차로 모셔와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방명록에 글도 남기시고 날이 좋지는 않았지만 외투를 입으시고 무세중 선생과 우리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의 행위예술공연을 내내 참관하셨다. 선생께서도 이 전곡유적이 잘 보존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하셨을 것이다. 공연은 전시관의 북편 마당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감상을 하였다. 모두들 세상에서 처음 보는 행위예술공연에 신기해 하였다. 내가 걱정을 많이 했던 우리 학생들이 거의 나체로 하는 공연도 실제 하게 되니 몰입되어 잘 소화해 내었다. 물론 무세중 선생의 기괴한 원시인 소리와 힘차고 거침없는 연기에 모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현대인으로 분장한 학생들은 라디오를 들고 또는 징을 들고 빙빙 돌면서 원시인과 한 자리에서 교류하는 모습의 연기를 소화해 내었다. 이 원시인 행위극은 나중에 전곡 선사축제 기간에 원시인으로 분장하였던 정찬교의 행위극 연기의 모태가 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서 전국에서 원시인 연기라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 행하여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여하간에 이 행위굿은 내가 두고 두고 '그 무세중의 굿으로 전곡선사박물관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신속하게 전곡유적을 공원화 작업하게 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두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원시인 행위극이 끝나고 바로 '하늘과 땅에 올리는 고사'를 지냈다. 나는 제주로서 무세중 선생과 함께 제상을 채리고 축문을 읽고 재배를 여러 번 하였다. 이 고사의 제목에서 하늘과 땅은 결국 한반도에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전곡유적의 유구한 시간을 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개천성지'라는 말로서 전곡포럼의 설치미술제의 대주제가 되었다.

제 문

이 땅의 하늘을 관장하옵시는 하느님이시여! 그리고 하늘아래 땅을 거느리시는 산신님이시여, 용신님이여! 전곡리 유적지를 통괄하옵시는 지주대감이시여! 그리고 30만년전 구석기시대 이 땅에 자리잡고 살으셨던 선인들의 영령들이시여! 오늘 1993년 4월 11일 단기 4326년 3월 2일 정오에 당신들 제신 앞에서 당신들의 후손이 모여 구석기유적관을 개관하고 그 기념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공연을 올림과 동신에 고사를 지내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이곳 전곡리에서 한탄강변 전곡땅에 구석기시대 살았던 선인들의 발자취를 발굴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일 출토물과 발굴자료를 모아 전시하게될 유적관으로서 미비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단 바,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게 될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립원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되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이 땅위에 살으셨을겁니다.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흔적이 남는 법, 흙이 물에 쓸려와 반복 반복하여 땅이 강이 되고 강이 다시 땅이 되는 수없는 지층의 변화에도 그 흔적이 남아서 30만년 후에 우리의 손에 그 자취가 남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하늘의 이치요 땅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을 관장, 통괄하옵시는 제 신령님들이시여, 그 엄청난 시대적 시간적인 차이를 사이에 두고 티끌같은 인생의 의미에 허상을 느끼며 조상님들 뒤에도 역사가 흘러져 내려와 오늘같이 우리들이 이 곳 전곡리에 모여 당신의 숨결과 발자취를 더듬는 일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연으로 남는다면, 당시의 조상님의 모습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짧은 짐승인간들의 현대 나들이는 바로 당시와 오늘을 연결하려는 무지한 상상력의 표현으로 아시고 오늘 변변히 차리지 못한 젯밥이라도 흔쾌히 드시고 가시옵기를 바라며 앞으로 유적관이 번듯하게 꾸며져 선인들 발자취를 후손에게 널리 알려줄 기회를 갖도록 제신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기 1993년 4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서
무세중 글/배기동 읽음

누런 종이에 무세중 선생이 먹으로 쓴 글을 내가 소리를 크게 내어 읽고서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제 모든 염원의 실현을 위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열정이 끓어오르며 이 황량한 벌판이 낙원의 숲의 변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다짐을 한 셈이다.
작은 구석기유적관 하나를 만드는 작업도 홀로 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어쩌면 홀로하였다는 말이 외람된 표현일 것이다. 뜻은 내었으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재정적 물질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축제날이 쌀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길을 왕림하신 분들이 보내준 성원의 마음이 에너지원이었을 것이다. 그날 방문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유적관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신 분들 말고도 김병모 교수, 임효재 교수 등등 서울-경기지역의 고고학자들과 문화유산전문가들이 많이 모였다. 이러한 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곡유적의 가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성원이자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돈키호테같이 고군분투하는 동료이자 후배 고고학자에 대한 연민 어린 성원이었을 것이다. 내 고고학자로서의 생애에 가장 값진 날이었다.

3

선사문화축제의 발전

제2회 어린이날로 옮겨 영원히 지속될 선사문화축제 선언 전곡구석기유적관을 개관하는 행사는 사실 축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유적관을 널리 알리고 전곡리 유적보존을 위한 선언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 무세중 선생의 행위극의 반응이나 유적지에 모여서 즐기는 것이 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일종의 유적관을 만들고 또 개막행사를 하는 그 의도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관행사를 끝내고 내가 내년에 또 한다고 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연차적인 행사로서 하는 축제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제2회 부터인 셈이다.

제2회는 전곡리구석기유적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전곡구석기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구석기시대에 관련된 주제로서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 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회 때 4월 초가 너무 쌀쌀한 날씨라는 점과 이 행사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집단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로 일정을 옮겨서 실행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어차피 가족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야외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2회에도 무세중 선생이 스스로 춤을 추진 않았어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연출극을 공연토록 하였다. 제1회 때에 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춤을 보러 올 줄은 몰랐던지 2회에는 스스럼없이 응하여 참여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때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체험고고학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석기를 가지고 돼지를 도살하여 불에 구워먹는 행위를 참가자 스스로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체험고고학이자 대중고고학 프로그램인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그 목적이 사람들이 석기의 기능과 그 효율성을 체험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석기로 고기를 베어 낸다는 사실에 놀라와 했고 실제로 대단히 즐거이 체험하였고 참여에 경쟁이 붙을 정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의 축제에서는 대중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 대형화하여 축제가 지속되는 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선사축제 속 일종의 선사음식으로서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이 된 셈이다.

축제에 미술을 입히다.

제1회와 2회를 치루면서 방송사들이 당시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선사유적에서의 여러 문화행사에 대해서 상세히 잘 보도하여 주었다. 무세중 선생의 행위극이나 또는 2회에 실시한 동물도살의 장면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고고학자인 교수가 이러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느라 고군분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방송 내용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해 온 사람이 두 분이 있었다. 한분은 당시에 한배달이라는 역사연구단체의 임원이었던 안성길 선생이고 다른 한분은 임근우 화백이었다. 처음에 전혀 모르는 분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서 대답을 미루었지만 결국 두 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가 축제를 주관하고 고고학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나가는 오랜 기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특히 임근우 작가는 당시에 '고고학적인 기상도'라는 대 주제하에 자신의 고향인 춘천 중도의 고인돌을 모티브로 하여 전시회도 열고 있었던 분이어서 고고학적인 콘텐츠에 의욕이 있고 또한 익숙한 분이었다. 서너 차례의 통신 교환을 거친 다음에 같이 작업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부인이 TV 방송에서 전곡의 행사들이 소개될 때 임근우 작가에게 '당신이 반드시 저 분을 도와야 하니 연락하시라'라고 명을 했다는 말을 임 작가가 나중에 하였는데, 부인 홍진실 씨는 사실 연극인 출신이었다. 업보의 인연이 보이지 않게 작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1회 축제에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시인 상상화를 그리는 미술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원시시대에 대한 백일장과 더불어 초기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다. 3회 때부터는 임근우 작가가 기획하고 어린이들의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을 하였다. 그런데 그 해, 1995년에 임근우 작가는 당시로서는 미술계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미술전시회, 소위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다. 작품명은 기억되지 않지만 바로 '전곡'이라는 주제의 작품이었다. 그림 속에는 발굴구덩이가 나오고 전곡에서 출토된 석기오브제가 있는 작품이었다. 이 역시 나에게도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 그와 전시장의 그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고 또한 전곡이라는 이름이 미술에서 사라지지 않음에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유적관을 만들기 위해서 신제남 화백이나 우성주 선생의 미술도움에서 시작한 미술과의 협업은 이제 축제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잡게 된 것이고 축제를 한층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임근우 작가의 참여는 사실 콘텐츠의 내용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었다. 구석기유적에서 대중,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그램은 바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이었다. 단순한 석기에서 무엇을 흥미롭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은 축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화두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대답하여야 하는 대중을 위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작가들은 그 예민한 감각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고고학자들보다 쉽게 찾아낸다는 점에서 축제를 위한 엄청난 인적자원이 되어준 셈이다. 제4회 축제에서 부터는 임근우 작가와 함께 주제도 정하게 되고 그 주제를 구현할 일종의 미술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의 주제가 바로 '원시마을축제에 초대된 현대인, 구석기인으로부터 영상전송'이었고 이를 위해서 "시간의 타워" 건설하는 일이었는데 건축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를 이용하여 타워를 만들고 그 아래에 작은 움집을 만들고 그 속에 컴퓨터를 넣어서 IT기술로서 원시인과 접속하는 일이었다. 일종의 설치미술이자 퍼포먼스였는데 이것은 결국 전곡축제의 새로운 변신이었고 그 내용에서 선사시대 유적에서 새로운 상상을 하게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전곡선사문화축제를 운영하는 개념은 결국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선사시대의 사람들과 그 사는 모습들을 시간을 압축하거나 뛰어넘어서 2개의 다른 시간대가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구현방법을 고안해 내는 일이다. 임근우 작가는 축제를 감각적인 언어로서 축제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셈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원시인 행위극으로서 무세중 선생의 극이 상징적으로 이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행위극이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생들에 의해서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근우 작가의 소개로 축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정찬교 씨가 새로운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무세중 선생의 행위극의 전통을 이어받기는 하지만 그의 독특한 기질로 축제의 주 프로그램이나 또한 대중들 속에서 원시인으로 분장하여 역할을 해냄으로서 축제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무언이고 또한 괴성으로서 표현하는 그의 연기에 매료된 어린이들이 많았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펜레터를 보내오는 어린이도 있었다. 정말 원시인을 만난 것처럼 묘사하여 정찬교 씨의 연기가 일품임을 입증한 셈이었다. 이 정찬교 씨의 행위극이 가

미되고 보다 역동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접근하게 됨으로서 축제 속에서 선사시대와의 만남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찬교 씨는 그 이후에도 이 극을 지속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또 전곡선사박물관이 개관된 다음에도 원시인 연기로서 전곡유적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전곡축제에 미술이 더해져서 1999년에는 제1회 전곡구석기 설치미술제가 열리게 되었다. 재정지원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작가들을 설득하여 축제 기간 중에 유적을 설치미술로서 아름답고 또한 의미가 더해지도록 만들어가려고 하였다. 설치미술제의 주제는 '접속-아슐리안'이었는데 초대작가와 작품주제로서 박노찬 작가의 '축제', 이세현 작가의 '일회용 종이비행기', 이승오 작가의 '석기인의 꿈', 이호영 작가의 '화엄 -9901', 임근우 작가의 '고고학적 기상도', 임승오 작가의 '시간의 띠', 장유호 작가의 '생명의 기원', 장태식 작가의 '현대인의 고민', 차기율 작가의 'Cosmo Tree-아슐리안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대진대학교 학생들의 공동작품인 '아슐리안과 바람'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야외에 전시되었다. 이때는 마침 발굴되고 있었던 피트가 있어서 이러한 고고학적인 현장도 작품으로 활용되어 고고학을 미술과 함께 음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설치미술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가들과 함께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며칠 밤 동안 작업을 하여 완성시켰는데 나로서는 세기말 또는 새로운 밀레니엄 맞이의 변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설치미술제에서 좀 무거운 추억은 유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고발이 당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이러한 축제를 사회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것이지만 그 시절, 즉 이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기 말 1999년 전곡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근우 작가와 함께 '전곡포럼'이라는 고고학과 미술작가들의 만남이라는 의미의 그룹을 만들기로 하였다. 임근우 작가와 예술적 성향이 잘 통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전곡축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미술을 통해서 재음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새로운 변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미술작가들과의 만남과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전곡을 위해서 그리고 전곡이라는 유적을 매개로 만나게 되었으므로 '전곡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하는 일에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황규호 전 서울신문사 문화국장을 회장으로 모시고 출범을 한 것이다. 작가들과의 모임에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은 동대문경찰서 옆에서 음식점을 하던 양인정 씨라는 여주인이었다. 이 분이 적극적으로 전곡포럼에 참여하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모임의 식대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여 주었다.

'전곡포럼'의 의의는 바로 고고학과 미술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고학은 문화유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미술은 무궁한 소재의 자원이 고고학에 있는 셈이다. 이 두가지는 오늘날이나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업이다. 이것이 바로 출발의 발판이자 동력이었던 셈이다. 학문적 연구와 지향점의 새로운 설정과 예술의 방향성과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으로서 미술과 고고학과의 협업이 필요한 철학적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연의 가치와 인간진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고 그리고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자 바로 인간성의 표현으로서 미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전곡포럼'이 탄생하고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전곡포럼 프로젝트 II 도록의 서문에 적은 글이 그 의미를 대변한다.

문화재를 아름답게
고고학과 미술의 만남,
전곡포럼의 이상입니다.
문화재, 인간의 모든 것, 생활과 꿈
그리고 그들의 이상이 들어있는 그릇입니다.
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문화재는 우리 현실의 뒤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우리의 살이요 피를 만들었습니다.
전곡포럼은
문화재 속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 세계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태고의 돌에
그리고 그 돌이 있던 자리에
내가, 너가 알 수 있는
너와 내가 느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모습으로
형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개천성지 전시의 서문, 배기동)

당시에 미술인들과의 협업은 나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이자 도움을 주었다. 하나는 미술작품을 기증을 받아서 축제의 경비에 도움을 주는 일과 다른 하나는 유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 초기인 96년에도 임근우 작가와 나는 이집트·그리스·터키 여행을 주제로 한 스케치와 사진을 가지고 예술의 전당 앞의 다보성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서 크지는 않지만 기금을 모아서 축제에 보태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번 세기 첫해인 2천년에는 참여작가들이 작품을 기부하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점에서 신춘기획전으로서 전곡포럼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열었다. 그 수익을 모두 축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예미술가인 박노찬 작가는 축제를 위해서 별도의 작품을 만들어와서 판매하여 기금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전곡포럼의 새로운 대표로서 나는 전곡의 설치미술제는 그 작가들이나 또는 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별도의 축제를 만들기로 하고 전곡유적의 민족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가을에 별도의 설치미술축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의미가 남다른 전곡유적이 이 땅의 주민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뜻으로 10월 3일을 전후한 시기에 '개천성지',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아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임근우 교수를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미술제를 열었다. 전시 개막은 10월 3일 개천절에 하였고 전시는 그 달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전시 중에는 퍼포먼스 아트까지 추가되어 다양한 미술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는 대단히 성대한 설치미술제가 전곡유적 현장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작가와의 대화, 체험교육 이벤트 그리고 유적발굴에 대한 설명회 등 대중들이 휴일에 고고학 현장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미술전시회를 만든 것이다.

이 전시는 바로 이전 해에 열린 '접속-아슐리안 전'에 이어 두 번째의 전곡포럼 전시회였던 셈이다. 주제가 말하듯이 아슐리안이라는 언어로 상징화된 원시인들과 현대인이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상호간의 접속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접속이라는 것은 바로 고대인과 현대인의 만남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고고학과 예술의 만남, 자연환경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술이 가지는 조형적 문법을 통해서 인간의 시공간적인 의미와 그 연속성 그 미래적 존재의 가치를 재음미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전곡포럼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젼인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 즉 인간의 흔적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유적에 예술을 입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든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한 인간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설치미술제를 경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대규모의 인원들이 참여함으로서 미술작품 제작과 설치의 문제 말고도 현장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상당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였던 까닭이다. 야외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문화인류학과와 미술학도 학생들의 자

원봉사적인 노력이 있었고 또한 많은 인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여 주었던 지역주민 방선희 한탄강매운탕 식당 주인의 도움이 컸다.

전곡포럼은 아직도 유대감이 남아 있고 그동안 임근우, 차기율 그리고 임승오 작는 전곡박물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박물관 마당에 훌륭한 작품을 남겨서 방문객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참여작가들은 전곡유적에서 하였던 그 작품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모두 좋은 기운을 가진 예술가들이다. 참여한 청년 작가들 중에서는 유수한 미술상들을 받은 경우도 많고 그 작업 이후에 임근우 교수나 차기율 교수처럼 대학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다. 최근에는 차기율 작가, 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2022년도 박수근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내년 5월에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진다. 사실 이들은 전곡유적의 귀중한 인연을 가진 분들이고 전곡유적의 활용을 위해 크게 기여한 바 있고 감성적인 유대감이 크신 분들이다. 원래 이 설치미술제를 지속하여 나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태부족이어서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연천군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지속한다면 세계적인 설치미술제로서 그 가치가 빛날 것이지만 그러한 세월이 올는지....

4

대중고고학의 성지, 전곡 그리고 전곡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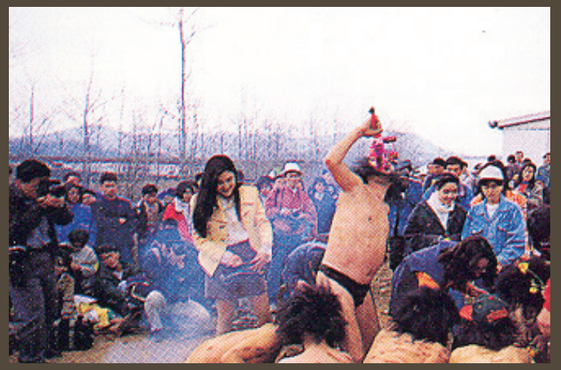
유적에 미술품을 설치하였다고 고발당했던 그 때가 멀지 않은 과거이지만 오늘날 고고학과 유적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하여 유적을 교육이나 레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당국이나 지자체의 보편적인 숙제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만들고 수행하여 온 전곡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정책전환에서 선진사례로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고고학유적축제는 전곡에서 시작되어 암사동 신석기 유적, 강화 고인돌 유적, 하순 고인돌 유적 등의 유적들로 이어져 나갔다. 이제는 고고학 유적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축제는 당연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축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즉 대중고고학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유적 축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축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높이게 되는 핵심콘텐츠이다. 전곡축제의 경우에도 해가 가면서 대중을 위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중고고학적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그 궁극적인 기능이 왜곡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적 축제에서 대중고고학의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전곡선사문화축제는 전곡선사유적을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이른 시간에 유적의 전 구역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일찍이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당국의 지원을 통해서 공원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고 재정투자가 추가되어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곡선사박물관의 건립이다. 전곡유적의 콘텐츠를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이 박물관의 건축과 전시는 세계 톱 레벨이다. 그래서 이제 전곡선사유적은 박물관과 유적공원이 어우러지는 아시아 최고의 유적공원으로서 그 가치를 발하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의 과제의 핵심은 바로 연구작업을 통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문화유산교육의 확산이다. 그래서 세계고고유산교육협회도 만들어서 그동안 세계문화유산교육 엑스포를 개최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그 형성과정과 그 세계문화유산교육에서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이것 역시 전곡축제의 발전이 가지고 온 세계적인 권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제가 지속되는 동안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귀중한 동기부여이자 또한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또한 앞으로 새로운 글에서 그 방향성을 논할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곡선사박물관과 연천군이 합심하여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안을 만들고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가 협업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체제의 개발이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곡리 유적 1차 조사모습_1979년

전곡리유적 전시관 개관 모습_1993년



무세중 선생 퍼포먼스 모습_1993년

제1회 축제 개막식 제문 낭독 모습_1993년

임근우 작가의 '시간의 탑'_1996년

전곡리 유적
보존을 위한 기반 확보

1993

2000

연천 전곡리 유적은 1978년 유적 보고 이후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합발굴단(1~3차,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과 서울대학교(4~7차)의 초기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가 재개된 것은 1991년으로 초기 조사자 중 한 명이었던 배기동 교수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부임한 이후다. 1991년 5지구, 1992년 1~2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축제의 이 시기의 축제는 콘텐츠 면에서 참신하고 선도적인 선사 체험 프로그램의 기틀이 잡힌 시기이다. 이때 선보였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축제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축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1회 구석기 문화제

1993년 당시 전곡리 유적 발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활용해 '전곡리 구석기 유적관'을 마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1회 구석기문화제가 열렸다. 제1회 구석기문화제는 유적관 개관 기념행사로 행위예술가인 무세중 선생의 행위 퍼포먼스 '짐승인간의 현대 나들이', 뗀석기 제작과 석기 사용 체험과 바비큐, 원시인 상상화 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구석기 문화제의 시작은 1992년 창설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를 비롯,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축제의 기획, 운영, 기금 마련 등을 했다. 지역사회와 학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바탕으로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일시 : 1993.04.11
주제 : 짐승인간들의 현대나들이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관기념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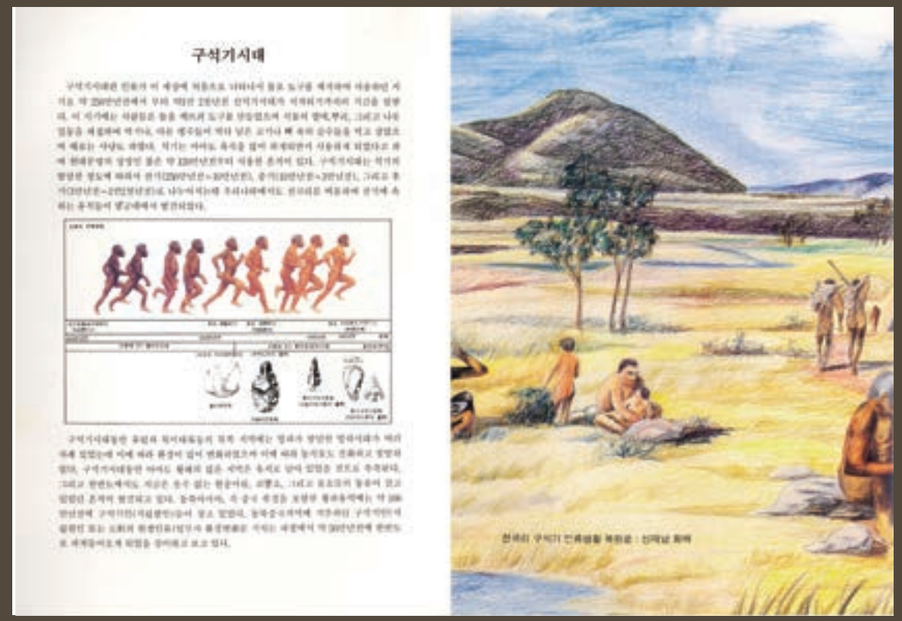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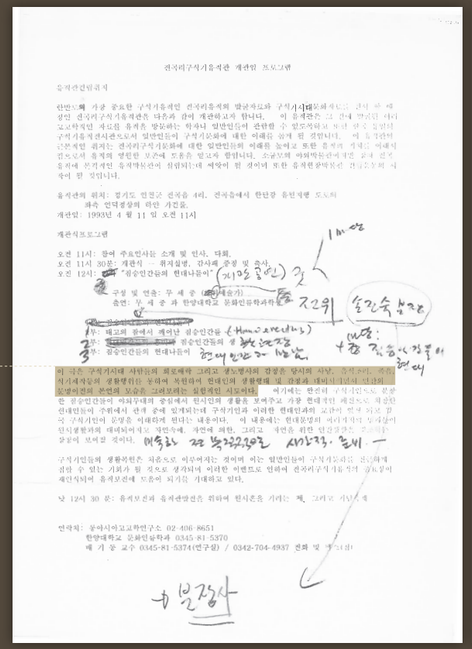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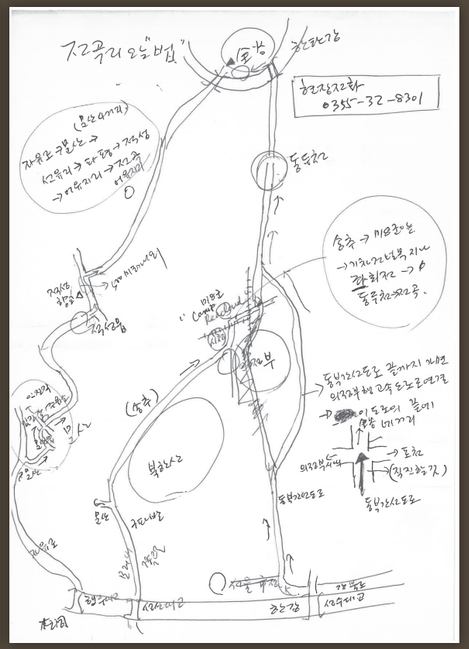
축제 음식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

003

전곡 구석기 유적관 안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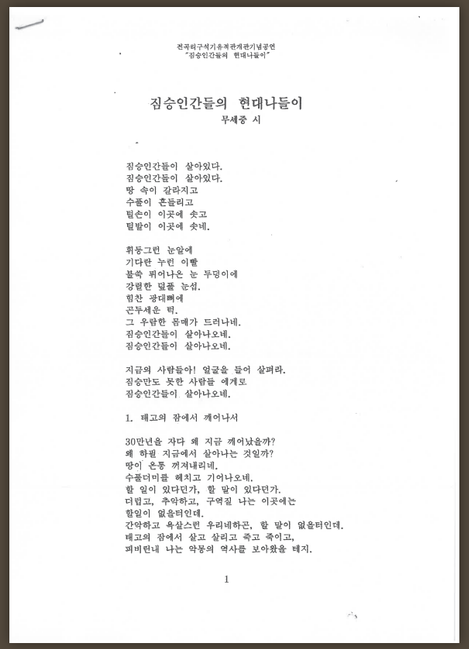






축제기록 _ 1회

이 극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 그리고 생노병사의
감정을 당시의 사냥, 음식조리, 죽음,
석기제작등의 생활행위를 통하여
복원하여 현대인의 생활행태
및 감정과 대비시키면서 인간의
문명이전의 본연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인사말씀

추웠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해빈 여러분께 경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유적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1979년 제1차 발굴이래 김원룡선생님을 모시고 이 전곡리유적에서 9차례의 발굴과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학문에 있어서나 또는 개인인생에 있어서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적입니다.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곡리 유적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던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서 세계고고학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우리나라선사고고학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동아시아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하는 세계적인** 유적이 된 것입니다.

전곡리유적은 1979년의 발굴에서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일대의 9213만평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의 많은 부분이 도로건설과 기계화경작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훼손들이 반복될 때 이 지역의 구석기보존은 일지않은 장래에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른 역사시대 유적들과는 달리, 토층이 남아있지 않은 지점에 유적표시석을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는 인류공통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는 유산은 우리가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남겨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는 일반인들이 유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유적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고고학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간 많은 학자들, 학생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전곡리유적을 방문하였지마는 황량한 빈 판속에서 발굴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최초의 발굴자이신 김원룡교수는 이 유적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드는 마음에서 이 유적관을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이 유적관은 전곡리유적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소망이며 의지의 작은 표현일 뿐 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책 강구와 구석기야외박물관건립을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유적관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류의 선사문화나 전곡리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전곡의 주민들이 이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하고 또한 앞으로 이 유적을 찾아오는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에 유구한 인류사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적관이 이루어지는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호암미술관의 이종선부관장은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진열장을 제공하여 주셨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진열장을 할애하여 주었습니다. 신세남화백과 우성주선생은 기꺼이 복원도를 제작하여 주었으며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의 김장석선생이 석기복제품을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소규모의 박물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한 본인의 힘으로 어려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위의 많은 선생님과 동료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칠을 밤을 새워 도와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김사식지과원장의 숨은 공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뿐 아니라 병원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 행사를 구성하는데 이루 말할수 없는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상록회의 회원들도 재정적인 보조를 하였으며 근화제약의 직원들도 연락과 운송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진로의 정용주지사장도 이 행사를 위하여 술표와 기념품을 협찬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무세중선생님의 공연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기생활을 주제로 한 이러한 행위극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선사고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무산생님은 이 공연을 대단히 훈훈히 수락하셨을 뿐 아니라 이 극을 위하여 극본과 시를 본인이 직접 쓰셨으며 아직 가시지 않은 초롱의 한기속에서 직접 원시인 모습의 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산생님의 예술정신에 지극한 찬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 유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영원히 보존되기를 제상 기원하며 부디 오늘 이 전곡리에서 즐거운 한나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93년 4월 11일
전곡리유적관 에서

배 기 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곡리구석기유적관개관기념공연
"짐승인간들의 현대나들이"

망각의 세월 속에 티끌같은 생명들.
그 놀이나 이 놀이나
희맑한 짓거리들의 못난 숨바꼭질들.
눈물겹도록 사랑으로 목을 메는 인간들아
그리고 짐승인간들아
배고픔의 잠에서 이 땅을 지키려고 깨어나왔니?

2. 원초적 짓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마음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죽일 줄 알라, 죽을 줄 알라.
무릉도원일랑 애기치 말자.
세치 혓바닥으로 그들을 할지 말자.
눈에가 너무 선해서 저 것이 사람인가.
짓거리가 너무 착해서 저것이 사람이랴.
가고 싶고 서고 뛰고 먹고 마시며
손 짓, 발 짓 제치힘 소리내며
꽃처럼 입을 벌리네.
아 ---
배초의 인간일랑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인가
그 이상 환벽한 자연 생명이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모습들로 비치는 우리네 마음은
이미 그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렸네.

3. 인간들 짓거리의 방자스러움

길바닥에 떨어진 돌뱅이 하나에도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사람들.
포장하고 물리쳐주고
혓바닥 굴리고 퍼주적 거리고
하늘을 멀리하고 땅을 헤집는 짓거리.
아무런 대응도 없는데 총칼을 휘두른다.
가히 없어라.
갈라진 땅으로 꺼져들어간 우리.
짐승인간들이 대신 살고
짐승인간들이 대신 뿌일을 할 까.
피가 흐르고 땀이 나고 눈빛이 초롱이는
아름다운 사람들아
손목을 마주잡고 춤이나 추세.

전곡리구석기유적관개관기념공연
"짐승인간들의 현대나들이"

얼싸안고 방자함을 쓸어버리세.
마음의 뚜껑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
화들에 별빛을 담고 땅의 진실을 피우세 그려.

4. 짐승인간들의 현대 나들이

모두가 한 낮 꿈이로세.
모두가 산사람의 연극이로세.
30만년전을 누가 아랴.
초모 에레푸스는 고고학을이일세.
강물이 쏟아져서 흙더미를 몰고 오고
흙더미가 눌리고 눌려 돌덩이가되고
한탄강 강변, 지금까지 살아남은 구석기유물.
세계 속에 몇 안되는 유적지에서
짐승인간들의 흔적들을
현대인간이 만져보네.
짐승인간들은 현대 속에 나들이 하려 살아나오네.
죽어가는 풍토의 사람들에겐
신화같은 유적신화가 그립네.
썩어가는 환경속에
마지막사람들에게
기적의 신화가 나타나리.
짐승인간들은 불현듯 배고픔의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의 물질을 몇기리 신화같이 나타나리.

짐승인간들이 죽어서 나오네
짐승인간들이 살아서 나오네

현대가 살기 좋단 말인가
현대가 나들이 할 만한 시공이란 말인가.

지금의 사람들아 30만년전으로 나들이 가자.
배초의 생명을 만세부르러
역사의 무덤속으로 나들이 가자.

행사준비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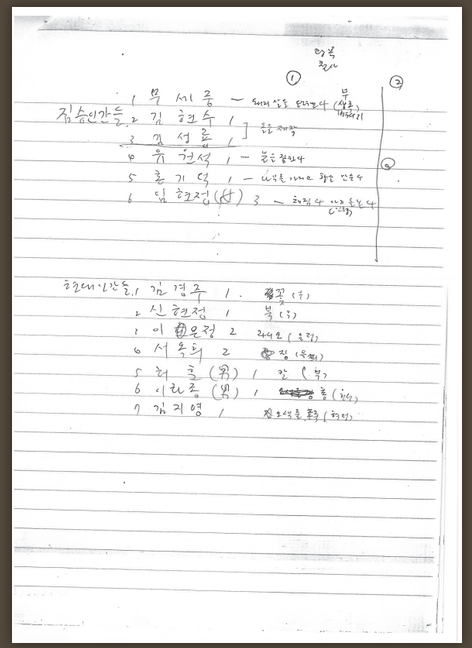
행준비위원 이장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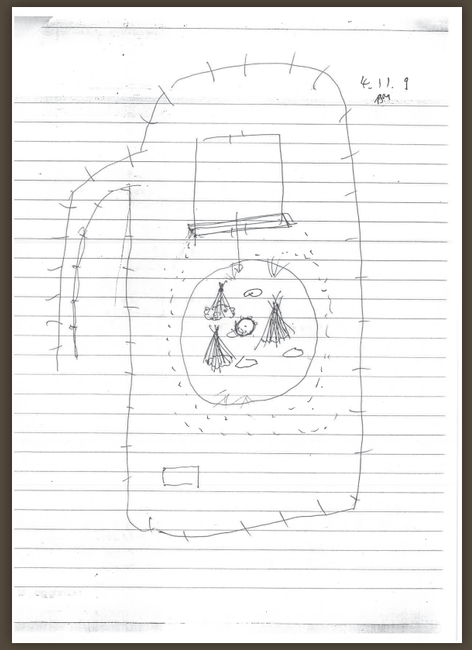
1. 자전준비내용

	확인
1. 석기제작	
■ 담당자:신영호,김현준,조근배,황소희	
- 장가자연비품:보관경(연장)/장갑 개별연락	
2. 정심: 초청대상/참가자 개별지참	초청장지참
■ 주례:김원룡,무무경,김현수	
4. 스낵준비(당일 판매용)	
■ 담당: 임연옥,윤선영외 2인	
- 국수/양념: 김밥	
- 음료수(물론, 사이다 ,오렌지주스)/막걸리	
- 조리도구: 솥/화덕	
- 식기: 일회용 그릇/젓가락/컵	
- 조리장소/판매대, 계좌	
5. 주류 제지	
■ 전곡리 사람들에게 주문	
6. [illegible]	
■ 담당: 유병린외	
7. 도상 고기 조	
■ 담당:조영호,김만권,이복동,전주호	
- 구이용 불판	
- 불판시기/숯명재료	
- 크기/개수/젓/집게/물준소금	

행 사 장

8. 안내판 제작	
■ 표현물:김태현,안준정,임순영	
- 프랭카드 ---------- 행사 입주일전 제작설치	
- 사진전시	
- 자장표외	
- 석기 복제품 안내표시	
- 행사입구표(전시) 3	
■ 제작자/당일담당자 선정	
9. 안내소 설치: 2곳	
■ 접미처외 1인	
- 행사장입구 ---- 오전중 안내원 대기	
- 행사장소(주차장) — 행사팜표시까지 안내원 대기	
- 안내소 계좌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 10가족이상 행사참가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18 (일산빌딩 6층) 김한미씨 (Tel: 272-0555) - 초대장 20미정도 추송	
■ 석기제작참여가족	
- 김영선씨가족: 400-7823(집), 0446)877-2825(직)	
- 조부환씨가족: 김한미씨에게 연락처 문의	
10. 전시물준비	
■ 노트북외 1인 김병미	
11. 기념품제작 ---------- 배기동선생님/이한동	
12. 안내장/초대장 작성 ------- 이희수선생님	
13. 기타	
- 의전: 김충배(사진), 최성배(기록), [illegible]	
- 손님: 중기청외	
- 사후정리: 유병린외 3인	





005

하늘과 땅에 올리는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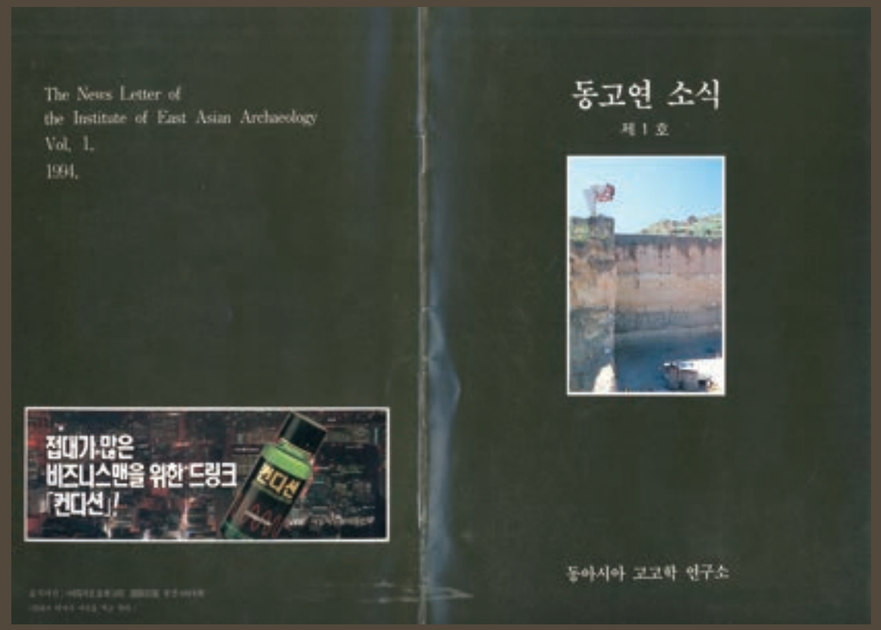
006

고사를 지내고 제문을 불태우는 배기동 소장

007

원시인 상상화 그리기 대회 출품작

008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소식지 제1호(1994)에 실린 제1회 구석기문화제 소식

제2회 구석기 문화제

제2회 축제는 전곡리 구석기 유적관의 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되었다. 특히 2회부터는 어린이날에 축제를 열어 어린이 대상 선사체험 특화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2회 축제에서는 1회에 이어 무세중 연출극이 공연되었고 석기를 만들어 동물을 해체하는 데 쓰는 등 가장 핵심적인 선사고고학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일시 : 1994.05.05
주제 :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과 그 가족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관 1주년 기념 문화제

009

무세중 선생의 퍼포먼스 모습

010

삼불 김원용 선생 추모비 앞

011

全谷里 구석기유적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과 그 가족"

때 : 1994. 5. 5.(어린이날)
장소 :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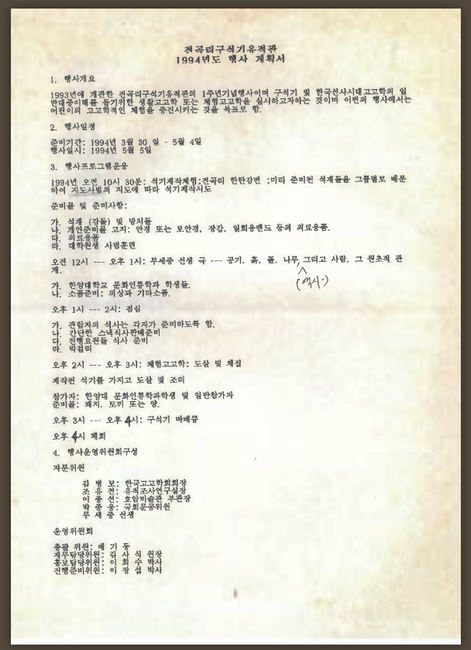
초대의 말씀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인간과 그 가족

- 때 : 1994. 5. 5. 10 : 30
- 장소 :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유적관위치

전곡리유적관 개관1주년 기념 축제 안내지



전곡리구석기유적관
1994년도 행사 계획서

1. 행사개요

1993년에 개관한 전곡리구석기유적관의 1주년기념행사이며 구석기 및 한국선사시대고고학의 일반대중이해를 돕기위한 생활고고학 또는 체험고고학을 실시하고자하는 것이며 이번의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고고학적인 체험을 중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행사일정

준비기간: 1994년 3월 30일 - 5월 4일
행사실시: 1994년 5월 5일

3. 행사프로그램운용

1994년 오전 10시 30분: 석기제작체험;전곡리 한탄강변 ;미리 준비된 석재들을 그룹별로 배분하여 지도사들의 지도에 따라 석기제작시도

준비물 및 준비사항:

가. 석재 (작품) 및 망치들
나. 개인준비물 고기: 안경 또는 보안경, 장갑, 일회용밴드 등의 의료용품.
다. 의료용품
라. 대학원생 사범훈련

오전 12시 --- 오후 1시: 부채춤 선생 곽 --- 궁기, 흑, 홍, 나무,그리고 사람, 그 원초적 관계.

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들.
나. 소품준비: 의상과 기타소품.

오후 1시 --- 2시: 점심

가. 관람자의 식사는 각자가 준비하도록 함.
나. 간단한 스낵식사판매준비
다. 전체요원들 식사 준비
라. 뒤집개

오후 2시 --- 오후 3시: 체험고고학: 도살 및 제집

제작된 석기를 가지고 도살 및 조리

참가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학생 및 일반참가자
준비물: 돼지, 토끼 또는 양.

오후 3시 --- 오후 4시: 구석기 바베큐

오후 4시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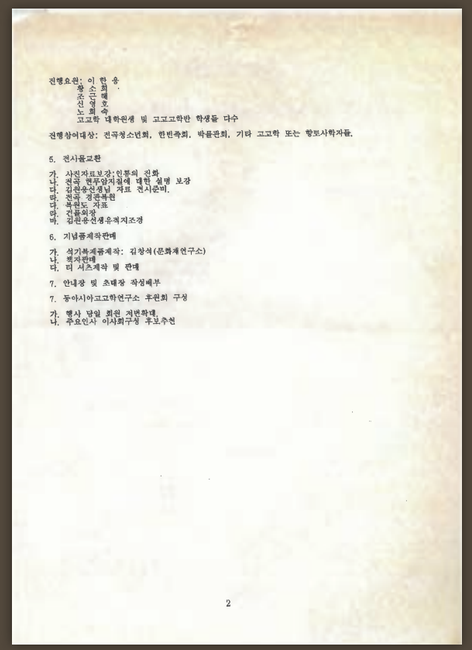
4. 행사운영위원회구성

자문위원

김 병 모: 한국고고학회회장
조 유 전: 동국대조사연구실장
이 융 조: 호암미술관 부관장
박 용 숙: 국립문화위원
부 새 옹 선생

운영위원회

총괄 위원: 배 기 동
재무담당위원: 김 시 식 원장
홍보담당위원: 이 희 수 박사
진행준비위원: 이 창 섭 박사



진행요원: 이 한 우
황 소 희
조 수 미
신 영 호
노 희 숙
고고학 대학원생 및 고고고학한 학생들 다수

진행상여대상: 전곡청소년회, 한민족회, 박물관회, 기타 고고학 또는 향토사학자들.

5. 전시품교환

가. 사진자료보강;인류의 진화,
나. 전국 석부장지들에 대한 설명 보강
다. 김한중선생님 개조 전시준비.
라. 전국 경주복원
마. 복원도 기초
바. 건물외장
사. 김한중선생유적지조경

6. 기념품제작판매

가. 석기복제품제작: 김창석(문화재연구소)
나. 뱃지판매
다. 티 셔츠제작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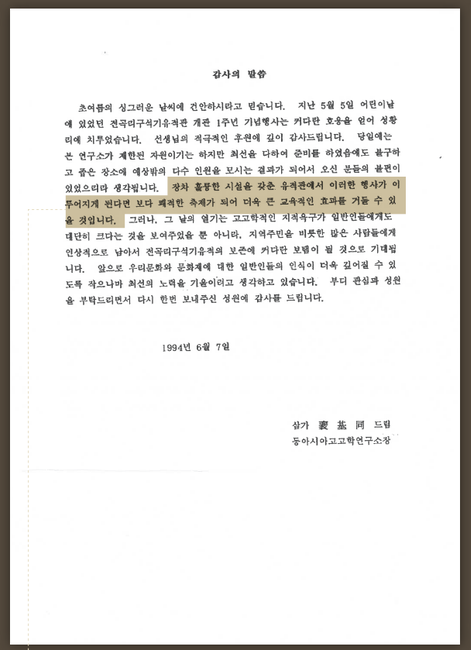
7. 안내장 및 초대장 작성배부

7.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후원회 구성

가. 행사 담임 회원 지면확대.
나. 주요인사 이사회구성 후보추천

2

축제기록 _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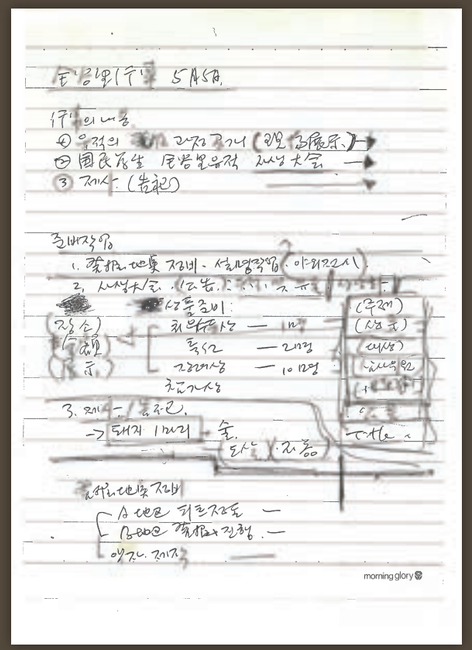


감사의 말씀

초여름의 싱그러운 날씨에 건안하시라고 믿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있었던 전곡리구석기유적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커다란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일에는 본 연구소가 제한된 자원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장소에 예상밖의 다수 인원을 모시는 결과가 되어서 오신 분들의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차 훌륭한 시설을 갖춘 유적관에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쾌적한 축제가 되어 더욱 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의 열기는 고고학적인 지식욕구가 일반인들에게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전곡리구석기유적의 보존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작으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6월 7일

삼가 裵 基 同 드림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장차 훌륭한 시설을 갖춘 유적관에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쾌적한 축제가 되어
더욱 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3회 구석기 문화제

3회 구석기 문화제는 '돌도끼로 사는 법'이란 주제로 열렸다. 역시 어린이날 개최되었지만 3회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선사 축제의 지속을 위해 정식으로 행사의 이름을 '구석기 문화제'라 정했다. 또한 1회부터 지속되었던 어린이 사생대회에 임근우 화가가 심사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축제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일시 : 1995.05.05
주제 : 돌도끼로 사는 법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관 2주년 기념 문화제

013

돼지 해체

014

바비큐 조리

015

석기만들기 시범

016

3회 축제를 운영한 사람들

017

초대의 말씀

전곡리구석기유적관이 개관한 것이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이 유적관이 보잘 것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관람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차 전곡리에 구석기박물관이 서게 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훨씬 더 많이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유적관 개관을 기념하는 뜻에서 어린이 날에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행사의 주제를 "돌도끼로 사는 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번의 행사의 근본 취지는 단순히 고고학자들의 실험적인 연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린이들이 석기를 가지고 동물을 도살하고 요리하여 봄으로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석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 라는 의문에 어린이 자신들이 직접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선사시대에 대한 관찰력을 높이고 상상력을 고양시키기 의하여 구석기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인과 어린이들의 고고학적인 체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행사를 매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행사를 "전곡구석기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탄강이 굽어다 보이는 전곡의 언덕에서 꽃향기 날리는 봄날에 어린이들이 맘 속에 숨어 있는 파가의 인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오셔서 참여하여 보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발굴현장에 드러난 태고의 층위도 새로운 고고학적인 시간체험이 될 것입니다.

1995년 4월 25일

배 기 동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돌도끼로 사는 법"

때 : 1995. 5. 5. (어린이날)
장소 : 전곡리 구석기유적관/전곡 발굴현장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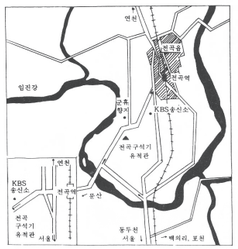
10 : 30 인사말
사생대회 요령제시
10 : 40 "돌도끼로 사는 법"현지참관
11 : 00 고사
11 : 30 구석기시대 동물도살 및 조리 (중식)
– 시범 : 배기동교수, 한양대 학생
– 참여 : 참가가족
13 : 30 사생작품 접수마감
14 : 00 발굴현장 관람 "발속의 시간을 찾아서"
15 : 00 시상식 · 뒷풀이/연천유적 안내

* 안내사항
• 사생대회
– 사생대회 주제 : '구석기문화 발굴현장'
– 참가접수 : 당일 오전 행사장안내대
– 작품접수 : 당일 14 : 00까지
– 준비물 : 그림도구 개인지참
• 중식은 참가가족이 개별적으로 준비
• 간단한 음료와 컵라면은 행사장에서 판매
• 동물도살후 조리된 고기는 참가가족에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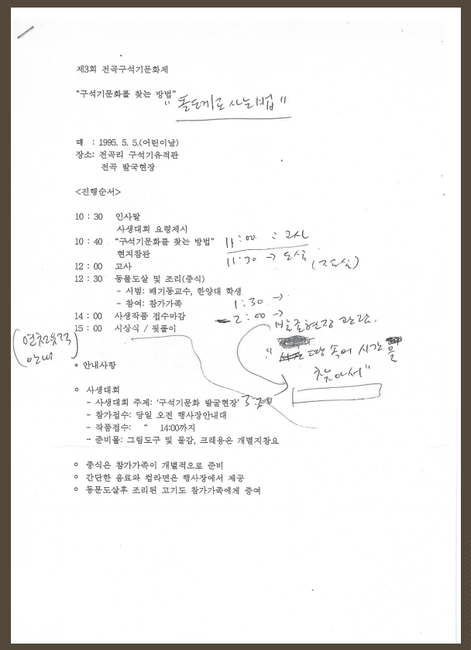
유적관 위치

유적관의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4리, 전곡읍에서 한탄강 유원지행 도로의 좌측 언덕 정상의 하얀 가건물.

연락처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02-406-8651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0345-400-5370
배 기 동 교수 0345-400-5374 (연구실) / 0342-704-4937 전화 및 팩스 (집)
이 장 섭 박사 02-596-7468 (집)
02-587-0983 (연구실)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3회



제3회 전곡구석기문화제

"구석기문화를 찾는 방법" "돌도끼로 사냥법"

때 : 1995. 5. 5.(어린이날)
장소: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전곡 발굴현장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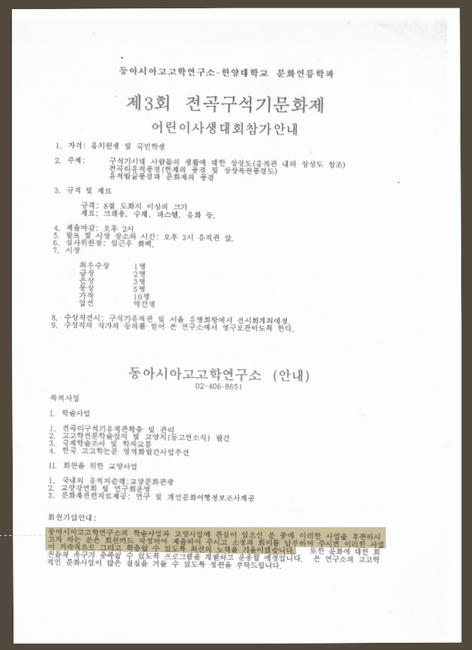
10 : 30 인사말
사생대회 요령제시
10 : 40 "구석기문화를 찾는 방법" 11:00 : 고사
현지참관 11:30 → 도시락 (12도시)
12 : 00 고사
12 : 30 동물도살 및 조리(중식)
- 시범: 배기동교수, 현양대 학생
- 참여: 참가자 1:30 →
14 : 00 사생작품 접수마감 ← 2:00 → 박물관현장 정리.
15 : 00 시상식 / 뒷풀이 "[redacted] 그리고 돗이 시간을 추억에서"

(일정조정중)
02-[illegible]

* 안내사항

○ 사생대회
- 사생대회 주제: '구석기문화 발굴현장' 3-7세
- 참가접수: 당일 오전 행사장안내대
- 작품접수: " 14:00까지
- 준비물: 그림도구 및 물감, 크레용은 개별지참요

○ 중식은 참가가족이 개별적으로 준비
○ 간단한 음료와 컵라면은 행사장에서 제공
○ 동문도살후 조리된 고기도 참가가족에게 증여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제3회 전곡구석기문화제

어린이사생대회참가안내

1. 자격: 유치원생 및 국민학생
2. 주제: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상상도(동굴곰 내의 상상도 참조)
전곡리유적발굴(현재의 주변 및 상상복원물포함)
문화탐사발굴장과 문화제의 주경
3. 규격 및 재료
규격: 8절 도화지 이상의 크기
재료: 크레용, 수채, 파스텔, 유화 등.
4. 제출마감: 오후 2시
5. 접수 및 시상 장소와 시간: 오후 3시 유적관 앞.
6. 심사위원장: 임근우 화백.
7. 시상

최우수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가작	10명
입선	약간명

8. 수상작품시: 구석기유적관 및 사용, 문명화랑에서 전시회개최예정
9. 수상작의 학기말 성적표 밑의 본 연구소에서 영구보관하도록 한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안내)

02-406-8651

학술사업

I. 학술사업

1. 전국타구석기유적관찰중 및 관리
2. 고고학연구원양성 및 교양지(동고연소식) 발간
3. 국제학술조사 및 학술교류
4. 한국 고고학으로 영역확장간사업추진

II. 회원을 위한 교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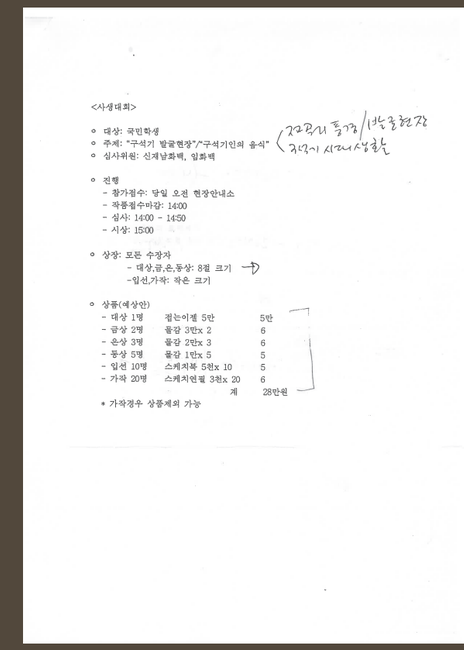
1. 국내외 유적견학:고양문화관광
2. 교양강연회 및 연구회운영
3. 문화재관련자료제공: 연구 및 개인문화여행정보조사제공

회원가입안내: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의 학술사업과 교양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 이러한 사업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회원카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본과에 대한 회원화 육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소의 고고학적인 문화사업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축제기록_3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의 학술사업과 교양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 이러한 사업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회원카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생대회>

○ 대상: 국민학생
○ 주제: "구석기 발굴현장"/"구석기인의 음식" (22회 특강/박물현장 / 지역 시대사성화
○ 심사위원: 신재남화백, 임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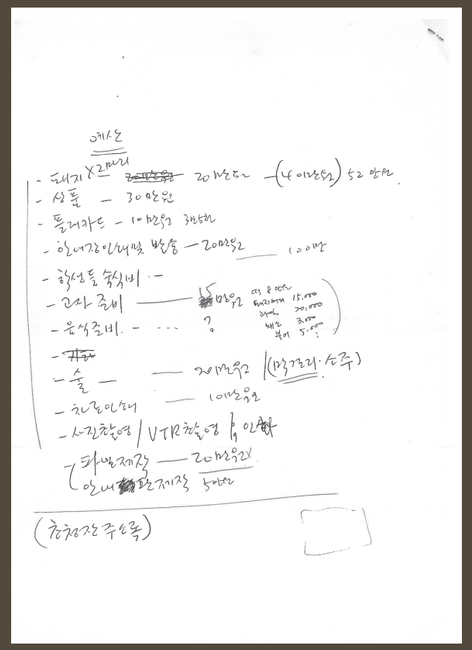
○ 진행
- 참가접수: 당일 오전 현장안내소
- 작품접수마감: 14:00
- 심사: 14:00 - 14:50
- 시상: 15:00

○ 상장: 모든 수장자
- 대상,금,은,동상: 8절 크기 →
-입선,가작: 작은 크기

○ 상품(예상안)

- 대상 1명	접는이젤 5단	5만	
- 금상 2명	물감 3단x 2	6	
- 은상 3명	물감 2단x 3	6	
- 동상 5명	물감 1단x 5	5	
- 입선 10명	스케치북 5권x 10	5	
- 가작 20명	스케치연필 3천x 20	6	
	계	28만원	

* 가작장수 상품제외 가능



예산

- 도화지 X 2백권 ~~[illegible]~~ 20만원 — (4이상원) 52만원
- 신문 — 30만원
- 돌려가도 — 10만원 고민중
- 어린이인터뷰 및 방송 — 200만원 — 100만
- 학생들 숙식비 —
- 그라 조비 — [redacted]만원 (의 8만원, 6시간에 15,000, 3시간 20,000, 체조 3,000, 북치 5,000)
- 음식조비 — ... ?
- ~~기타~~
- 술 — 200만원 (방경리·소주)
- 차량인건비 — 100만원
- 스피커임대 / VTR촬영 등 인쇄
- 하얀저장 — 200만원
- 어서 [redacted]원저장 5만원

(충청경로 주소록)

제4회 구석기 문화제

4회 축제는 '원시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전야제와 설치미술전을 새로이 선보인 점이다. 전야제에서는 '문명과 야만'이란 제목 아래 남태평양 사람들, 이슬람 문명과 고고학적 기상도 등에 관한 슬라이드 강연을 했다. 축제 전야제에 선보인 이같은 대중 학술 강연은 이후 전곡리 축제의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가 된다. 3회부터 축제 운영에 합류하였던 임근우 화백은 4회부터 본격적으로 축제 기획에 참여한다. 특히 4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행위 미술전의 일환으로 '시간타워'를 건설하였는데 축제 홍보물에 그 그림이 실려 있다. 시간의 신을 위한 제사와 시간의 춤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일시 : 1996.05.04 ~ 05.05
주제 : 원시시간 속으로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축제 전야제 개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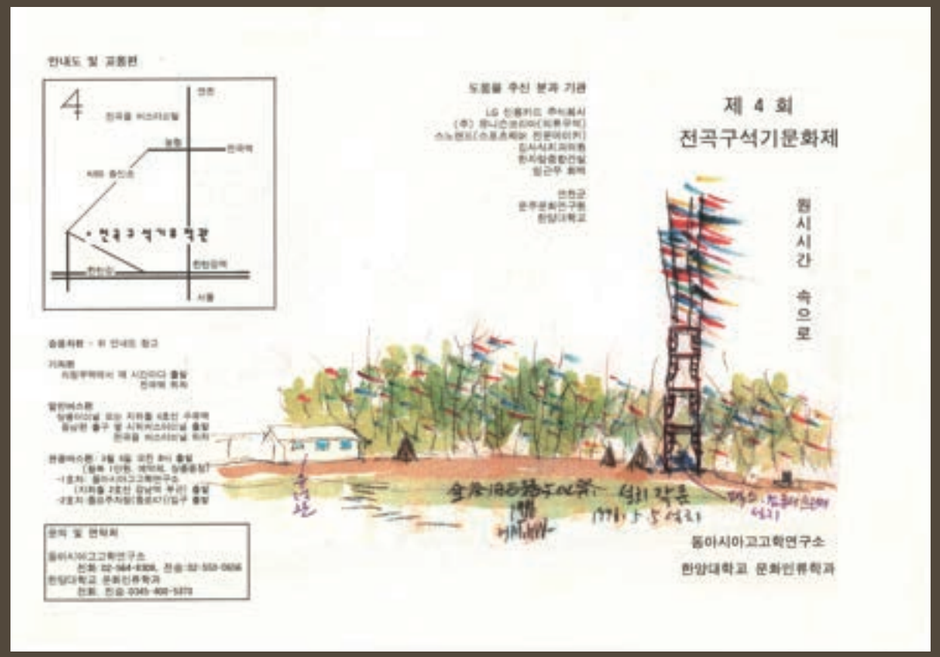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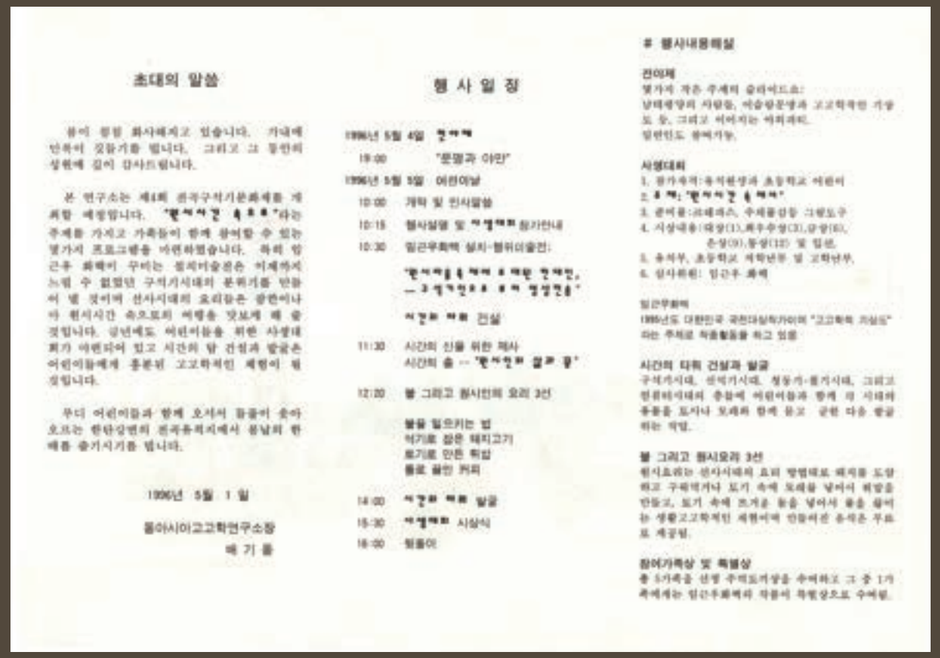
불 피우기 체험

020

자연과 시간의 신을 위한 제사

021





초대의 말씀

행 사 일 정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4회

제4회전곡구석기문화제

주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및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일시: 1996년 5월 5일, 어린이 날
장소: 월기도 전곡리 유적지 한강변 구석기유적관 일원
참가대상: 일반시민들과 어린이들 누구나
참가방법: 전곡리유적관람코스 5개 소원 프리마켓 방문하여 신청함.

-참가비는 별도의 접수가 아닌 준비
-간단한 스케치 판매하기
-제기차기 박수 게임 등의 구성은 준비하되 그때그 참가자들이 제기로 해서 서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기념사진촬영하신분은 월기 참가증구석기 신청: 참가비 무료.
-참가자전체 단체촬영
사정: 사정에의 주장자들 및 참가자들(방문해도 좋음)

행사내용:

월기서관 축소로

인물 접근수 최명
참가자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생 및 학우들

(주제의 의미성)
한국에서 최초의 시민중 고고학의 소로 이해하는 계기를 보여주는 것.
한편으로 시민들 위주 넘어 월기서에가 한국에 출현하여 월기인의 개념과 양상을 보여줌.
한국인의 시민중심의 축제로 인간의 주장을 제시함을 구현.
한국인의 오래된 월기서에로서 최초의 문장을 보임.

—행사준비로의 필요

행사목적

1. 세계고고학연맹으로서 아세아권에 고고학적인 성향을 인정이 주어 당장에는 시도는 기회를 제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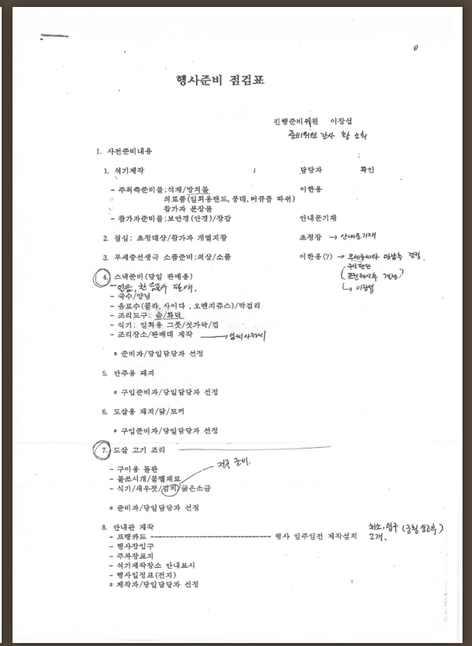
2. 아세아 주민공동인 어부인들이 고고학을 보다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어 문화유적을 발굴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3. 전국리구석기문화제를 문화관광지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어 전국리유적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기 보다는 대중 관심을 높이 일으키다.

4. 고고학인류학을 전공하는 젊은고고학자인 분으로 하나로서 선사문화를 복원하는 방법을 개발해 새로운 학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행사주제안학

제4회 동아시아고학의 한국나들이



행사준비 점검표

진행준비위원 이장섭
준비위원 김수 학 소식

I. 사전준비내용

1. 석기제작 / 담당자 / 확인

- 주최측준비물:선재/망치물
  의뢰물(일회용컵,, 풍대, 바퀴를 따위)
  참가자 준장물 이한용
- 참가자준비물:보안경(안경)/장갑 안내문기재

2. 장식: 초청대상/참가자 개별지참 초청장 → 상대측기재

3. 부재중선생과 소풍준비:의상/소품 이한용(?) → 조선놀이와 마을축 전통
  (전통놀이와 기념)
  ↳ 이명

4. 스낵준비(당일 판매용)
  - 전통, 전 등의 떡, 새,
  - 국수/냉면
  - 음료수(콜라, 사이다 , 오렌지주스)/막걸리
  - 조리도구: 솥/화덕
  - 식기: 일회용 그릇/젓가락/접
  - 조리장소/판매대 제작 ——— 접이식테이블

  * 준비자/당일담당자 선정

5. 안주용 제지

  * 구입준비자/당일담당자 선정

6. 도살용 제지/칼/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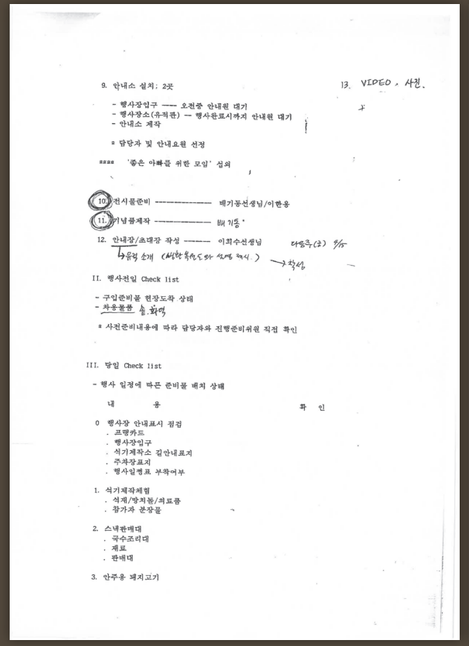
  * 구입준비자/당일담당자 선정

7. 도살 고기 조리

  - 구이용 돌판
  - 불조리기/불쇠제로
  - 식기/대추첫/젓가락/굵은소금 기타 준비.

  * 준비자/당일담당자 선정

8. 안내판 제작
  - 프랭카드 ———————— 행사 일주일전 제작설치 3m:1개 (3월 중순) 2개.
  - 행사장입구
  - 주차장표지
  - 석기제작장소 안내표시
  - 행사일정표(전지)
  * 제작자/당일담당자 선정



9. 안내소 설치: 2곳

  - 행사장입구 ——— 오전중 안내원 대기
  - 행사장소(초계판) — 행사판표시까지 안내원 대기
  - 안내소 제작

  * 담당자 및 안내요원 선정

**** '좋은 아빠를 위한 모임' 섭외

10. 전시물준비 ———————— 배기동선생님/이한용
11. 기념품제작 ———————— 김 기홍
12. 안내문/초대장 작성 ——— 이희수선생님 다음주(3) 5/5
  ↳음식 소개 (세계축제도와 지대 역시) → 작성

II. 행사전일 Check list

- 구입준비물 현장도착 상태
- 차송분분 송화력

  * 사전준비내용에 따라 담당자와 전행준비위원 직접 확인

III. 당일 Check list

- 행사 일정에 따른 준비물 배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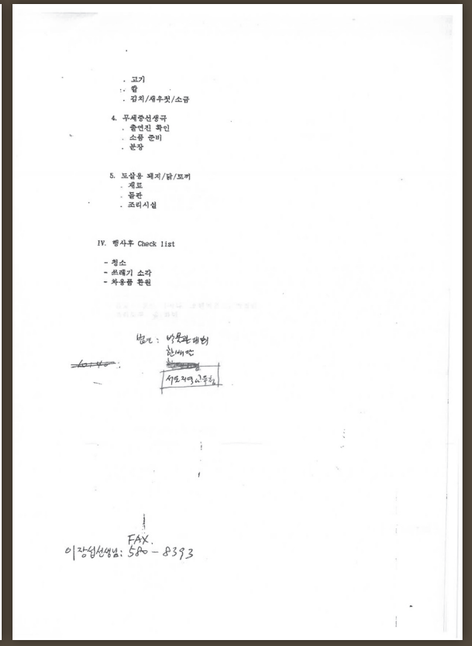
내 용 확 인

0 행사장 안내표시 점검
  . 프랭카드
  . 행사장입구
  . 석기제작소 길안내표지
  . 주차장표지
  . 행사일정표 부착여부

1. 석기제작재료
  . 석재/망치등/쇠도끼
  . 참가자 준장물

2. 스낵판매대
  . 국수조리대
  . 재료
  . 판매대

3. 안주용 제지고기



. 고기
. 칼
. 김치/대추첫/소금

4. 부재중선생과
  . 출석의 확인
  . 소품 준비
  . 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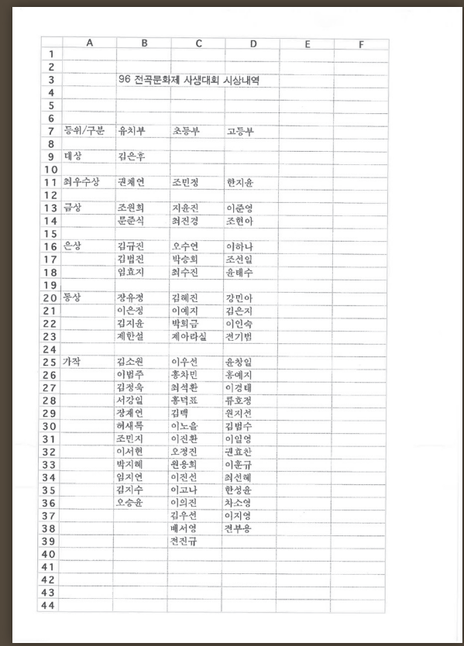
5. 도살용 제지/칼/도끼
  . 재료
  . 칼판
  . 조리시설

IV. 행사후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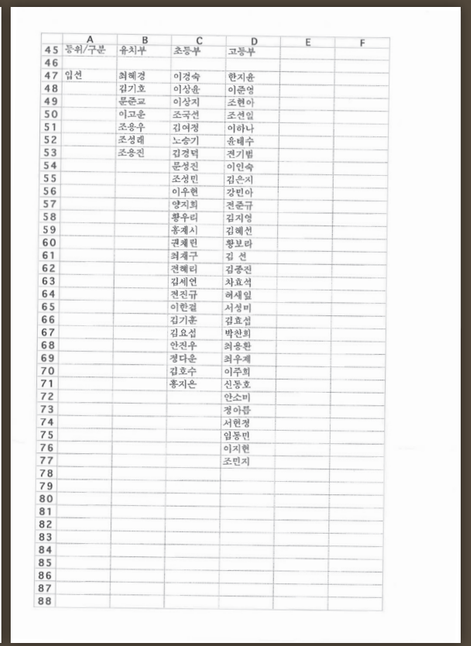
- 청소
- 쓰레기 소각
- 차송분 분원

변경: 나운화 교수
~~[illegible]~~: 한국여연
~~[illegible]~~
상호여연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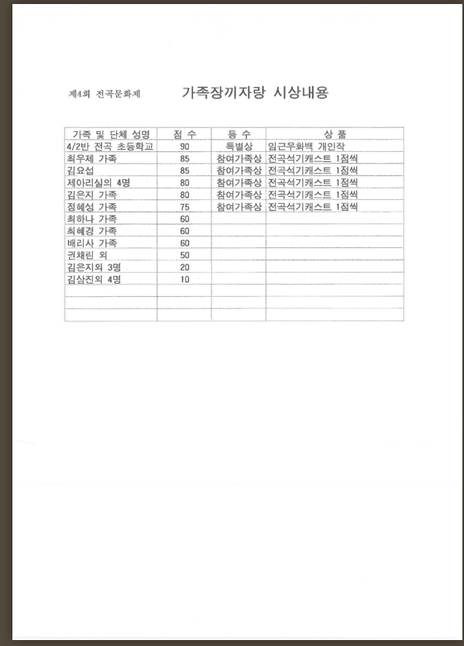
FAX.
이강선선생님: 580 - 8373



	A	B	C	D	E	F
1						
2						
3		96 전곡문화제 시상대회 시상내역				
4						
5						
6						
7	등위/구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8						
9	대상	김은우				
10						
11	최우수상	권제연	조민정	한지윤		
12						
13	금상	조원희	지윤진	이준영		
14		문준식	최진경	조현아		
15						
16	은상	김규진	오수연	이하나		
17		김범진	박수희	조선일		
18		임효지	최수진	윤혜수		
19						
20	동상	장유경	김혜진	강민아		
21		이은경	이예지	김은지		
22		김지윤	박희급	이인숙		
23		계한섭	제아타실	권기범		
24						
25	가작	김소원	이수진	윤창일		
26		이범주	홍차민	홍예지		
27		김정숙	최석환	이경태		
28		서강일	홍덕표	류호정		
29		장제연	김백	권지선		
30		허새록	이노을	김범수		
31		조민지	이진환	이일영		
32		이서현	오정진	권효진		
33		박지혜	원유희	이준규		
34		임지연	이진선	최진혜		
35		김지수	이고나	한성윤		
36		오승윤	이의진	차소영		
37			김수선	이지영		
38			배서영	전부용		
39			권진규			
40						
41						
42						
4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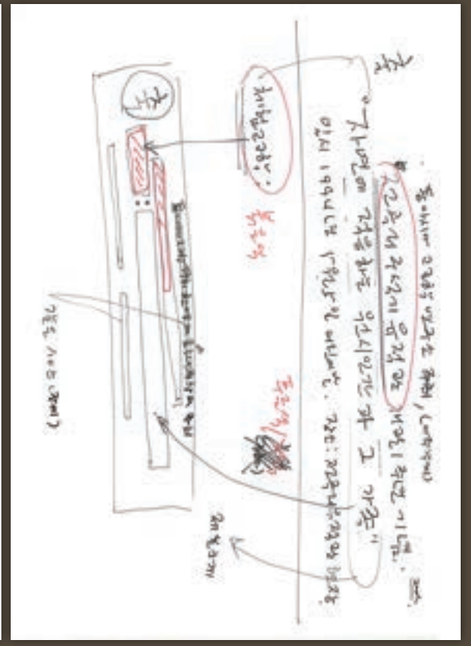


	A	B	C	D	E	F
45	등위/구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46						
47	입선	최혜경	이경숙	한지윤		
48		김기호	이상윤	이준영		
49		문준교	이상지	조현아		
50		이고운	조국선	조선일		
51		조윤구	김여정	이하나		
52		조정현	노승기	윤혜수		
53		조윤진	김경덕	권기범		
54			문정진	이인숙		
55			조정민	김은지		
56			이우현	강민아		
57			양지희	전준규		
58			황우리	김지영		
59			홍계시	김혜선		
60			권제린	황보라		
61			최재구	김 선		
62			전혜리	김종진		
63			김씨연	차효석		
64			권진규	허세일		
65			이한결	서정미		
66			김기훈	김효섭		
67			김요섭	박진희		
68			안진우	최용환		
69			정다운	최우제		
70			김호수	이주희		
71			홍지은	신동호		
72				안소미		
73				정아람		
74				서현정		
75				임동민		
76				이지현		
77				조민지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제4회 전곡문화제 가족장끼자랑 시상내용

가족 및 단체 성명	점 수	등 수	상 품
4/2반 전곡 초등학교	90	특별상	임근우화백 개인작
최우제 가족	85	참여가족상	전곡석기캐스트 1점씩
김요섭	85	참여가족상	전곡석기캐스트 1점씩
제이리실의 4명	80	참여가족상	전곡석기캐스트 1점씩
김은지 가족	80	참여가족상	전곡석기캐스트 1점씩
정혜성 가족	75	참여가족상	전곡석기캐스트 1점씩
최하나 가족	60		
최혜경 가족	60		
베리사 가족	60		
권채린 외	50		
김은지외 3명	20		
김상진외 4명	10		



축제기록_4회

023

사생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024

시간의 타워_임근우 작품

제5회 구석기 문화제

5회 축제는 전야제와 본 축제로 나누어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야제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는데 '한탄강 용암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한탄강-임진강 유적지 답사와 전곡유적관 관람, 토기 및 유적 만들기, 염원의 리본달기와 바비큐 잔치 그리고 '탐험고고학'이란 제목의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었다. 본 축제에서는 개막과 더불어 초기부터 이어져 온 자연과 시간의 신을 위한 제사를 시작으로 '미래에서 과거로'란 주제의 설치 행위연극과 임근우 화백의 시간의 타워 건설이 진행되었다. 5회에 새로이 등장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극배우 정찬교의 원시인 퍼포머스다. 그 외 석기 제작과 돼지도살·원시요리, 가상유적 발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다. 1회부터 이어져온 사생대회는 확장되어 도예가 박승호의 토기 제작 시범과 연계하여 토기 및 토우 제작 대회도 열렸다.

일시 : 1997.05.04~05.05
주제 : 원시인 생활탐구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한탄강 · 임진강 유적답사, 세계토기전시특별전

025

가상 유적 발굴

026

원시인 퍼포머(정찬교)와 참여자들

안내도 및 교통편

송용차편 - 위 안내도 참고

기차편
× 의정부역에서 매 시간마다 출발. 전곡역 하차 후 택시이용

일반버스편
× 상봉터미널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동남편 출구 앞 시외버스터미널 출발. 전곡읍 버스터미널 하차 후 택시이용

관광버스편 : 5월 4일 (일) 오전 8시 유적지답사 출발
5일 (월) 오후 4시 30분 서울역 출발
(동북 아픈 3번째, 어린이 1번째편 - 한탄강 • 임진강 일대 유적답사비, 4일 점심 및 단체 숙박제공포함 숙박제, 상품증정)
× 출발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위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거리 농협빌딩에서 제일생명 방향으로 약 300M 도보 약 3분-아시아나항공 건물 뒷편)

문의 및 연락처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전화:02-564-8308/전송:02-553-0656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화 • 전송:0345-400-5370

주최 및 주관 문화 기관
스노멘츠(스포츠매니 전문매니저)
(주)두산오토리아(리조트업)
김사식 치과의원
화가 임근우
조각가 박승호
연선금
농협전문경영인 전곡읍회
문화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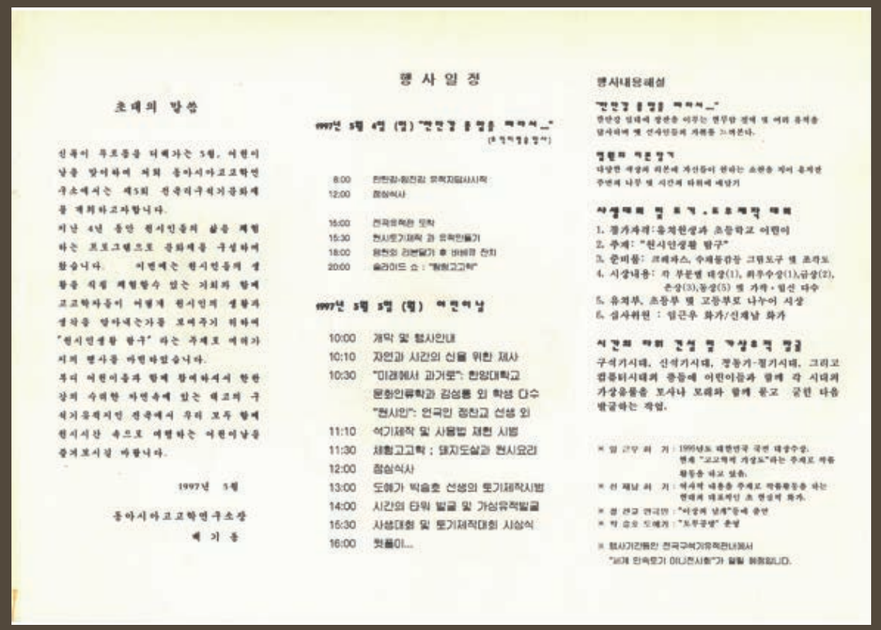
제 5 회
전곡구석기문화제

원시인생활 탐구

일시 : 1997년 5월 4일(일)~5월(월)

장소 : 전곡구석기유적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연 천 군



초대의 말씀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저희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는 제5회 전곡리구석기문화제를 개최하고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시인들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제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시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원시인의 생활과 생각을 알아내는가를 보여주고 하여 "원시인생활 탐구" 라는 주제로 여러가지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하시어 한탄강의 수려한 자연속에 있는 전고리 구석기유적지인 전곡에서 우리 모두 함께 원시시간 속으로 여행하는 즐거운날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997년 5월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최 기 홍

행 사 일 정

1997년 5월 4일 (일) "한한강 생활을 체험하자_"
(주제발표 및 경기)

8:00	한한강-원전리 유적지답사시작
12:00	점심식사
15:00	전곡읍회관 집회
15:30	원시토기제작 과 문화인들기
18:00	음악회 경연달기 후 바비큐 잔치
20:00	슬라이드 쇼 : "원형고고학"

1997년 5월 5일 (월) 어린이날

10:00	개막 및 행사안내
10:10	자연과 시간의 신을 위한 제사
10:30	"미래에서 과거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성룡 외 학생 다수
	"원시인": 연국민 정찬교 선생 외
11:10	석기제작 및 사용법 재현 시범
11:30	새참고고학 : 돼지도살과 원시요리
12:00	점심식사
13:00	도해가 박승호 선생의 토기제작시범
14:00	시간의 타워 발굴 및 가상유적발굴
15:30	사냥대회 및 토기제작대회 시상식
16:00	뒷풀이...

행사내용해설

"한한강 생활을 체험하자_"
한탄강 일대에 살았을 이주는 원주민 생활 및 여러 유적을 답사하며 선사생활과 자연을 느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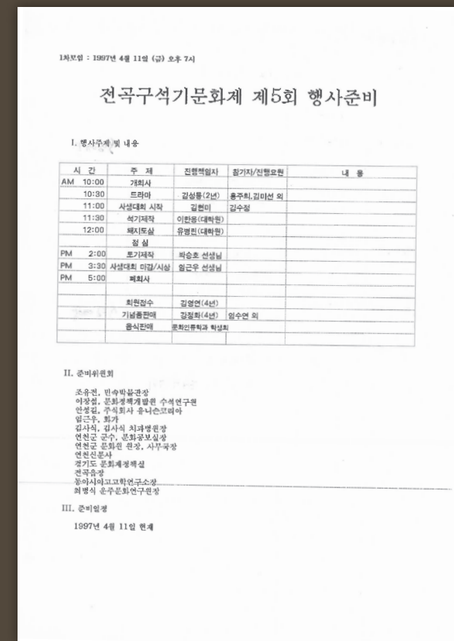
생활의 재현 장기
다양한 생활의 리얼에 가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지어 옥계산 주변의 나무 및 시간과 타워에 매달기

사냥대회 및 토기 • 도요제작 대회
1. 참가자격: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어린이
2. 주제: "원시인생활 탐구"
3. 준비물: 크레파스, 수채물감등 그림도구 및 초라도
4. 시상내용: 각 부문별 대상(1), 최우수상(1),금상(2), 은상(3),동상(5) 및 가작 • 입선 다수
5. 유적부, 초등부 및 고등부로 나누어 시상
6. 심사위원 : 임근우 화가/신재남 화가

시간의 타워 건설 및 가상유적 발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철기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의 층들에 어린이들과 함께 각 시대의 가상유물을 보시고 모래와 함께 묻고 굳힌 다음 발굴하는 작업.

× 입 금 처 : 1996년도 대한민국 국민 대상수상. 한국 "고고학의 가상도"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
× 전 체 심 사 : 역사적 내용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는 한태희 대표작가 초 청심사 화가.
× 참 관 권 리 : "아생의 낭만"등에 출연
× 작 품 도 매 : "도두문명" 출발
※ 행사기간동안 전곡구석기유적관내에서 "비가 한속보기 이니라사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5회



1차모임 : 1997년 4월 11일 (금) 오후 7시

전곡구석기문화제 제5회 행사준비

I. 행사주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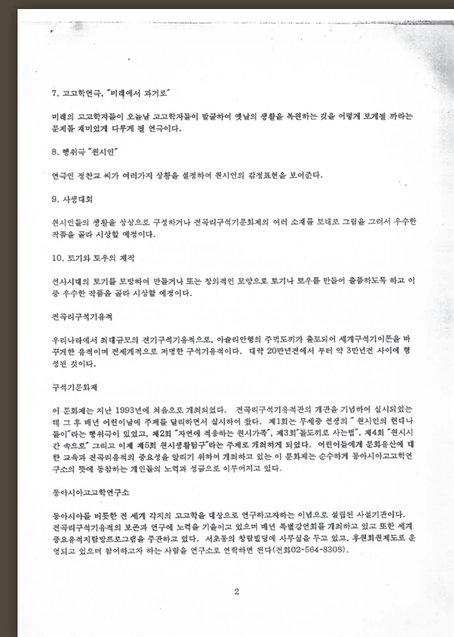
시 간	주 제	진행책임자	참가자/진행요원	내 용
AM 10:00	개회사			
10:30	트라이	김성룡(2년)	홍주희,김아선 외	
11:00	사냥대회 시작	길현미	김수정	
11:30	석기제작	이찬용(대학원)		
12:00	돼지도살	유병희(대학원)		
	점 심			
PM 2:00	토기제작	최승호 선생님		
PM 3:30	사냥대회 리캅/시상	임근우 선생님		
PM 5:00	폐회식			
	회원장수	김성연(4년)		
	기념품판매	김정희(4년)	임수연 외	
	음식판매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II. 준비위원회

조유전, 민속박물관장
이창섭, 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안경림, 주식회사 유니슨코리아
임근우, 화가
김사식, 김사식 치과병원장
연천군 군수, 문화공보실장
연천군 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연천신문사
경기도 문화체육과실
전곡읍장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허명식 순주문화연구원장

III. 준비일정

1997년 4월 11일 현재



7. 고고학연구, "미래에서 과거로"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 옛날의 생활을 복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될 까하는 문제를 재미있게 다루게 될 연구이다.

8. 행위극 "원시인"

연극인 정찬교 씨가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원시인의 감정표현을 보여준다.

9. 사냥대회

원시인들의 생활을 상상으로 구성하거나 전곡리구석기문화제의 여러 소재를 모태로 그림을 그리어 우수한 작품을 골라 시상할 예정이다.

10. 토기와 도우의 제작

선사시대의 토기를 모방하여 만들거나 또는 창의적인 모양으로 토기나 도우를 만들어 출품하도록 하고 이중 우수한 작품을 골라 시상할 예정이다.

전곡리구석기유적

우리나라에서 최대규모의 선기구석기유적으로,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가 출토되어 세계구석기이론을 바꾸게한 유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구석기유적이다. 대략 20만년전에서 부터 약 3만년전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구석기문화제

이 문화제는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전곡리구석기유적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실시되었는데 그 후 매년 어린이날에 주제를 달리하면서 실시하여 왔다. 제1회는 무제중 선생의 "원시인의 현대나들이"라는 행위극이 있었고, 제2회 "자연에 적응하는 원시가족", 제3회"물도끼로 사는법", 제4회 "원시시간 속으로" 그리고 이제 제5회 원시생활탐구"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고속과 전곡리유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이 문화제는 순수하게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의 뜻에 동참하는 개인들의 노력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의 고고학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하는 이념으로 설립된 사설기관이다. 전곡리구석기유적의 보존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세계 중요유적답사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서초동의 창원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후원회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전화02-564-8308).

제5회 전곡구석기문화제 준비상황점검

1. 프로그램준비내용

1) 유적지투어(출발을 따라서)
-버스대절 (3시간)
-코스확정(방문대상 유적확정 및 숙식지확정)
-가이드 및 해설자
-안내서작성(번역자포함)

2) 전야제행사
-토기제작준비: 흙, 장작 등
-마른달기준비:대나무, 비닐
-바베큐:장작과 재지고기
-유연선도구: 파키즌트, 하이헨드, 에일프 등
-발굴진흙: 목사와 소품들

3) 원시미술 투데준비
-물감
-장소준비
-발굴준비

4)제사
-제물준비
-축문
-제상준비

5)행위극:"원시인"
-정찬교 선생 등 출연진 확정
-소품준비

6)연극:"미래에서 과거로"
-김정룡 군 등 출연진확정
-소품준비

7)석기제작 및 사용법 시범
-석재준비: 강돌(규암), 유리병 등.
-제작도구준비: 뼈비, 가죽 등
-발췌
-제작시범최선생

8)돼지도살
-돼지 1마리
-발췌(절기적)

9)토기제작시범
-토기용 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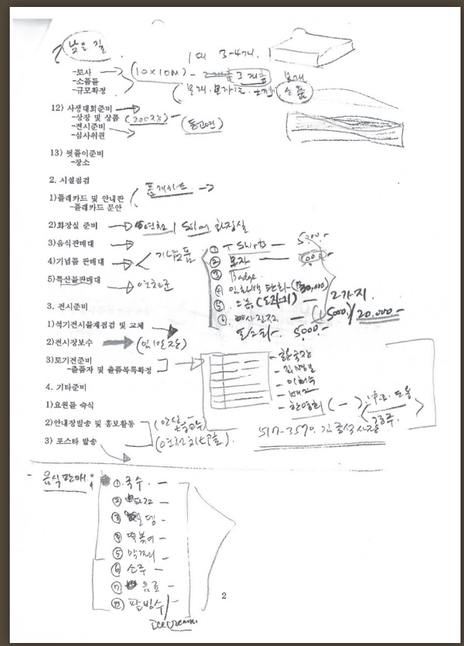
10)시간의 타워제작
-토대와 목사
-소품들: 석기, 토기, 금속기, 컴퓨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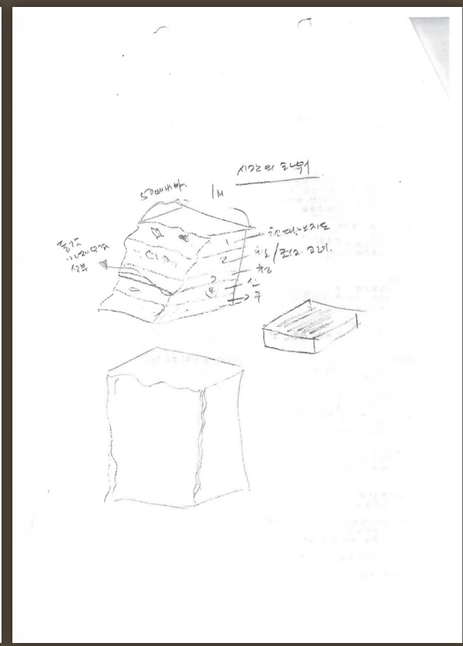
*물감물인 돌발을 이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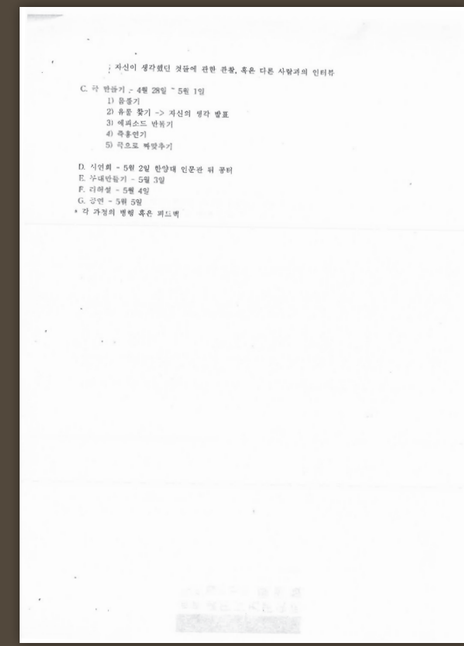
11)가상유적발굴준비

1

축제기록_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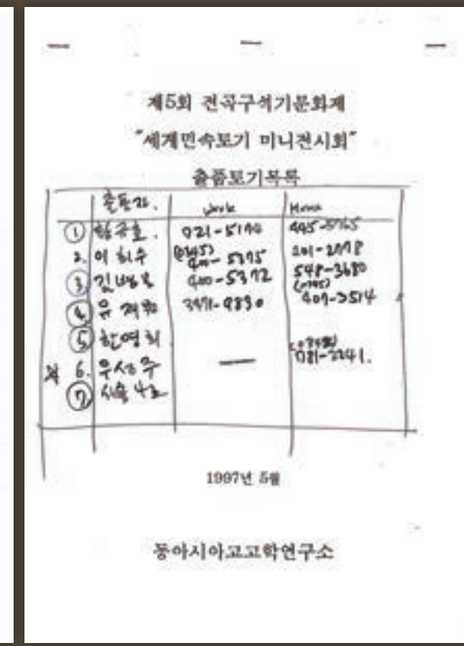




;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에 관한 관람,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터뷰

C. 각 만들기 - 4월 28일 ~ 5월 1일
1) 음악기
2) 유물 찾기 -> 자신의 생각 발표
3) 에피소드 만들기
4) 축음연기
5) 각오로 마무리하기

D. 시연회 - 5월 2일 한양대 인문관 뒤 광터
E. 무대만들기 - 5월 3일
F. 리허설 - 5월 4일
G. 공연 - 5월 5일
* 각 과정의 명명 혹은 피드백



제5회 전곡구석기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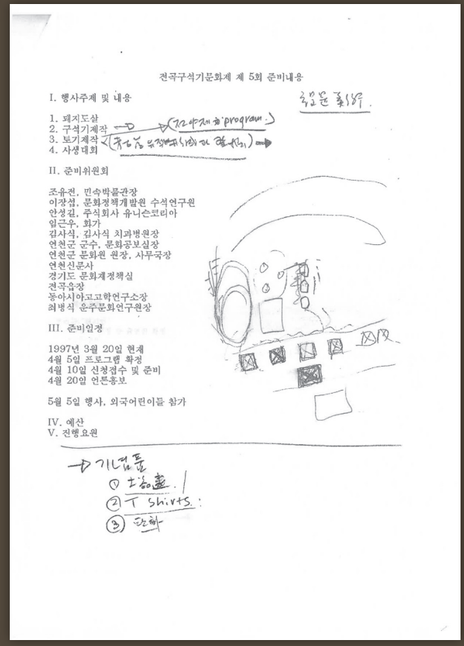
"세계민속토기 미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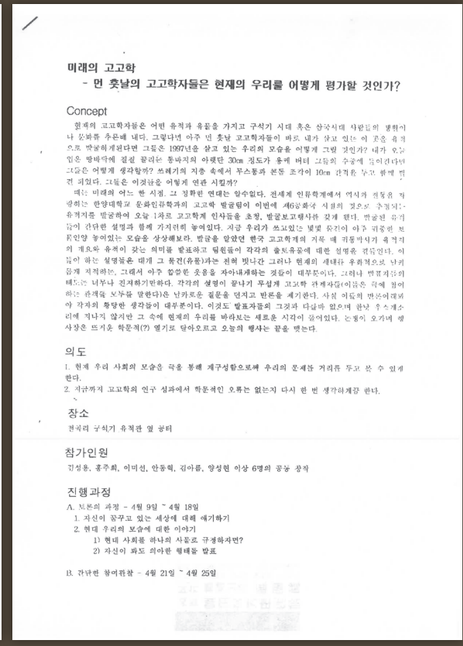
출품토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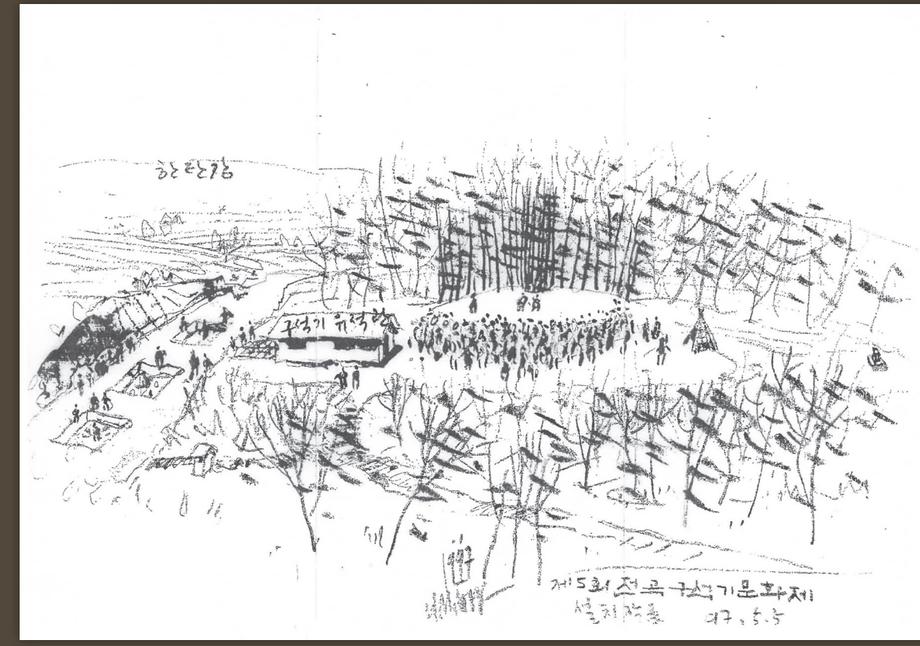
	출품자	work	Home
①	홍주호	921-5144	495-5765
2.	이 희수	9453-5715	201-2172
3.	김병호	440-5372	548-3680 (0402)
4.	유 재원	3471-9830	409-3514
5.	한영희		
6.	우성우	—	사무실 0131-2241.
⑦	시윤 나호		

1997년 5월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029

전시관 관람 모습

제6회 구석기 문화제

6회 축제의 주제는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라는 주제로 열렸다. 부제가 청소년 구석기 문화체험 행사 일 정도로 선사체험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사생대회, 가상 유적 발굴, 석기 제작, 돼지 도살, 토기 굽기 외에 미스 · 미스터 원시인 분장과 선발대회, 움집 짓기 대회, 문화유적 발굴사진전, 염원의 리본 달기 등의 행사가 더해졌다. 선도적인 체험 프로그램 외에 이 같은 다양한 행사는 유적 활용 분야를 확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축제 초창기의 다양하고 신선한 노력이 빛날 만큼 프로그램의 구성이 알차졌다.

일시 : 1998. 05.04~05.05
주제 :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주최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참가인원 약 5만 명(비공식 집계)

030

돼지 해체

031

시간의 타워 조형물과 제작자 임근우

• 안내도 및 교통편 •

• 승용차편
안내도 참고

• 기차편
의정부역에서 매시 20분 출발.
전곡역 하차 후 도보로 약 10분 소요

• 일반버스편
상봉터미널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동남편 출구 앞 시외버스터미널.
전곡읍 하차 후 도보로 약 10분 소요

• 문의 및 연락처 •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전화 : 02-564-6308 | 팩스 : 02-553-0656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화 | 팩스 : 0345-400-6370

제 6 회
전곡구석기문화제

– 청소년 구석기 문화체험행사 –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 도움 주신 분과 기관 •
농업전문경영인 전곡읍회
스노랜드(스포츠의류 전문메이커)
연천신문사
성일이벤트 유진라인(전곡소재)
(주) 한배달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연천군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일시 : 1998년 5월 4일(월)~5일(화)
장소 : 전곡구석기유적관

• 초대의 글 •

춥고도 길게만 느껴졌던 지난 겨울을 떨쳐버리고 전곡의 자연이 새옷을 갈아입는 이때, 지난 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제6회 전곡리구석기문화제" 개최를 알려 드립니다.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이란 주제 아래,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원시인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색다른 추억의 고고학적 체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온가족이 함께 오셔서 푸르른 전곡의 맑은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장
배 기 동

• 행사일정 •

1998년 5월 4일 (월)
16:00 전야제

1998년 5월 5일 (화) 어린이날
10:00 개막식
"원시인의 불지핌"
10:30 하늘과 땅을 위한 제사
10:50 사생대회
미스/미스터 원시인 분장 시작
11:00 석기제작
돼지도살
토기굽기
12:00 점심시간
13:00 윷짚기대회
13:30 미스/미스터 원시인 선발대회
14:00 가상유적발굴
15:0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뒷풀이

※ 중식은 참가가족이 개별적 준비
간단한 음료, 국수류는 행사장에서 판매
동물도살 후 조리된 고기는 제공

• 행사안내 •

1. 참여행사안내
5월 5일 오전 9시부터 대회참가 접수받습니다.
1) 사생대회
참가자격 : 유치부, 초등부
주제 : 내가 만일 원시인이라면
준비물 : 크레파스, 수채물감 등
참가비 : 1,000원
※ 주최측 인장이 찍힌 도화지 지급
2) 미스/미스터 원시인 선발대회
참가자격 : 유치부, 초등부
준비물 : 주최측에서 준비
참가비 : 2,000원
3) 윷짚기기대회
참가자격 : 어린이와 그 가족(선착순 10가족)
준비물 : 주최측에서 준비
참가비 : 10,000원
2. 가상유적발굴
가상유적지에 묻힌 유물을 발굴해 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고고학적 흥미를 유발시킴
3. 문화유적 발굴사진전
장소 : 삼불 김원룡 선생 기념비지
내용 : 구석기시대~삼국시대 대표유적
4. 원원의 리본달기
리본에 가족의 소망을 담아 유적관 주변의 나무에 매달기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6회

제 6회 전곡 구석기 문화제 결과보고

축제기록_6회

아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만간 7차 회의 때
결산보고시 완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회 구석기 문화제

7회 축제는 '원시마을에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전 행사와 차별점은 선사체험 프로그램의 확장과 분류를 통해 '원시생활 체험코스'를 만든 것이다. 체험코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바꾸면서 석기 만들기, 토기 만들기, 불 지피기, 가상 발굴, 원시인 패션, 움집 만들기 등을 섹션 별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상상화 그리기, 토우 만들기 대회, 백일장, 염원의 리본 달기 등은 축제 부대행사로 분류되었다. 또한 연계 특별전으로 문화유적 발굴 사진전, 설치미술 전시회 개최 등 축제의 전반적인 구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일시 : 1999. 05.04~05.05
주제 : 원시마을에서의 하루
주최 : 연천문화원, 연천군,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연천군 재정지원 전담

034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7회

제7회 전국 구석기 문화제

-항목별 추진내용 및 준비사항-

1. 초청장 제작 및 발송
2. 5월 4일 전야제 행사
3. 5월 5일 문화제
4. 사전 준비사항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1. 초청장 제작 및 발송

①일정 4/13(水)까지 원성, 인쇄 의뢰 →000부 인쇄
4/15(金)까지 발송처 주소정리 하여 4/16(土)까지 발송 완료

②언론사 초청장이 인쇄되는 즉시,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 문화부에 fax.
포스터와 함께 초청장 발송

③여행사 한탄강유적 담사단
5/4 전야제에 참퍼하는 스키쿨 조경이 원활하도록 긴밀한 연락망 구축

④경기북부지역 각급 학교
연천군청에 협조요청, 교육청과 연계된 안내 · 홍보단 마련

⑤특별연락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학과 및 교내 교수님, 타대학 교수님, 기관 선생님

⑥초청장 구성 -포스터와 별도
전 · 후면 각 4쪽 총 8쪽, 하단 생존 참조
세부 내용 ☞다음 장
39×21(cm), 하단 6.5cm

"우리시대에 "하루"

(1)행사일정 5/4 전야제 5/5 문화제	(3)악도 교통안내 문의 및 연락처	(5)표지 제7회 전곡 구석기 문화제	(7)초대의 글
(2)원시인 사진자료	(4)도움주신 분, 기관	(6)일시, 장소 주관, 주최, 후원	(8)행사전경 사진자료
(9)전곡리 유적 안내 전곡은 세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인가. (가제)	(11) 전 체	초 청 도	(12)전곡리 구석기 문화제 연혁
(10)행사 안내 사생대회,토우만들기 열린의 리본	(13)원시생활 체험코스	(14)원시생활 체험코스	(15)원시생활 체험코스

제7회 전국 구석기 문화제 추진 일정

日		추진내역	담당자 및 세부내역	비고
4/12	월	☞ 초청장 제작	→ 디자인 및 주장:김근수 선생님	언론사: 포스터 포함 발송 병행
13	화	초청장, 포스터 인쇄 의뢰	→ 한성심사장님	
14	수	발송 대상 주소 list up 및 발송준비	→ 강정화, 김병연, 김민정	
15	목	☞언론사 보도자료 및 초청장 fax	→ 김병연, 박선영	발송: 늦어도 월요일까지
16	금	초청장 발송 완료 언론사	→ 강정화, 조춘정, 박선영	
		☞발굴 사진전 패널 대여 공문발송	→ 최성애	여름철까지 월도 연락
17	토	로한탄강 유적 답사단 여행사	→ 한성심 사장님?	
18	일	동고연 운영회의	서울	
19	월			
20	화	☞전시물 보강 및 안내 패널 제작, 디자인→	배선생님 및 대학원	20 중간고사
21	수	☞원시생활 체험코스 안내 패널	→ 김병연, 이화종	
22	목	(강화도 고인돌 행사 자료 대여)		
23	금	☞월 학부생 행사설명 및 인력 운산 구체화	연구반 스비디, 학과학생회	
24	토	☞구입 물품 list up	→ 강정화, 김병연	
25	일			
26	월	☞ 공연 및 무대, 설치 미술 등 추진 확인		연천군청 및 연천문화원 협력사안 확인 필.
27	화	경찬교님, 설치 미술 확가 등	→ 임근수 선생님	
28	수	상품이, 종품놀이패, 연천 포럼 공연	→ 연천문화원 및 군청	
29	목	☞ 상품 및 물품 구입	→ 강정화, 조춘정, 김민정	
30	금	☞ 발굴 사진전 패널 대여, 운반	→ 강병학, 김대일	
5/1	토	(대림주여박물관) 주여(전통문화 보여줌)	(이주 월 or 내주 초)	
2	일	전랑대 전곡으로	→ 15-20인, 농업경영인자 합류	
3	월	현장 : 무대 설치, 도로변 설치미술, 전기, 물, 전화공장, 차양막, 주차시 etc.		
4	화	전야제		
5	수	제7회 전곡 구석기 문화제		
6	목	뒷정리	대여품 반환 및 정소 기타	
memo				

축제기록_6회

2. 5/4(화) 전야제

① 원시인 카 퍼레이드
원시인 콘장 : 한양대학교 학생 5-6인
필요 사항 : 차량 및 운전사- 연천군청의 협조 요청
콘장제료 및 의상 - 자체 사전준비
차량 장식물- 농업경영인

② 종묘놀이패 및 댄스팀 공연
- 연천문화원측 섭외 : 연천 중고등학교 사물놀이단 (10여명)
- 공연료 및 공연 확정 여부 확인 //

③ 연천 포럼 공연
연천 포럼 측에서 무대 대여, 공연은 여울소리팀이
공연의 규모 · 내용 및 무대 대여의 유 · 무상 여부 확인 : 연천군청 임명희씨
(연천 포럼 자체 토요문화제(5/1) 이후 무대가 대여될 경우, 무대 설치에 인력 협조 요망)

④ 배기동선생님 강연
전곡리 구석기 유적에 관하여 : 지역민을 위한 강연 // Video 30초
필요사항 : 슬라이드 및 빔 프로젝터

⑤ 상품이 공연
- 연천문화원측 섭외 : 무용가 악력, 공연료, 음악 등

⑥ 영화 상영 :
- 물을 찾아서 or 곡스(GOGS)
- 기술 담당 : 오산장님

⑦ 이동
- 전곡주민, 한탄강유적답사단, 행사요원들간의 화합도모
- 음식, 주류 제공

☞ 음악가 선정과 성일이벤트 유진라인과의 공조체제
☞ 한탄강유적 답사단의 유적과 도착 시점과 이후의 안내 주의
☞ 발굴사진전이나 설치미술에 관한 안내
☞ 각 공연 및 일정의 사간 안배(일몰 이전과 이후)에 세심한 고려

→ 여행사 [① 5/4 - 5 : (금요 저녁) 1 박 2 일 // ② 5/5 - 아침 - (토요일) - 여행사]

→ 퀴비퍼 주소.

3. 5/5(수) 제7회 전곡리 구석기 행사 당일

※ 전체 사회 : ~~전체 진행~~ 장님 이경석, 이희수

① 접수 및 열린의 리본 달기 09:00-09:40
내용 : 상상화 그리기 및 토우 만들기 대회 접수대와 열린의 리본 판매(?)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신규회원 접수
필요 : 책상 최소 3개와 최소인원 5명
인장 찍힌 도화지, 지정표(박승호선생님), 문구류
문제 : 원시음악 등과 이전에 접수대가 위치하고 있다.
협소한 진입로를 통해 참여가족 및 행사요원들이 내방하는 동안 도화지 · 지정표 · 리본 등을 전달하게 된다. 동시에 아동의 이름 및 학교 등을 기재하게 될 때, 혼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안 : 좁더라도 예년처럼 유적관 앞이 당도한 이후에 접수대를 설치한다.
단, 가능하다면 기념품 판매대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② 개막식 09:40-10:30
내용 : 사회- 이장섭 선생님 →개막선언 : 배기동 선생님 →개회사 : 연천문화원장
→환영사 : 연천군수 →축사 : 김병모 선생님 →내빈소개 : 당일 중요 참가인사
필요 : 음향 시설, 강정화 or 최성애 보조
주의 : 시간 조정, 다소 빠른 진행이 되도록.

③ 자연의식- 하늘과 땅 그리고 신을 위한 제사 10:30-11:00
내용 : 원시인(경찬교님과 학생 2인)들의 불 발견, 제사 및 술 등의 의식
필요 : 횃상, 돼지 1두, 음향 시설, 내레이터, 보조인원 2인
돌발 :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상상곡 공연은 성사가 어려울 듯 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계획한 시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존의 11:20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④ 상상화 그리기 대회 및 토우 만들기 대회 11:00-13:40
내용 : 원시시대에 대한 주제로 상상화를 그리고, 자유롭게 토우를 만든다.
필요 : 접수대 상주인원 2인(rush hour 5인), 인장찍힌 도화지, 토우용 표식물, 문구,
주의 : 접수대의 적소에 마감시간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비치하도록 한다. 담당요원들도 이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토우만들기 대회용 지정표와 원시생활 체험코스의 토기 만들기용 점토가 구별되어야 한다.

⑤ 원시생활 체험코스 진행 11:00-13:50
※각 코스별 안내 패널 : 강화도 고인돌 행사 패널(1998년 우리학과 구성 · 제작) 대여
소재 - 강화군청(대여 담당 : 김병연)
※인주서 : 강화도 행사의 전례로 보아 혼란이 가중된다.
인주서의 형식으로 전곡리 문화제 특유의 상징을 제작하는 것도 좋겠다.

코스 1. 불지점 코스
담당자 : 김군호(94학번, 학부 3학년) 외 남학생 1-2인
내 용 : 마찰열을 이용하는 원시식 불지점을 체험한다.
필 요 : 나무판, 활, 비비기, 가죽끈, 톱밥, 까시라기, 활가루, 비상약품 등
주 의 : 불이 잘 안 붙는다(재료준비, 사전연습 철저히). 화상의 위험이 있다.

코스 2. 석기 만들기 코스
담당자 : 이화종(93학번, 학부 4학년) or 김대일(94학번, 학부3학년) 외 남학생 1-2인
내 용 : 뗀돌석기를 직접 만들어, 돼지나 통나무, 가죽 등에 직접 사용하여 본다.
필 요 : 다양한 크기의 강돌, 뚠뚠이장갑, 비상약품 등
주 의 : 눈을 포함한 부상의 위험이 높으니 요원은 각별히 주의하면서 지도한다.
본래안은 제작코스와 사용코스가 달랐으나 장소, 인원 등의 여건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자연의식 후의 돼지다리 한쌍, 통나무, 가죽 등에 둘러모여 한 장소에서 만들고 사용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코스 3. 토기 만들기 코스
담당자 : 박지원(96학번, 학부 4학년) 외 학생 1인, 박승호 선생님 고문
내 용 : 준비된 진흙으로 토기를 비롯한 물건을 마음껏 만든다.
필 요 : 점토, 모래, 조개가루, 물질, 비니어관, 물양동이 2,
주 의 : 요원은 옛사람들의 토기제작법을 간단히 설명한다.
손을 씻을 곳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코스 4. 옥집 만들기 코스
담당자 : 방민규, 신효섭(대학원 1기) 외 학생 2인
내 용 : 1-2명씩 협력하여 선사시대의 옥집을 지어본다.
필 요 : 갈대, 짚, 기둥용 나무, 칡근, 일반 끈, 문제용 표식물,
주 의 : 최대 20가족으로 당일 선착순으로 옥집 만들기 현장에서 접수한다. 요원은 가족의 이름과 문제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여 소란을 방지하고, 제료의 분배를 둘러싼 잡음을 예방한다.
제 안 : 참가비를 2-3만원 정도 받고, 당일 참가 인사에게 심사를 부탁한다. 상품은 연천의 특산물로 한다.

코스 5. 원시인 패션 코스
담당자 : 조춘정, 박신영(97학번, 3학년)
내 용 : 상상력을 발휘하여 원시인으로 변장하여 본다.
필 요 : 숯, 빨간 진흙, 풀어놓은 옷감 및 봇, 그외 자연물(아동이 구한다)
제 안 : 호피천과 마스크 같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호피천은 고려). 아동의 손등에 일련번호를 붙여 리스트를 관리한다. 원시인 선발대회 안내문을 비치한다.

코스 6. 가상 발굴 코스
담당자 : 강병학, 원중호(대학원 3기) 외 학생 2인
내 용 : 가상으로 조성한 사이트에서 복제 유물, 토기편 등을 발굴한다.
필 요 : 마운드 형 사이트(장비), 트렌싱, 합척, 쟁자, 나침반, 붓삽, 쓰레받이,
유물, 내레이터, 마이크,
주 의 : 가상유물 사전제작.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를 대비하고, 부모들의 여성숲 금한다.

이상의 코스별 원시체험에 관한 인적 구성 및 행사 준비는 코스별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필요 물품은 운영위에서 마련한다.

⑥ 미스 · 미스터 원시인 선발대회 13:50-15:00
내용 : 원시 패션 코스에서 분장한 후 놀던 아동들을 소집하여 중앙 무대에서 선발대회를 벌인다. 심사시간이 길어질 경우, 장기자랑 등을 병행한다.
필요 : 음향시설, 사회자, 보조요원 1인
주의 : 아동의 참가번호와 리스트 내용의 혼동을 주의하고, 체험코스의 요원이 보조한다.

⑦ 상상화 그리기 대회, 토우만들기 대회, 옥집 만들기 가족 시상식 15:00-16:00
내용 :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로 나뉘어 당일 참가 내빈이 시상한다.
필요 : 포장, 각급 표시된 상품, 분반상황을 포장된 기념품, 상장, 음향, 사회자,
보조요원 2인
주의 : 일찍 돌아간 아동이 큰상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소나 학교 등의 리스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순차대로 밀리도록 준비한다. 상장에 성명을 기재하는 일을 신속히 한다. 담당요원은 수상작품을 비롯한 전작품, 참가자 명단을 잘 챙긴다.

⑧ 뒷처리 16:00 이후

4. 행사관련 사전 준비사항

① 연천군청 : 식수 및 음수, 발전기, 간이화장실
차량막, 책상 및 의자, 무전기
중앙무대 대여
5/5 당일 기자석↔행사장 순환버스 차출, 경찰력 배치

② 연천문화원 : 공연 관련 제반사항
문화원자체 영상기록팀 가동 여부

③ 농업전문경영인 : 전야제 관련 제 행사
도로변 및 행사장 설치 미술
특산물, 음식 판매
전곡읍내 지시물 및 플래카드 설치

④ 유적관 개보수 : 전시물 보강, 패널 제작, 내부 도색 여부 결정
버티컬 블라인드 설치, 배선 정리,

⑤ 기념품 : 모자, T-셔츠, 열쇠고리, 뱃지,
로고 및 심볼 캐릭터 사용이 가능한지
판매요원 및 장소 사전 결정

⑥ 행사진행 기타 : 참가 내린 점심식사, 교통편
원활한 무전연락 및 중앙과의 소통
문화인류학과 영상실 - 기록영상, 촬영
진행요원들 식사 및 음료, 휴식 - 베이스 캠프 지정
유니폼 - 셔츠/모자/조끼/ / 한양대=동고인 로고 디자인

⑦ 행사물품 : 상장 및 상품, 상품포장 -준비하여 전곡 도착
각 행사 및 체험코스 준비물 리스트 - 각 코스 담당 자체 관리
-현장 준비품목 별도 리스트

⑧ 원시인 : 경찰교 신생님

박승호 선생님 및 설치미술 작가

음악담당 선생님

⑨

⑩

⑪

제7회 전곡구석기문화제

I. 전곡구석기문화제 사업개요

1. 신청사업명: 제7회 연천 전곡구석기문화제
2. 문화축제기간: 1999년 5월 4일 부터 99년 5월5일(어린이날)
3. 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유적 유적관련장
4. 총예산: 3,000만원

사업제목

1. 사업취지 및 목적

가족과 함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구석기유적지 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석기출토지인 전곡리유적현장에서 선사시대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여 보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며 또 한편으로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손 대대로 보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세부 사업계획

1) 행사일정: 1999년 5월 4일 부터 5월 5일

1999년 5월4일: 당사 및 전야제

한탄-일진강 유적답사
선사시대보기 계속
세계의 구석기문화특별전
특강: "어린이를 위한 고고학"

199년 5월5일: 상상과 체험의 선사문화

가. 자연의식: 하늘과 땅 그리고 신을 위한 기도와 제의

나. 상상의 선사시대

상상각: "다의 선사시대로" - - - 문명에서 자연으로.
인형극: "돌수와 선사시대인 '새우와우'의 만남" - - - 4차원의 공간 속으로.
상상화대회: 선사전시장의 생활

다. 체험, 선사시대:

선사도구제작실험: "석기를 만들자"
석기사용법실습: "맷돌지를 찧아라":석기를 사용하여 도살하고 음식을 조리
원시제전묘례: "원시인의 짓"
선사시대 집짓기: "총 스리랑 춤", 가족과 함께

라: 미래의 고고학:"뭐 더 좀자"

현대 유적과 미래고고학자의 발굴:현대의 환경이식과 미래 자손.

2. 주요행사의 내용과 목표

어리기지의 포맷을 개발하여 선사시대를 자유스럽게 상상, 복원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상상력을 높이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도록 하여 가족중심의 다양한 오락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현장하여 가족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참가대상 및 규모

유치부에서 초 중등학생 과 그 가족들
약 2,000 명 추산

4. 추진방법

1) 조직구성

주최: 연천군
연천군 문화원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후원:경기도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국농업전문경영인 전국음회
연천신문사
두산

사업진행

문화축제준정위원장 및 운영위원단: 연천군수 또는 연천문화원장
문화축제의 기준방침설정 및 추인
예산조달
주원그룹행정

문화축제집행위원장 및 집행부:
가. 프로그램기획 및 총괄
나. 섭외 및 홍보
다. 진행

자문위원단구성

2) 준비일정

1월: 프로그램확정
2월: 프로그램 준비 및 현장 정비
3월
4월:초청장 발송 및 행사준비

3) 참가자등록 및 안내방식

가. 예약제 및 자유참가
나. 참가비 무료

제2차 제7회 전곡구석기문화제 준비회의

제1차회의: 1999년 1월 일, 장소 문경읍 식당

전곡시업계획개요제시 및 방향논의
참석자: 배기동, 안승십, 임근수, 심사식, 이상섭 외

제안내용
선사시대분간방문기념 페스포트 제작
설치작품전
박시방간
백일장:200자
세미나개최
캐릭터개발

제2차 회의 토의안건

1. 대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 구성방향.
2. 후원기관추천
3. 경비운용방식
4. 준비일정
5.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6. 홍보방법 및 인원동원방향
7. 행사장준비방법

II. 소요예산내역
총예산:3,000만원

1. 인건비

출연료 인극인, 도예가, 인형극 등등 각 50만원 X 4인 200만원
진행요원수당
강사료
프로그램구성감독수당
심사료

2. 경비

가. 홍보물인쇄비
초청장
전곡유적관안내 및 전곡유적설명

나. 우편료 및 통신비

다. 전시 및 설치시설물제작비

라. 행사소품제작 및 홍보시설물 제작비

마. 회의비

운영위원회의 1회
집행위원회의 5회

바. 임대비
차량임대
전시물임대
박승수설 조명시설 임대

사. 여비

원 X 인 X 일

아. 상품구입비

자. 제료비

문구류
기타 재료

차. 경소비
카. 사진 및 영상기록제작비

3. 기타 잡비 및 예비비

전곡리구석기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안)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02-3481-6308

1. 유적개요와 현황

1978년에 발견된 이 후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반출한 전기구석기유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 최대의 전기구석기유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적이다. 전곡읍이 남북과 동북으로 연결되는 한무림과 대지 위의 퇴적층 속에서 석기들이 발견되는데, 현무암과 절대연대를 기초로 추정된 유적의 연대는 20만년 전이다. 제1차발굴 이 후에, 1979년 정부가 유적을 국가사적 268호로 지정하여 현재 약 23만평을 보존지구로 설정하여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매년 막간의 예산으로 소규모의 도지매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2차발굴에 유적발굴단사무소로 사용된 가건물 내에 전곡구석기유적관이 사립묘이 소규모의 전시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가 마련하고 있지만 극히 소략한 전시이다. 매년 5월5일 어린이날에 구석기문화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호응이 대단하여 유적의 소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문화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전적적으로는 전곡읍이 확장되어 오고 있지만 적절에 군도사적연습장이 있고 사적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는 농경지로 사용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아산이 있다.

2. 유적의 중요성

전곡리유적은 우리나라의 고고학유적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유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이 유적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도 저축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석기를 반출하는 전기구석기유적으로 기존의 모비우스교수의 세계구석기전통2분론이라는 학설을 무너뜨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구석기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불러 일으킨 유적이다.

나. 대규모의 퇴적층이 남아 있고 또한 성질난 규모의 석기들이 제집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문화 뿐 아니라 세계구석기문화의 지역적인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며,

다. 현무암이나 다른 시료들 이용하여 많은 연대가 제시되었으며, 층위의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여 당시 인류들의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구석기유적이다.

3. 보존의 문제점

가. 농경을 위한 개도제화와 기계농장으로 인하여 도랑훼손이 심하여 유적의 개형인 층위가 심하게 교란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도륙과 건축적일도 연속하여 이루어 지고 있어서 유적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유지로 제산권제약으로 인하여 민원빈발하고 있다.

다. 유적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유적의 중요성에 비하여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4. 보존 및 활용의 원칙

가. 보존과 활용의 원칙은 유적의 훼손을 극소화와 전체 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야 한다.

나.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국가소유로 바꾸어 민원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훼손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한다.

다. 사적보존과 개발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존과 활용의 실제적인 방안

가. 도지매입이 급선무인데, 전곡리 유적의 유구분포나 층위분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육안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적내에 대한 유적의 중요도에 대한 등가선 또는 등가지점을 지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보존과 개발에 관한 모든 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도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으로 한계성이 있을 시는 전체적인 유적을 보존한다는 방침아래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유적지내 토지를 소유한 개인들로서 협회체 또는 신탁을 위한 콘소시움을 만들어 협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단위가 투자를 하는데 보거 소유주는 토지로 투자를 하여 수익성이 있는 공공사업방안을 강구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도 한 방안 일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과 문화의 현장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탄강국민관광지, 휴전선자연생태, 그리고 기타의 중요 역사유적을 묶는 관광동선을 개발하여 연천과 인근지역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실

제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된다.

라. 활용방안으로 유적을 교육과 문화의 현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 중에는 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박물관의 성격은 안목의 기원, 민족의 기원 그리고 한반도 중부지방, 특히 금강산에서 강화도를 잇는 추가령 지구대의 자연사를 보여 줄 수 있는 희수한 주제의 박물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6. 활용정책시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무엇보다도 너무 제한적인 예산투자로 보존책의 수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연 1내지 2억의 예산으로는 토지매입에 시간이 너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또한 연륜이 짧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중적인 투자로 보존과 개발방안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지점의 토지매입이 박물관의 건립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적전문가가 전무하여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적인보존책뿐 아니라 제시된 보존개발방안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박물관의 건립에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여 보존책과 개발방안의 수립과 실행에 합력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와 행정담당자들로 구성된 전곡유적보존개발위원회나 전곡구석기박물관 건립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7회 全谷 IR 전곡 文化祭 行事 企畫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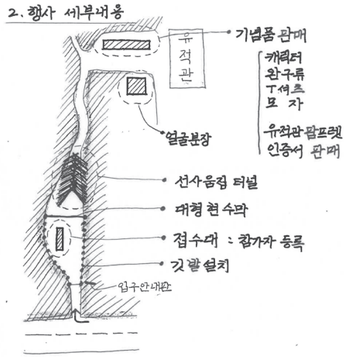
1. 행사 일정 세부계획

1999년 5월 5일 (수) 어린이날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00 ~ 10:00	'전곡원시인 마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접수 및 염원의 리본 달기	-원시음악을 통과. 현대인의 원시인화.
10:00 ~ 10:30	개 막 식 개막선언. 인사. 행사소개. 설치작품전 오픈	집행위원 소개 및 설치작가 소개
10:30 ~ 10:50	자연의식 하늘과 땅 그리고 신을 위한 기도와 제의	-원시인: 배우 정환교
10:50 ~ 11:20	상상극 : '나의 선사시대로' 인형극 : '철수와 -원돌이' — 4차원 공간 속으로 —	환경처 문화인류학과 자연문 인형극단 -원돌이: 원시인 캐릭터
11:20 ~ 13:50	• 원시생활체험 프로그램 각코스별실시 1. 불지핌코스 2. 석기 제작 코스 3. 석기 사용코스 4. 토기 제작 코스 5. 선사-움집 복원코스 6. 원시패션복원코스 7. 가상-유적 탐굴 코스 각코스별 인증서 수여	각코스별 시범자 2인 보조자 2인 인증서 날인 1명
	• 상상화 그리기 대회 : 선사전곡사람과 생활 • 토우 만들기 대회 : 〃 • 미스, 미스터 원시인 선발대회 본장	지정토

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50 ~ 15:00	미스. 미스터 원시인 선발대회	13:50~14:40 상상화. 토우 심사 14:40~15:00 상장제작
15:00 ~ 16:00	상상화 그리기대회 시 상 식 토우 만들기 대회 시 상 식 폐 막 식	

2. 행사 세부내용



• 선사움집 터널

"전곡 원시인 마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움집입구에서 • 원시인이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움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한다 (프로 원시인 2명)

• 이때 녹음이 나온다

녹음 : "현대인 여러분, 전곡원시인 마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원시인과 함께 불도 피우구, 돌도끼도 만들구, 우리가 살집두 지어 봐요, 그리구 우리가 만든 돌도끼루 사냥을 해서 고기두 구워먹구, 곡식두 갈아 먹어봐요. 오늘 하루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전곡원시인과 함께 즐겁게 놀다 가세요." (계속 반복)

• 원시인이 참가자들의 가방을 들어주며 행사장입구까지 반갑게 안내한다. 이를 반복한다 (아마 원시인 4명)

• 집행위원 : 가슴표찰

• 진행요원 : 유니폼

• 프로원시인 2명, 초돌이. 곰순이. 토순이. 원돌이 등 Polaroid 사진등 기념촬영用 (X48)

• 행사의 내용 각코스별 안내판및 설명서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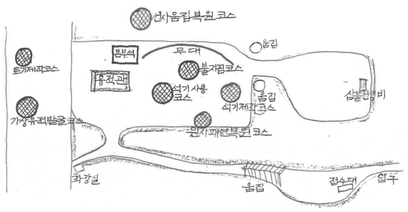
• 가족用 쉼터 : 나무숲에 차광막 설치

• 행사장 - 유도 도로안내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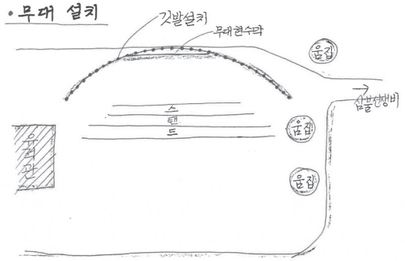
동두천 → 전곡입구 → 행사장

10km, 5km, 1km, 300m

• 원사생활체험 프로그램 별 각 코스



• 무대 설치



대나무 (m) 개
(m) 개
리 본 (x cm) 개
끈 (m) 개

나무리본 (x cm) 개
염원의리본 (x cm) 개
무대바닥천 m 개
스탠드 줄

3. 전곡구석기 문화제 로고 및 심볼. 캐릭터

1) 제작자 : 임근우 화백 (화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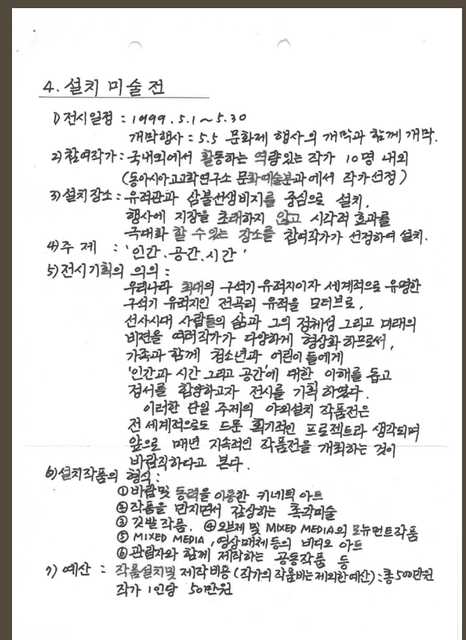
2) 제작기간 : 99. 2. 28 까지

3) 사용처 : 행사용 공문서 및 팜프렛, 행사장 내외 휘장. 기념품 제작 및 인쇄 기타

4) 심볼 및 캐릭터의 이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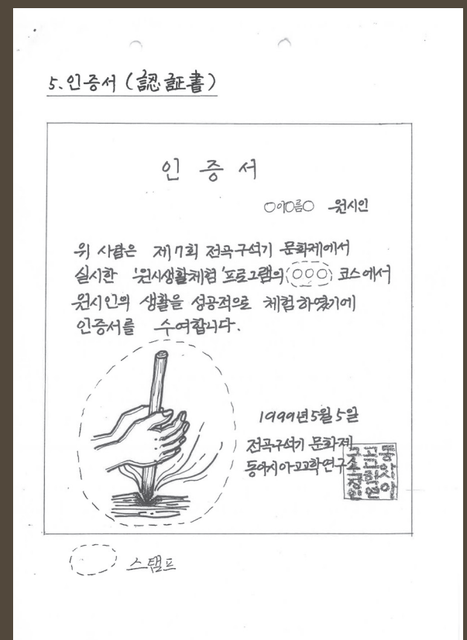
전곡 구석기인의 생활상과 자연을 고증하여 현대인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꼬마 원시인 '원돌이'.

표정묘사 : ① 순수한 마음씨
② 전곡의 자연과 동화하는 원시인
③ 지혜로운 도구사용인
④ 부지런한 생활인
⑤ 용감한 원시인
⑥ 의살스런 꼬마 원시인



4. 설치 미술 전

1) 전시일정 : 1999. 5.1 ~ 5.30
개막행사 : 5.5 문화제 행사의 개막과 함께 개막.
2) 참여작가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작가 10명 내외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문화예술분과에서 작가선정)
3) 설치장소 : 유적관과 삼불선생비지를 중심으로 설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참여작가가 선정하여 설치.
4) 주 제 : '인간.공간.시간'
5) 전시기획의 의의 :
우리나라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석기 유적지인 전곡리 유적을 모티브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그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여러작가가 다양하게 형상화 함으로서,
가족과 함께 청소년과 어린이 들에게
'인간과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서를 함양하고자 전시를 기획 하였다.
이러한 단일 주제의 야외설치 작품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획기적인 프로젝트라 생각되며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작품전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설치작품의 형식 :
① 바람및 동력을 이용한 키네틱 아트
② 작품을 만지면서 감상하는 촉각미술
③ 깃발 작품. ④ 오브제 및 MIXED MEDIA의 모뉴먼트작품
⑤ MIXED MEDIA, 영상매체 등의 비디오 아트
⑥ 관람자와 함께 제작하는 공용작품 등
7) 예산 : 작품설치및 제작비용 (작가의 작품비는 제외한 예산) : 총 5백만원
작가 1인당 50만원



5. 인증서 (認証書)

인 증 서

○이○용○ 원시인

위 사람은 제17회 전곡구석기 문화제에서
실시한 '원시생활체험' 프로그램의 (○○○) 코스에서
원시인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체험하였기에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1999년 5월 5일
전곡구석기 문화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사장

스탬프

제8회 문화 축제

8회 축제는 연천군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전곡리 축제는 전곡리 유적을 조사·연구한 학계에서 시작되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해왔다. 전곡리 유적의 브랜드와 축제의 가치를 알아본 연천군은 8회를 연천문화원과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부제를 '새천년 제1의 구석기 문화의 보고'로 잡고 기존의 행사와 체험을 비롯, 연천군 관광 명소와의 연계를 추진했다. 다만 기존 문화제가 가진 선사축제로서의 콘텐츠가 8회에서는 부족하여 축제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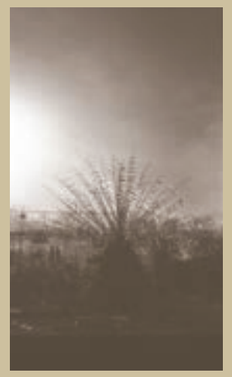
일시 : 2000.05.05
주제 : 무제
주최 : 연천군, 연천문화원
비고 : 연천군 단독 개최

036

전곡 구석기 문화 축제_8회

주최기구의 변화와
연천 지역축제로서의
양적 성장

2001



2010

이 시기의 축제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연천군과의 공동개최로 축제의 외연이 크게 확장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축제로 성장하였다. 동시에 선사콘텐츠에 집중되었던 초기 축제와 달리 축제의 한 분야로서 선사 프로그램이 인식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사체험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계 구석기 기관이나 유적과의 교류를 본격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9회 구석기 문화제

9회 축제는 연천군이 주최하고 학계와 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연천문화원과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원시 전곡 여행"이란 주제로 기본 구성은 전야제와 본 축제로 나누어졌으며 내용은 7회와 유사하였다.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은 석기 교실 6개 코스, 움집 짓기 교실, 가상 발굴 교실 등으로 보다 전문화 되었다. 카퍼레이드나 합창단, 무용 등의 공연 외 원시인 관련 이벤트가 중심인 원시-현대 만남의 장이라는 행사가 더해졌다.

2001년 축제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예술과 고고학의 만남인 전곡포럼의 전시회 개최다. 축제 초기부터 진행되었던 전곡포럼 프로젝트인 <전곡포럼 프로젝트III>로 전곡 구석기 설치 미술제가 '접속-전곡리안'이란 이름으로 열렸다(9월 16~10.31). 고고학과 전곡리 유적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 27명과 4개 대학팀이 참여하여 설치미술, 퍼포먼스를 전곡리 유적지와 전곡역 광장, 전곡 읍민회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과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에서 진행했다.

일시 : 2001.05.04~05.05
주제 : 원시 전곡 여행
주최 : 연천군, 전곡리구석기 문화제추진위원회, 연천문화원,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비고 : 학계·예술계 전문가 집단 축제 중장기 발전 계획 도모

03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축제

038

전곡 구석기 문화제 축제

039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9회

040

전곡 구석기 문화제 초대장_9회

041

석기 되맞추기

042

돼지 해체

043

가상발굴

044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045

원시 마라톤 참가자

046

블랙홀 무대 공연

제10회 구석기 문화제

10회 축제는 경기도 지정축제로 지정,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5월 4일 전야제와 5월 5일 본 축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축제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던 시기다. 연예인의 축하공연, 불꽃놀이, 레이저쇼, 영화 상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원시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의 본 축제에서는 원시 공연마당, 원시 체험마당, 원시 놀이마당으로 프로그램이 분류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별행사로는 전곡리 구석기유적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유적관은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종합 정비 조성 사업 계획>에 의거해 전곡구석기 박물관을 짓기에 앞서 기존의 구 유적관을 이전 확장해 개관하게 되었다. 그 외 사진전, 산책코스, 궁도대회 등이 부대행사로 열렸다. 연천군의 주최로 축제가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에 연천군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일시 : 2002.05.04~05.05
주제 : 원시세계 속으로
주최 : 연천군, 전곡리구석기 문화제추진위원회, 연천문화원,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비고 : 경기도 지정 축제

049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10회

04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048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050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051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개관식

052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안내지

053

전곡 구석기 문화제 초대장_10회

제11회 구석기 축제

11회 축제부터 축제 기간이 3일로 늘어났다. 전야제는 5월 3일, 본 축제는 5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11회에서는 크게 공연행사와 상설체험 행사 등으로 축제의 코너를 구성하였다. 전야제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본 축제에서는 기존의 군악대 공연이나 구석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1회 때부터 축제의 중요한 콘텐츠였던 선사 체험코너와 프로그램은 '어린이 선사고고학 개론 <구석기 체험스쿨" >' 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선사 종합축제를 지향하면서 연계 기획전도 열렸다. '세계 인류 기원전 ORIGINS'를 통해 인류 진화의 역사를 고인류, 석기, 선사 예술, 발굴조사 등의 주제와 연계하여 풀어냈다.

일시 : 2003.05.03~05.05
주제 : 즐거운 구석기체험
주최 : 연천군,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축제교육프로그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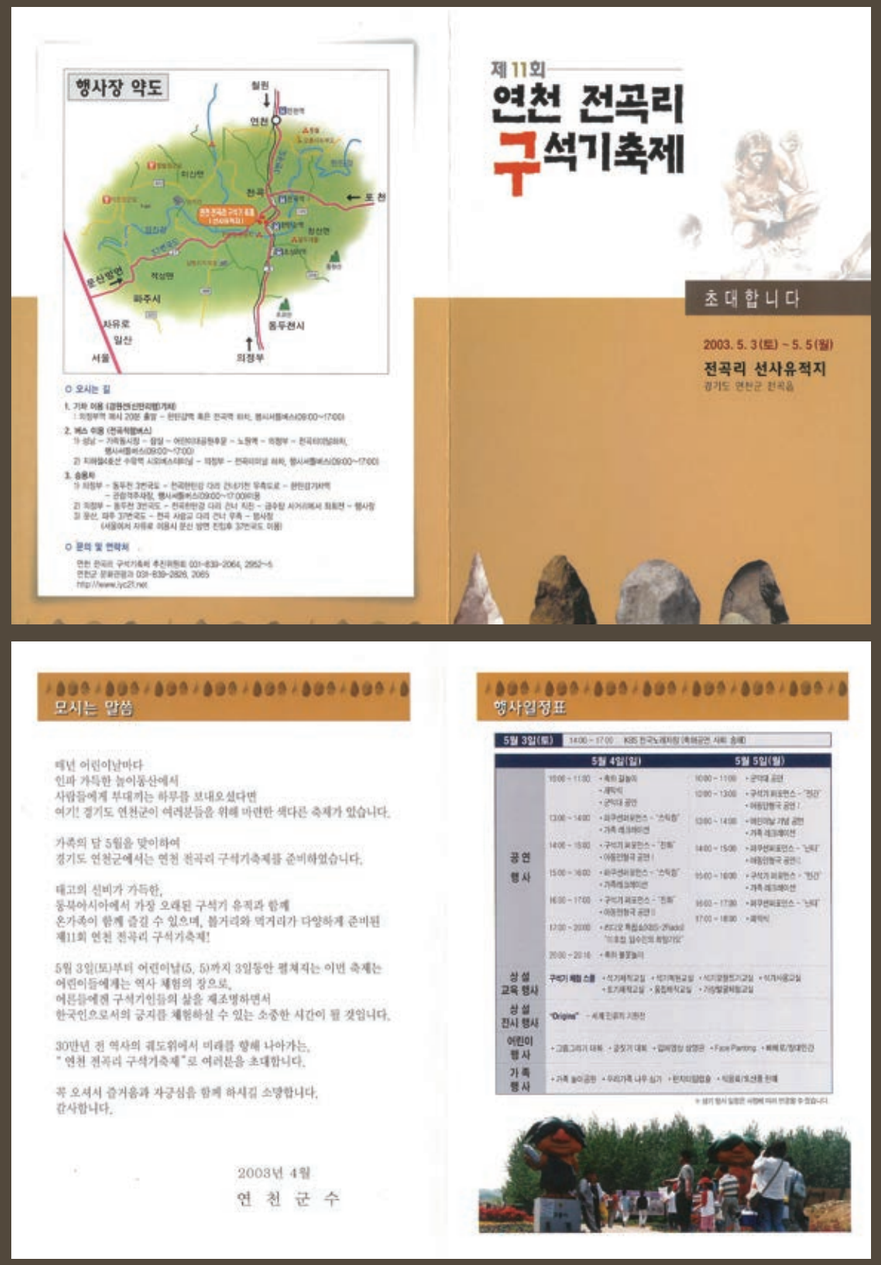
054

축제 준비 모습_11회

055

시간의 타워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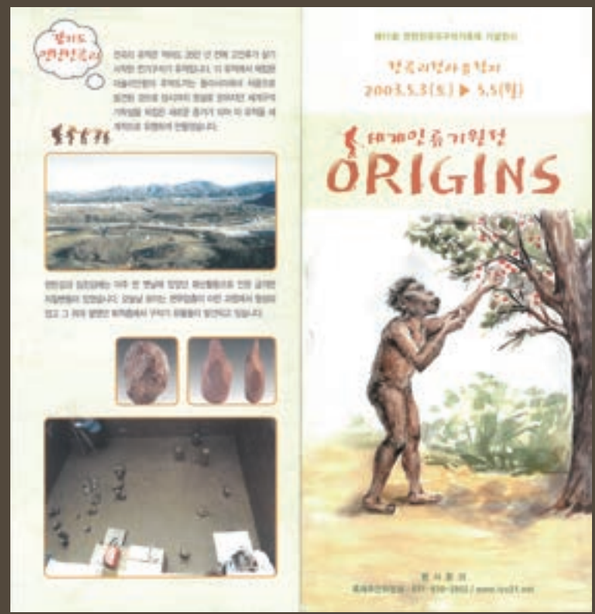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11회

057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11회

058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1회

059

돼지 해체

060

석기 만들기

061

토기 만들기

제12회 구석기 축제

12회 축제부터는 축제 기간이 더욱 늘어났다. 1회 때 5월 5일 하루였던 행사는 4회부터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다 11회부터 3일로 늘었던 것이 12회부터는 전야제를 포함하여 총 5일간 진행되는 축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11회의 '구석기 체험스쿨'은 '구석기 체험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교 수업처럼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으로 뗀석기 제작과 사용, 뗀석기 복원과 실측,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움직 만들기, 가상 발굴 교실로 구성되었다. 연계 전시로 <세계의 구석기 유적 대륙 횡단> 전을 개최, 세계사적 관점에서 구석기 유적과 문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일시 : 2004.05.01~05.05
주제 : 손으로 만지는 구석기
주최 : 연천군,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비고 :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전곡리체험스쿨 확대개최, 연천군 축제 대형화 시도

062

한미 합동 군악연주회

063

석기모형 교실 대기 모습

064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2회

065

가상발굴

066

석기 만들기

067

돼지 해체

068

막집 짓기

제13회 구석기 축제

13회 축제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고 문화관광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등 후원처가 증가하면서 축제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축제는 구석기 체험마당, 연천문화마당, 가족놀이마당, 전곡리 안마당 등 크게 4개의 마당으로 구분되었다. 축제장에는 구석기 무대가 설치되어 다양한 공연이 축제기간 계속 진행되었다. 구석기체험 학교가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행사가 커지면서 연천군 관광자원 콘텐츠가 강화되고 무용, 연예인이나 군악대 연주 등 공연이 증가했다. 한편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석기 학술포럼, 전곡리 유적 발견자인 그렉 보웬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선사축제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했다.

일시 : 2005.05.04~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069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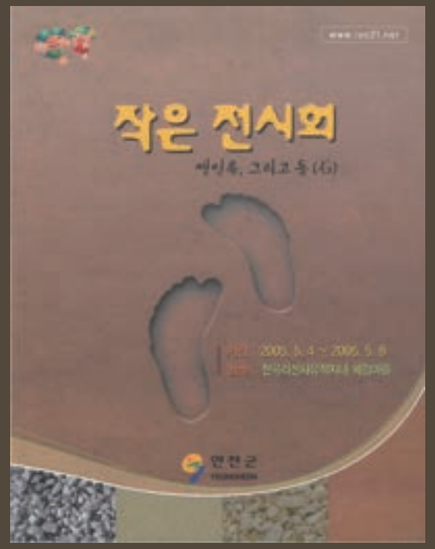
070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학교 수업 모습

071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3회

072



전곡 구석기 축제 작은 전시회 안내지

073

구석기 체험학교 활동지_13회

074

석기만들기

075

석기 사용 체험

076

돼지 해체

제14회 구석기 축제

선사문화 콘텐츠를 가진 지역 종합 축제로 발전하면서 14회 축제도 13회 축제와 구성은 비슷했다. 상설행사로서 구석기 체험마당에서의 선사체험학교와 파크 등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전곡리 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속되어 토층 전시관 전시와 발굴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등 구석기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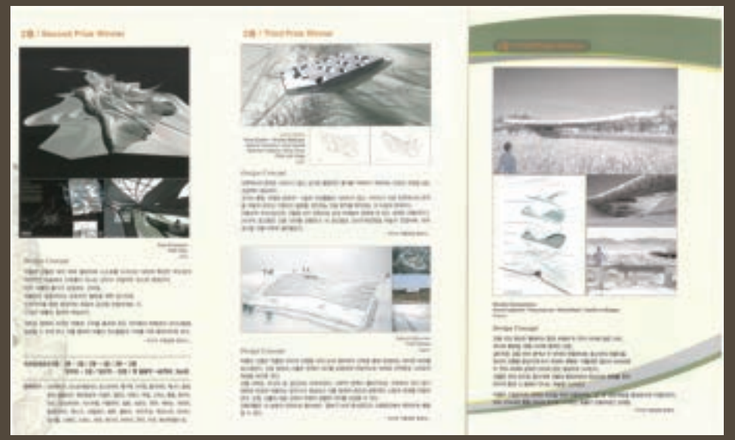
특히 14회 축제장에서는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경기도 박물관 내 전곡선사박물관 건립팀이 조직되면서 전곡선사박물관은 2008년 착공, 2009년 준공한다는 계획 아래 국제설계공모를 2006년 3월 시행했다. 축제 기간 전시에서는 총 출품 48개국 346점 중에서 1등 선정작인 Nicolas Desmazieres와 Anouk Legendre의 작품 외에 입선자까지 총 40점이 공개되었다.

일시 : 2006.05.04~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07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4회

078



국제설계공모 작품전시회

079

가상발굴

080

석기 만들기

081

돼지 해체

082

선사 체험 학교1

083

선사 체험 학교2

084

선사 체험 학교3

제15회 구석기 축제

15회 축제도 '전곡리안의 숨소리'라는 주제로 열렸고 축제의 구성도 이전 축제와 유사하다. 구석기 체험 스쿨은 단체나 개인이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수업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참가 아동들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석기 · 조개장신구 · 토기 · 움집 만들기와 가상 발굴 교실을 참석하여 발굴일지를 작성하고 도장과 수료증을 받으며 수업을 끝냈다.

일시 : 2007.05.04~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085

구석기 축제 체험스쿨 운영자들

086

구석기 체험스쿨

08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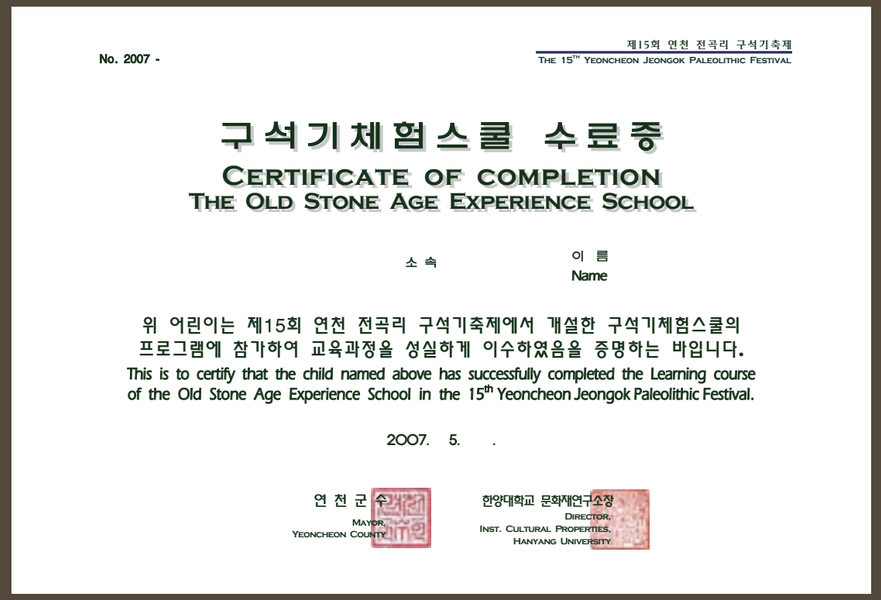
088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5회

089

구석기 체험스쿨 표지

090



No. 2007 -

제15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THE 15TH YEONCHEON JEONGOK PALEOLITHIC FESTIVAL

구석기체험스쿨 수료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THE OLD STONE AGE EXPERIENCE SCHOOL

소 속 이 름
Name

위 어린이는 제15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개설한 구석기체험스쿨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hild named abov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Learning course of the Old Stone Age Experience School in the 15th Yeoncheon Jeongok Paleolithic Festival.

2007. 5. .

연 천 군 수
MAYOR, YEONCHEON COUNTY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장
DIRECTOR, INST. CULTURAL PROPERTIES, HANYANG UNIVERSITY

구석기 체험스쿨 수료증

091

구석기 체험스쿨1

092

구석기 체험스쿨2

제16회 구석기 축제

15회에 이어 16회 축제도 대한민국 문화 관광 우수축제로 선정, 진행되었다. 축제의 기본 프로그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선사체험의 경우, 기존 선사체험학교를 재정비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워크북을 새로이 만들었고 제목도 '전곡리 고고학 아카데미'로 바꾸었다. 워크북에서는 새로이 고고학 개론을 추가하여 전곡리 유적과 고고학, 고고학자, 지구의 역사에 대해 다루었고 표본체험으로서 고환경과 인류의 관계를 다루어 보다 체계적으로 고고학과 구석기시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현장체험에서는 유적의 형성과 고고학 조사체험이란 주제를 다루었다. 이 워크북은 구석기 유적과 유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어야 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한 본보기라고 하겠다.

일시 : 2008.05.02~05.06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093

동물·식물·암석·화석 관찰교실1

094

동물·식물·암석·화석 관찰 교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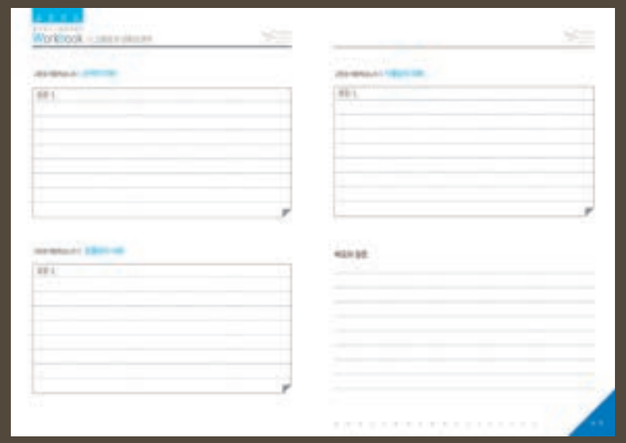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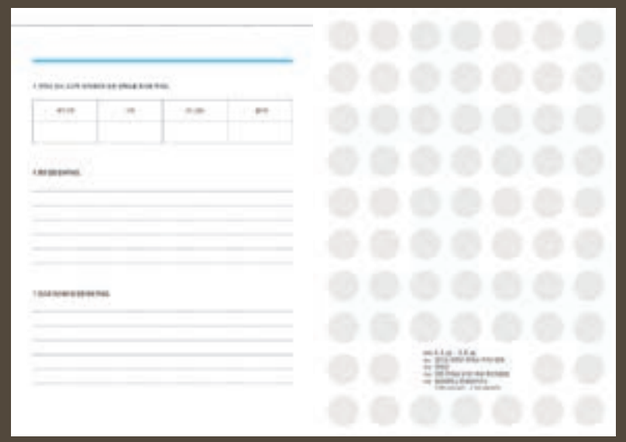
고고학아카데미 홍보

096

축제 홍보물_16회

고고학아카데미 워크북





제17회 구석기 축제

17회 축제에서도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각종 공연과 콘서트가 계속되었고 연천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관, 관광투어, 기념품 판매, 연천 문인작품 전시장, 축제음식점 등이 운영되었다.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사축제 본연의 고고학 콘텐츠는 축제의 한 분야로 인식된 경향도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회 축제에서는 제1회 선사유적 국제교류전을 개최,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유적, 일본 니죠산 박물관과 이와주쿠 박물관 팀이 참석하였다.

일시 : 2009.05.01~05.05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제1회 선사유적 국제교류전과 워크숍

098

원시인 퍼포머 정찬교와 어린이

099

축제 홍보물_17회

제18회 구석기 축제

18회 축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 관광 우수 축제이자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축제의 기본 기조는 동일하였는데 선사 콘텐츠의 국제 교류가 강화되었다. 제3회 선사체험 국제교류전에서는 17회 참가 기관 외에도 유럽 4개국,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각 1개국, 아시아 6개국과 협조하여 각종 선사 기술 시연과 유적박물관과 문화유산 체험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일시 : 2010.10.29.~11.02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00

구석기축제 안내지_18회

101

구석기축제 포스터_18회

102

체험 교육 특별전 안내지

전곡리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학습지

세계적인
문화유산 축제로의
안착과 성장

2011

2022

전곡리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구석기축제는 그 노력의 결실로 전곡선사박물관 2011년 개관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세계 구석기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축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대면형 축제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개된 축제에서는 선사콘텐츠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제19회 구석기 축제

2011년 4월 25일에 전곡선사박물관이 개관하였다. 19회 축제에서는 박물관의 홍보와 연계 관람도 진행되었다. 축제장은 환영 · 공연 · 체험 · 연천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선사 국제 교류전에서는 13개국이 참가한 선사체험 박람회가 열렸고 제3회 국제 워크숍에서는 총 1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고고유산교육 협회가 창립되기도 했다. 축제의 인기코너 구석기 바비큐도 최대 200여명이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 화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 2011.05.04.~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전곡선사박물관 개관, 제3회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104

축제 참가자들

105

원시인 퍼포먼스

106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9회

107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9회

제20회 구석기 축제

20회 축제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선사 콘텐츠의 강화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선사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세계 구석기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었다. 초기부터 이어져 온 체험학교인 <전곡리 고고학 아카데미>의 워크북도 보다 핸디해지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이 중심된 편집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일시 : 2012.05.04~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제4회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108

불피우기 시연_스페인

109

전곡리 고고학 아카데미 부스

110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수업모습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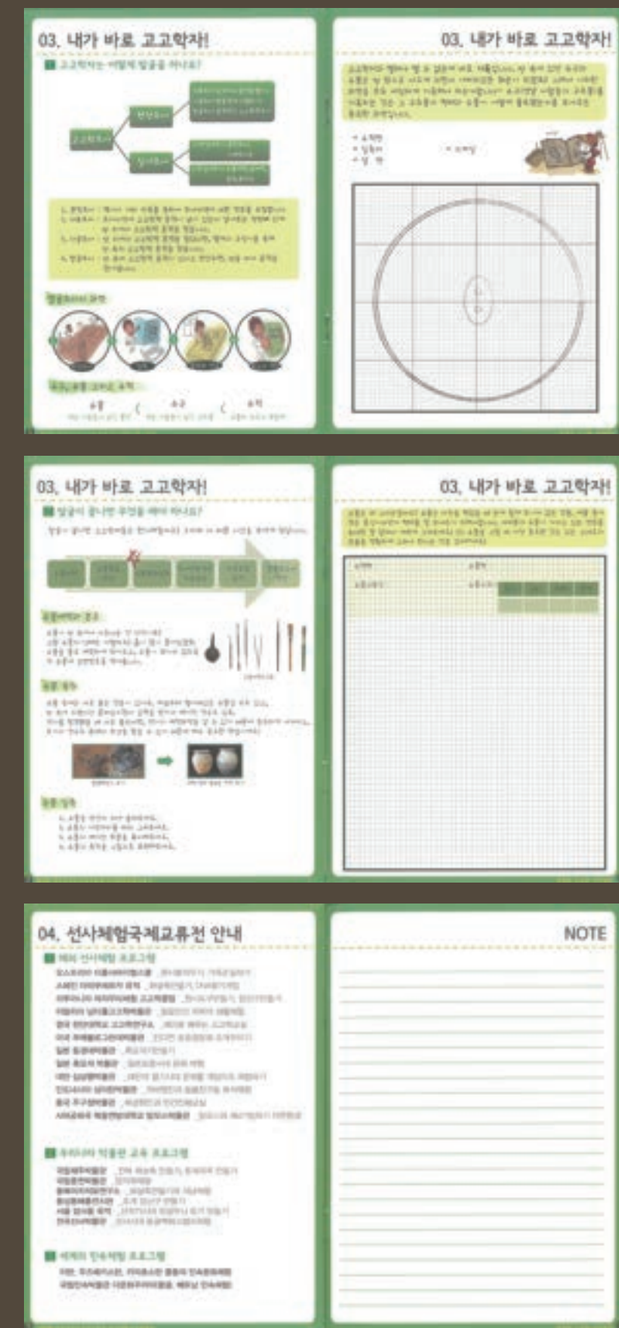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0회

112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안내지_4회(3회는 오기 인쇄)

113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지_20회



제21회 구석기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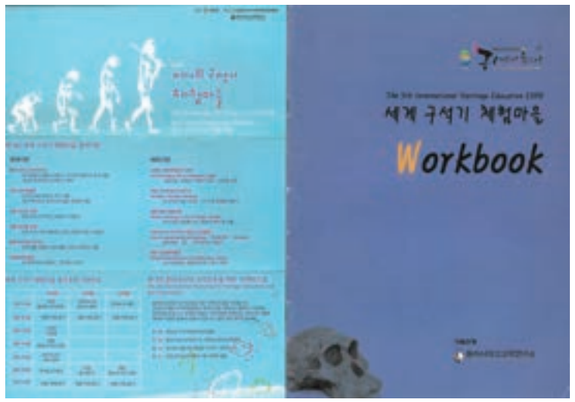
21회 축제도 환영 · 소개 · 체험 · 연천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연천군 농촌체험마을도 함께 운영하여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하였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자 선사체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세계 구석기 체험 마을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시대를 넓혀 국내 6개 기관, 해외 5개 기관이 참가하여 선사 기술을 시연하고 참여자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유산과 유적 보존을 위한 국제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일시 : 2013.05.03~05.05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제5회 세계구석기체험마을 (명칭변경)

114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1회

115



전곡 구석기 축제 활동지_21회

116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1회

제22회 구석기 축제

22회 축제는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나 '요상한 호박세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은 6회째 진행하였고 11개의 국내외 부스가 운영되었고 10개 주제의 국제 워크숍도 계속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체험교육에 대해 배기동 교수가 발표하였고 그 외 영국, 호주, 일본, 대만, 이탈리아, 독일과 한국에서 고고유적 기반의 박물관 활동과 선사체험교육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시 : 2014.10.31~11.2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비고 : 문화유산과 유적보존을 위한 국제 워크숍

117

입구 관람객

118

구석기 축제장 입구 모습

119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2회

120

전곡 구석기 축제 농특산물 큰장터 포스터_22회

12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포스터

122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123

나무 막집 짓기

124

바비큐 체험

제23회 구석기 축제

23회 축제도 이전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여마당에서는 구석기 전곡리안 선발대회, 선사 요리 대결 등이 열렸고 체험마당을 중심으로 세계구석기체험마을과 구석기 바비큐가 진행되었다. 23회 축제에는 대만 십삼행박물관, 오스트리아 티롤서바이벌 스쿨, 일본 동북예술대학, 말레이시아 렝공계고고유산, 리투아니아 파자우타 체험고고학클럽 등이 참여하였다. 축제기간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무료관람을 진행했고 국제 학술 워크숍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일시 : 2015.05.01~05.05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25

축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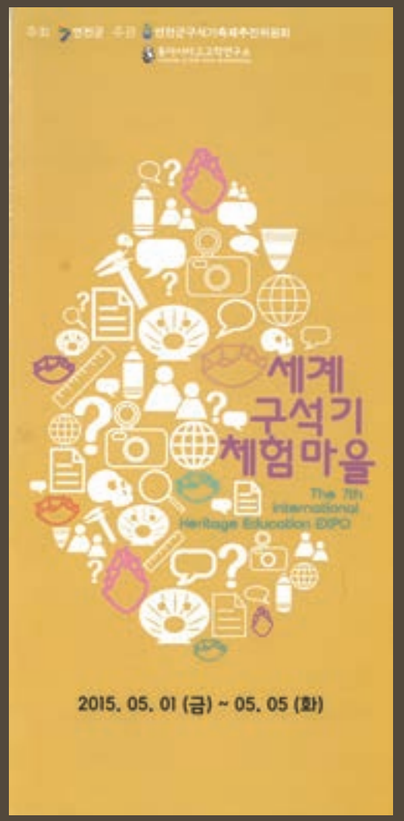
126

바비큐 체험

12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3회

128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129

구석기 축제 안내지_23회

130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1

13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2

제24회 구석기 축제

2016년 연천군운 구석기축제 이외에 DMZ국제음악제(7월),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8월), 연천읍 코스코스 축제(9월), 고려문화제(10월) 등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였다. 가장 규모가 크고 관람객 유입이 많은 구석기축제에서 위 축제들을 홍보하였다. 구석기축제에서는 이전과 프로그램이 유사하긴 하지만 인기가 많은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구석기 둘레길 등산이나 전곡선사박물관, 전곡리 유적 발굴피트, 토층전시관 등 연계 공간을 활용하였다.

일시 : 2016.05.05~05.08
주제 : 전곡리안의 숨소리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32

축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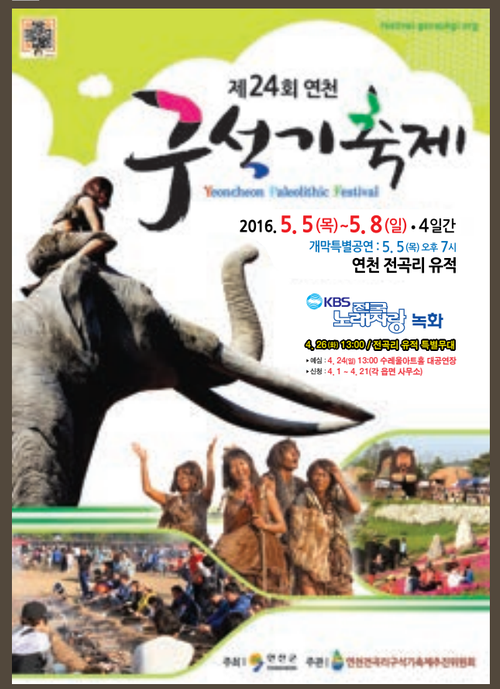
133

축제 퍼레이드

134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4회

135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4회

136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24회

137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138

구석기 축제 개막

제25회 구석기 축제

25회 축제를 맞아 전곡리 유적의 역사를 정리한 전곡리 축제 자료집이 발간되었고 전곡선사박물관과 연계한 무료관람과 더불어 25주년 기념전 <구석기 비너스가 부르는 노래>도 축제 기간 문을 열었다. 25회 축제는 체험마당, 전시마당, 연천마당과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25주년을 맞아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은 선사 작업실, 선사 놀이터, 선사 사냥터, 선사미술관, 전곡리안 대회, 고고학 아카데미 같은 심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선사 전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일시 : 2017.05.03~05.07
주제 : 너도?나도! 전곡리안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39

축제장 전경

140

원시인 퍼포먼스

141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5회

142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5회

143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144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각국 참가자

제26회 구석기 축제

26회 축제 프로그램의 특성을 유지한 26회 축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주제의 선사체험과 세계 여러 나라 유적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일 에센바흐 박물관, 포르투갈 테아에메모리아 연구소, 인도 샤르마 문화유산 교육센터, 프랑스 쇼베 퐁다크 동굴유적, 칠레 몬테베르데 유적, 영국 런던박물관, 탄자이나 올두바이 유적 등 세계 선사 기관의 협력망을 확대, 운영하였다.

일시 : 2018.05.04~05.07
주제 : 너도?나도! 전곡리안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45

돼지 해체

146

석기 만들기_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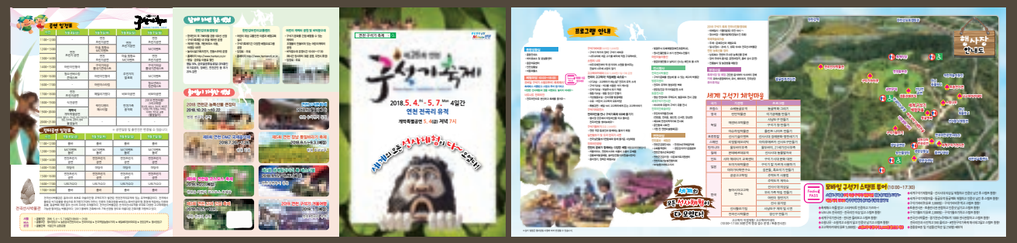
14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6회

148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149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6회

제27회 구석기 축제

27회 축제에서는 구석기 공연마당, 구석기 가족마당, 세계구석기 체험마당, 장터마당으로 공간을 구성, 각종 프로그램 및 공연과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고고학 아카데미는 토층 전시관과 함께 가족마당에서 진행되었고 세계구석기 체험마당에는 8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전시프로그램으로는 전곡선사박물관을 비롯, 전곡리 유적지 내의 방문자 센터, 토층 전시관, 발굴 피트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이 운영되었다.

일시 : 2019.05.03~05.06
주제 : 너도?나도! 전곡리안
주최 : 연천군·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50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독일

15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일본

152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프랑스

153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포르투칼

154

세계 체험마을 안내지

155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7회

156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7회

157

연천 구석기 축제 안내지_27회

제28회 구석기 축제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축제가 취소되었고 2021년에도 축제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축제를 상설화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전곡리 유적 구석기 체험 숲에서의 1박2일 캠프, 한탄강 트레킹, 재인폭포에서의 사진 이벤트, 전곡시장에서의 7080 뉴트로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시 : 2021.05~05.10
주제 : 전곡리안의 나들이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58

연천 전곡에서 만나는 5월의 시간여행 포스터

제29회 구석기 축제

29회 축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10월에 개최하였다. 이전과 달리 코로나 여파로 공연이나 행사가 크게 축소되면서 오히려 선사 콘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축제였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너도나도 전곡리안 같은 구석기사람처럼 꾸미기나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과 구석기 바비큐가 진행되었다. 특히 3년 만에 열린 세계구석기 체험마당에서는 한국을 포함 6개국이 참가하여 선사시대 옷, 돌도끼와 돌 화살촉 체험 등 다양한 기술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일시 : 2022.10.07.~10.10
주제 : 전곡리안 시그널, 순수의 시대
주최 : 연천군 ·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159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_한국

160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 주먹도끼 제작시연

161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_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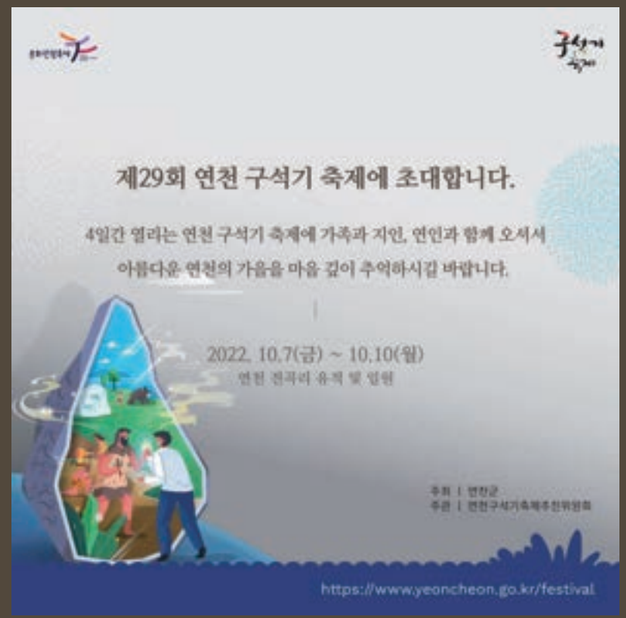
162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 토기 만들기

163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9회

164



연천 구석기 축제 초대장_29회

165

연천 구석기 축제 안내지_29회

166

연천 구석기 축제 프로그램 소개_29회

맺음말

지난 2021년은 전곡선사박물관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그해 기획전으로 그간의 수집소장품으로 만든 <오! 구석기>와 틈새전으로 <10개의 물건, 10개의 이야기>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두 전시의 담당자로서 <오! 구석기>는 관람객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하여 전곡의 콘텐츠를 보여 드리고자 했고, <10개의 물건, 10개의 이야기>에서는 오늘날 전곡선사박물관이 있기까지 이곳을 거쳐 간 인적자원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가장 먼저 한 일은 박물관의 수집품, 소장품, 행사 자료 등 아카이브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틈새전과 연계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기획해 가장 먼저 초대 관장님인 배기동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박물관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초대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박물관이 문을 연 건 10년 전이지만 사실상 박물관은 구석기 문화제가 시작된 1993년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축제에서 선보였던 다양한 콘텐츠의 확장판이 전곡선사박물관의 콘텐츠인 겁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도 전곡선사박물관의 교육에 남아 있고 예술과 고고학을 접목한 '전곡포럼' 같은 여러 시도는 박물관 야외의 조각 작업과 <예술과 고고학> 전시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축제가 커지면서 시작된 전야제의 강연과 세계 선사인의 모임은 심포지엄으로, 여러 주제의 축제 속 전시들은 오늘날 전곡선사박물관의 기획전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를 주관하는 연천군에서도 축제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도 이번 기회에 축제 초기부터의 관련 아카이브를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2022년은 전곡리축제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관 10주년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과 함께 구석기 축제 시작 30년을 기념하고자 박물관에서 작은 교육 체험전 <선사꾸러기의 방>을 열게 되었는데 우선 여기서 지난 30년의 축제 역사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는 2022년 올해 29회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면서 개최되지 않아 올해가 30주년이지만 30회는 2023년에 예정된 상태였죠.

이 아카이브 집은 이 전시를 기점으로 수집한 전곡리 구석기 축제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자료는 전곡리 축제 1회부터 29회까지의 초대장, 포스터, 안내지, 활동지 그리고 축제 기획 단계의 회의 문서 등을 대상으로 수집했습니다. 수집 작업은 축제 특히 구석기 체험마을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동아시아 고고학연구소의 김영연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자료를 찾고 검토하면서 제일 좋았던 순간은 초창기의 축제 자료를 확인하던 순간입니다. 색이 바래고 있는 초기 자료에는 이 중요한 유적을 알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인쇄된 당시의 결과물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사꾸러기의 방_전경 1

선사꾸러기의 방_전경 2

만들까,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카이브 집은 방대하다면 방대하지만 축제의 모든 자료를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거나 찾지 못한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아카이브 집 속에 실린 여러 인쇄물과 사진을 보시면서 숨겨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실린 배기동 관장님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시절의 치열함과 열정이 반짝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선구안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쌓아 올린 치열한 열정이 빚어낸 전곡선사박물관. 부족하나마 이 책이 그 태동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길 바라봅니다.

김소영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도판목록

번호	도판명칭	쪽번호	유형
001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막식	p. 034	인화사진
002	축제 음식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	p. 034	인화사진
003	전곡 구석기 유적관 안내지	p. 035	실물자료
004	축제기록 _ 1회	p. 037~040	실물자료
005	하늘과 땅에 올리는 고사	p. 040	인화사진
006	고사를 지내고 제문을 불태우는 배기동 소장	p. 040	인화사진
007	원시인 상상화 그리기 대회 출품작	p. 040	인화사진
008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소식지 제1호(1994)에 실린 제1회 구석기문화제 소식	p. 041	실물자료
009	무세중 선생의 퍼포먼스 모습	p. 042	인화사진
010	삼불 김원용 선생 추모비 앞	p. 042	인화사진
011	전곡리유적관 개관1주년 기념 축제 안내지	p. 043	실물자료
012	축제기록 _ 2회	p. 044~045	실물자료
013	돼지 해체	p. 046	인화사진
014	바비큐 조리	p. 046	인화사진
015	석기만들기 시범	p. 046	인화사진
016	3회 축제를 운영한 사람들	p. 046	인화사진
01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3회	p. 047	실물자료
018	축제기록_3회	p. 048~049	실물자료
019	불 피우기 체험	p. 050	인화사진
020	자연과 시간의 신을 위한 제사	p. 050	인화사진
021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4회	p. 051	실물자료
022	축제기록_4회	p. 052~053	실물자료
023	사생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p. 054	인화사진
024	시간의 타워_임근우 작품	p. 054	인화사진
025	가상 유적 발굴	p. 055	인화사진
026	원시인 퍼포머(정찬교)와 참여자들	p. 055	인화사진
02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5회	p. 056	실물자료
028	축제기록_5회	p. 057~059	실물자료
029	전시관 관람 모습	p. 060	인화사진
030	돼지 해체	p. 061	인화사진
031	시간의 타워 조형물과 제작자 임근우	p. 061	인화사진
032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6회	p. 062	실물자료
033	축제기록_6회	p. 063~064	실물자료
034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7회	p. 065	실물자료
035	축제기록_6회	p. 066~072	실물자료
036	전곡 구석기 문화 축제_8회	p. 073	실물자료
03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축제	p. 076	인화사진
038	전곡 구석기 문화제 축제	p. 076	인화사진
039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9회	p. 077	실물자료
040	전곡 구석기 문화제 초대장_9회	p. 078	실물자료
041	석기 되맞추기	p. 078	인화사진
042	돼지 해체	p. 078	인화사진
043	가상발굴	p. 078	인화사진
044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p. 079	인화사진
045	원시 마라톤 참가자	p. 079	인화사진
046	블랙홀 무대 공연	p. 079	인화사진
047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p. 080	인화사진
048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p. 080	인화사진
049	전곡 구석기 문화제 안내지_10회	p. 081	실물자료
050	전곡 구석기 문화제 원시 체험교실	p. 081	인화사진
051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개관식	p. 081	인화사진
052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안내지	p. 082	실물자료
053	전곡 구석기 문화제 초대장_10회	p. 083	실물자료
054	축제 준비 모습_11회	p. 084	인화사진
055	시간의 타워	p. 084	인화사진
056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11회	p. 085	실물자료
057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11회	p. 086	실물자료
058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1회	p. 086	실물자료
059	돼지 해체	p. 087	인화사진

번호	도판명칭	쪽번호	유형
060	석기 만들기	p. 087	인화사진
061	토기 만들기	p. 087	인화사진
062	한미 합동 군악연주회	p. 088	인화사진
063	석기모형 교실 대기 모습	p. 088	인화사진
064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2회	p. 089	실물자료
065	가상발굴	p. 090	인화사진
066	석기 만들기	p. 090	인화사진
067	돼지 해체	p. 091	인화사진
068	막집 짓기	p. 091	인화사진
069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학교	p. 092	인화사진
070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학교 수업 모습	p. 092	인화사진
071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3회	p. 093	실물자료
072	전곡 구석기 축제 작은 전시회 안내지	p. 093	실물자료
073	구석기 체험학교 활동지_13회	p. 094	실물자료
074	석기만들기	p. 095	인화사진
075	석기 사용 체험	p. 095	인화사진
076	돼지 해체	p. 095	인화사진
07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4회	p. 096	실물자료
078	국제설계공모 작품전시회	p. 097	실물자료
079	가상발굴	p. 098	인화사진
080	석기 만들기	p. 098	인화사진
081	돼지 해체	p. 098	인화사진
082	선사 체험 학교1	p. 099	인화사진
083	선사 체험 학교2	p. 099	인화사진
084	선사 체험 학교3	p. 099	인화사진
085	구석기 축제 체험스쿨 운영자들	p. 100	인화사진
086	구석기 체험스쿨	p. 100	인화사진
08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5회	p. 101	파일
088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5회	p. 101	파일
089	구석기 체험스쿨 표지	p. 102	실물자료

번호	도판명칭	쪽번호	유형
090	구석기 체험스쿨 수료증	p. 102	실물자료
091	구석기 체험스쿨1	p. 103	인화사진
092	구석기 체험스쿨2	p. 103	인화사진
093	동물·식물·암석·화석 관찰교실1	p. 104	인화사진
094	동물·식물·암석·화석 관찰 교실2	p. 104	인화사진
095	고고학아카데미 홍보	p. 105	실물자료
096	축제 홍보물_16회	p. 105	실물자료
097	고고학아카데미 워크북	p. 106~109	실물자료
098	원시인 퍼포머 정찬교와 어린이	p. 110	인화사진
099	축제 홍보물_17회	p. 110~111	파일
100	구석기축제 안내지_18회	p. 112	파일
101	구석기축제 포스터_18회	p. 112	파일
102	체험 교육 특별전 안내지	p. 113	실물자료
103	전곡리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학습지	p. 114~117	실물자료
104	축제 참가자들	p. 120	인화사진
105	원시인 퍼포먼스	p. 120	인화사진
106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19회	p. 121	파일
107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19회	p. 122~123	실물자료
108	불피우기 시연_스페인	p. 124	인화사진
109	전곡리 고고학 아카데이 부스	p. 124	인화사진
110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수업모습	p. 124	인화사진
111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0회	p. 125	파일
112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안내지_4회(3회는 오기 인쇄)	p. 125	실물자료
113	전곡 구석기 축제 체험지_20회	p. 126~127	실물자료
114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1회	p. 128	파일
115	전곡 구석기 축제 활동지_21회	p. 128	실물자료
116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1회	p. 129	파일
117	입구 관람객	p. 130	인화사진
118	구석기 축제장 입구 모습	p. 130	인화사진
119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2회	p. 131	파일

번호	도판명칭	쪽번호	유형
120	전곡 구석기 축제 농특산물 큰장터 포스터_22회	p. 131	파일
12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포스터	p. 132	실물자료
122	선사체험 국제교류전	p. 132	파일
123	나무 막집 짓기	p. 133	인화사진
124	바비큐 체험	p. 133	인화사진
125	축제장 전경	p. 134	인화사진
126	바비큐 체험	p. 134	인화사진
12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3회	p. 135	파일
128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p. 135	실물자료
129	구석기 축제 안내지_23회	p. 136	파일
130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1	p. 137	인화사진
13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2	p. 137	인화사진
132	축제 전경	p. 138	인화사진
133	축제 퍼레이드	p. 138	인화사진
134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4회	p. 139	파일
135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4회	p. 140	실물자료
136	전곡 구석기 축제 초대장_24회	p. 140	실물자료
137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p. 141	실물자료
138	구석기 축제 개막	p. 141	인화사진
139	축제장 전경	p. 142	인화사진
140	원시인 퍼포먼스	p. 142	인화사진
141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5회	p. 143	파일
142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5회	p. 144	실물자료
143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p. 144	실물자료
144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각국 참가자	p. 145	인화사진
145	돼지 해체	p. 146	인화사진
146	석기 만들기_일본	p. 146	인화사진
147	전곡 구석기 축제 포스터_26회	p. 147	파일
148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활동지	p. 147	실물자료
149	전곡 구석기 축제 안내지_26회	p. 147	파일
150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독일	p. 148	인화사진
151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일본	p. 148	인화사진
152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프랑스	p. 148	인화사진
153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_포르투칼	p. 148	인화사진
154	세계 체험마을 안내지	p. 149	실물자료
155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7회	p. 150	실물자료
156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7회	p. 150	실물자료
157	연천 구석기 축제 안내지_27회	p. 151	실물자료
158	연천 전곡에서 만나는 5월의 시간여행 포스터	p. 152	파일
159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_한국	p. 153	인화사진
160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 주먹도끼 제작시연	p. 153	인화사진
161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_네덜란드	p. 153	인화사진
162	세계 구석기 체험마당 토기 만들기	p. 153	인화사진
163	연천 구석기 축제 포스터_29회	p. 154	파일
164	연천 구석기 축제 초대장_29회	p. 154	파일
165	연천 구석기 축제 안내지_29회	p. 155	파일
166	연천 구석기 축제 프로그램 소개_29회	p. 155	파일

만든 사람들

발행 이한용

총괄 이미란

진행 및 원고 김소영

칼럼 배기동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자료조사 김영연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행정 안세웅 이경호 송유진

편집디자인 정상훈 송수미 더페이퍼

펴낸 날 2022. 12